통일혁명당

주체90(2001)년

PDF자료집



주간 6.15주간

통일혁명당

6.15주간 편집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조선노동당 제 4차 대회(1961년 9월)

동지들!

남조선인민들이 반제반봉건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며 이 투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는 맑스-레닌주의를 지침으로 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혁명적 당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정당이 없이는 인민대중에게 명확한 투쟁강령을 줄 수 없으며, 혁명군중을 굳게 결속할 수 없으며, 군중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할 수 없습니다.

혁명적 당이 없었고 명확한 투쟁강령이 없었으며 따라서 기본군중인 로동자, 농민이 항쟁에 광범히 참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4월봉기는 철저히 조직적으로 전개되지 못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은 그들이 흘린 피의 대가를 미제의 다른 주구들의 손에 빼앗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역시 혁명적 당의 령도가 없었으며 로동자, 농민, 병사대중의 각성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은 군부상층의 파쑈분자들에 의한 권력탈취를 막지 못하였으며 민주주의적 권리에 대한 적들의 공격을 반대하여 효과적인 반격을 조직하지 못하였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이 쓰라린 경험에서 반드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남조선인민들은 광범한 군중 속에 깊이 뿌리 박은 로동자, 농민의 독자적인 당을 가져야 하며, 그 합법적 지위를 쟁취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조직되여야 할 근로인민의 정당은 모든 애국적 력량을 단결시킴으로써 칠저한 반제국주의적, 반봉건적 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조선인민들 앞에 제기되고 있는 가장 선차적인 과업은 미제국주의의 남조선 강점을 반대하면 미국 침략 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은 ≪공산주의 침략≫을 막는다는 구실 밑에 우리 동포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음흉한 책동을 철저히 폭로분쇄하여야 합니다.

조선인민은 결코 동족상잔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들 사이에 사상과 정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지장으로 될 수 없으며 더우기 전쟁의 원인으로 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 침략≫이란 미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 낸 말이며 그들의 남조선강점과 전조선침략기도를 은폐하고 남조선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간판에 불과합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준비 정책을 파탄시키기 위한 전인민적 항쟁에 궐기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강제징집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로동자들은 태업과 파업을 조직하여 적들과 군수생산과 군수물자수송을 방해하며 전체 남조선인민들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의 건설을 반대하며 투쟁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우리의 동포들을 학살하며 략탈하며 모욕하는 미국군대의 강도행위를 결정적으로 규탄하고 저지시켜야 하며 침략자들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미국침략군대에 대한 일체 협력을 단호히 거부하며 그들에게 쌀 한 알, 물 한 방울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침략자들로 하여금 격분한 인민들의 항쟁 앞에서 공포에 떨게 하며 그들이 우리 땅에 발 붙일 곳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미국침략군대를 하루속히 철거하여야 하며 남조선과 미국간에 체결된 일체 예속적인 군사, 경제적 조약들을 철폐하여야 하며 미국의 식민지적 예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 력량이 단결하여 결정적인 반미투쟁에 궐기할 때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강토에 배겨내지 못할 것이며 남조선에서 쫓겨나고야 말것입니다.

이와 함께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결탁한 지주, 예속자본가들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며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오늘 남조선에서 사회정치생활을 민주화하며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 민주주의개혁을 수행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절박한 요구입니다.

남조선군사정권은 인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권리까지도 완전히 박탈하고 인민들의 수족을 묶어 놓고 있습니다.

남조선의 군사통치자들은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 탄압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구실 밑에 수많은 애국자들을 닥치는 대로 검거 투옥하고 있으며 심지여는 신문기자들에게 미제의 철거와 외세를 배제한 통일을 주장하였다는 단 한 가지 리유로 사형을 언도하는 횡포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파쑈독재를 분쇄하고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언론, 출판, 결사, 집회, 시위 및 파업의 자유가 보장되여야 하며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치 자유가 회복되여야 합니다. 군사정권에 의하여 감행되고 있는 야수적 태도는 즉시 중지되고 체포구금된 모든 애국적 정치범들과 무고한 주민들은 즉시 석방되여야 하며 미제의 특무, 민족반역자들이 처단되여야 합니다.

토지문제의 해결은 남조선에서 당면한 민주주의혁명의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토지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생산력을 봉건적 질곡으로부터 해방하지 않고서는 남조선인구의 7할 이상을 차지하는 농민 대중을 기아와 빈궁에서 구출할 수 없으며 그들의 생활을 안착시킬 수 없습니다.

남조선농민들은 일치 단결하여 민주주의적 토지 개혁을 실시하며 봉건적 착취 제도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토지는 응당 밭갈이하는 농민들의 소유로 되여야 합니다. 지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또는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여 줌으로써 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세기적 숙망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미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적 조국통일의 위업에 기여할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그의 토지의 대가를 물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강점군대에 의하여 군용지로 략탈된 토지는 즉시 농민들에게 반환되여야 합니다.

철저한 민주주의적 토지개혁을 실시하는 동시에 새 땅을 대대적으로 개간하여 땅이 적은 농민들과 리농한 실업자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농민들에 대한 각종 고리대 착취는 금지되여야 하며 농민들이 진 토지 채무와 빈농민들의 일체 부채는 폐기되여야 합니다.

조선농촌에서 봉건적 관계의 청산은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길을 열어 주며 농민생활을 개선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민족공업의 발전에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주적 민족공업이 없이는 인민의 복리증진도, 국가의 독립도 있을 수 없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예속자본가, 민족반역자들의 소유인 공장, 광산, 철도, 운수 및 은행을 몰수하여 국유화함으로써 외래 제국주의와 국내매국세력의 강제적 토대를 분쇄하고 민족 공업을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가들의 경리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원료와 자금 및 판로를 보장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자유로운 발전에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남조선로동자들은 8시간 로동제와 사회보험제의 실시, 임금 인상 및 로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수백만의 실업자들에게 시급히 일자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로동자의 임금은 우선 최저생활비의 수준에까지 올려야 합니다. 또한 물가를 안정시켜야 할 것이며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을 현저히 경감하고 각종 가렴잡세를 철폐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조선에 얼마 되지 않는 과학자, 기술자들에게는 일자리가 없으며 그들에게는 과학연구의 조건과 자유가 보장되여 있지 않습니다. 남조선에서는 반동적이며 퇴폐적인 미국문화가 인민의 의식을 중독시키고 있으며 우리의 고유한 민족 문화는 짓밟혀 조락되고 있습니다. 과학자, 문화 예술인들은 반동적 미국문화의 침습에 반대하고 생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인민의 리익에 복무하는 민주주의적 민족문화의 건설에 용감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남조선의 청년, 학생, 지식인들은 학원의 군사화와 모리화를 반대하며 교육제도의 민주주의적 개혁을 요구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국가부담에 의한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함으로써 학령아동들의 완전취학을 보장하여야 하며 성인교육제도를 광범히 실시하여 근로자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며 문맹을 퇴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민생활의 무참한 령락과 보건사업에 대한 집권자들의 범죄적 무관심의 결과로 오늘 남조선에서는 각종 전염병과 만성질환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신음하고 있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무상치료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남조선 녀성들에게 남성과 평등한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남조선인민들의 모든 생활을 민주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녀성들을 천대와 멸시를 받는 굴욕적 처지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히 하며 녀성들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며 그들을 사회적 로동에 광범히 참가시키며 그들에게 동일한 로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의 원칙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70만의 고용군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군≫의 통수권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수중에 있으며 그 지휘자는 미국장군들입니다.

조선군대의 절대 다수는 군복을 입은 농민이며 로동자입니다. 그들은 미제의 앞잡이들에 의하여 ≪국군≫에 강제로 끌려나온 근로청년들입니다.

남조선군대는 북조선에 있는 자기들의 동포들을 향하여 총부리를 겨눌 것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자유와 생존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자기들의 부모 형제들에게 총탄을 퍼부을 것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에는 ≪국군≫의 원쑤가 없으며 로동자, 농민의 군대인 인민군대는 남조선에 있는 자기들의 형제들과 싸우기를 결코 원치 않습니다. ≪국군≫의 진정한 원쑤는 우리의 강토를 강점하고 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이며 그 앞잡이들입니다.

남조선 군대는 인민의 애국적 운동과 민주주의적 운동을 탄압하며 전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미제국주의자들의 맹목적인 도구로 되는 것을 그만 두고 외래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민족의 군대로, 인민의 군대로 되여야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수중으로부터 ≪국군≫의 통수권을 탈환하여야 하며 반인민적인 병역제를 철폐하고 파쑈적 군사제도를 민주주의적으로 개혁하여야 합니다.

≪국군≫ 병사들과 하급 장교들은 조선 사람끼리 서로 싸우게 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흉책에 빠지지 말고 인민의 편으로 돌아서야 하며 미국 지휘관들과 ≪국군≫ 상층 반역 도당들의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민들은 오직 자기 자신들의 투쟁에 의해서만 자유와 해방을 전취할 수 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외래 제국주의침략세력과 국내착취자들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한 영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오농민전쟁, 3 · 1운동, 6 · 10만세사건, 광주학생사건을 비롯하여 인민대중의 해방투쟁은 면면히 계속되여 왔으며 이러한 투쟁들은 억압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광범한 인민대중이 억압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 일어날 때에는 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아성이라도 능히 쳐부실 수 있는 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에서 가장 공고한 반공정권이라고 떠벌이던 리승만정권도 바로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 투쟁에 의하여 전복되고야 말았습니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 학생, 지식인들과 광범한 인민대중은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며 민주주의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 용감히 일어서야 합니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조선노동당 제5차대회(1970년 11월)

동지들!

남조선혁명은 전조선혁명의 구성부분입니다.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것과 함께 남조선에서 혁명투쟁을 더욱 다그쳐야 합니다.

인민들은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혁명투쟁을 계속 꾸준히 벌여 왔습니다(우렁찬 박수).

특히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전후시기에 와서 점차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어려운 시련 속에서 그 성과를 확대하면서 자기의 앞길을 개척하여 왔습니다. 전후에 남조선인민들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에 고무되면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며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와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계속 억세게 싸워 왔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피도 많이 흘렸고 가슴아픈 패배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한 희생과 실패는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포악한 적들과는 오직 조직된 힘으로 맞서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혁명투쟁의 고귀한 진리를 점차 깨닫게 하였습니다.

남조선 혁명가들은 혁명역량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우며 투쟁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당을 내올 필요성을 적극 느끼었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남조선 혁명가들의 줄기찬 투쟁의 결과로 그리고 남조선 운동발전의 필연적 요구를 반영하여 1955년 12월 남조선 혁명가들의 합법적 정당으로서 진보당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진보당은 반제반파쇼평화통일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투쟁강령을 내놓고 각계각층의 애국적 민주주의역량을 묶어세우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열정책과 파쇼화정책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을 벌였습니다. 남조선의 광범위한 인민들 속에서 진보당의 위신은 높아졌으며 특히 이 당이 내놓은 평화통일 강령은 남조선사회에서 커다란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1956년에 있은 괴뢰대통령 선거때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폭압과 사기협잡 속에서도 진보당이 내놓은 후보자가 미제의 충실한 앞잡이인 이승만이 얻은 득표수보다 약간 적은 수인 200만표 이상의 찬성 투표를 받았다는 사실은 이에 대한 뚜렷한 증거로 됩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이 미제의 식민지파쇼통치와 민족분열정책을 반대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절실히 염원하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진보당의영향력이 남조선인민들 속에 빨리 확대 강화되는 데 겁을 집어먹은 미제와 그의 앞잡이들은 유혈적인 탄압책동을 벌여 수많은 진보당 당원들을 체포투옥하고 그 당수 조봉암선생을 학살하는 야수적 만행을 감행하였으며 당을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그리하여 1958년 1월에 진보당은 자기존재를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진보당이 원수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기세를 대중적 혁명운동으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자체의 혁명역량을 보존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못하였으나 남조선에서 조국통일의 기운을 더욱 높이고 인민들의 반미반독재투쟁을 발전시키는 데 적지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진보당이 해산된 후 남조선 애국인민들에 대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탄압책동은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온갖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혁명투쟁은 계속 줄기차게 벌어졌으며 혁명역량은 끊임없이 자라났습니다.

1960년 4월에 있었던 인민봉기는 남조선혁명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4월 인민봉기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통치 밑에서 오랫동안 쌓이고 쌓였던 남조선인민들의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었으며 남조선 전역에서 수백만 명에 이르는 광범위한 군중이 참가한 대중적인 반미구국항쟁이었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남조선 청년학생, 지식인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미제의 오랜 앞잡이인 이승만 괴뢰정부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전후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에서 이룩한 첫 승리였습니다. 4월 인민봉기는 남조선인민들의 영웅적 기개를 뚜렷이 시위하였으며 인민대중이 힘을 합쳐 억압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일떠선다면 원수들의 어떤 아성도 능히 짓부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우렁찬 박수).

4·19봉기를 계기로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정세는 혁명의 편에 이롭게 전변되었습니다.

4월 인민봉기에 뒤이어 남조선 애국자들과 인민대중의 혁명적 진출은 날로 강화되고 진보적인 정치세력이 대두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대중당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조선 혁명가들의 지도 밑에 사회대중당은 민족자주노선에 기초한 민주주의적 통일국가의 창건을 당면과업으로 내세우고 인민들의 대중적 진출을 조국의 자주적 통일에로 이끄는 활발한 조직정치활동을 벌였습니다. 이 당은 광범위한 민주주의역량의 통일전선체적 연합체인 민족자주통일 중앙협의회를 묶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각계각층 인민들의 공동투쟁을 조직·지도하였습니다. 사회대중당의 지도 밑에 투쟁의 불길은 남조선 온 지역에 세차게 타번지고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통일만이 살 길이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구호를 들고 남북의 장벽을 허물어뜨리기 위한 영웅적인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사회대중당은 청년학생들의 혁명적 진출을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끝장내며 그 식민지통치기구를 때려부수고 민주주의적 정권을 세우기 위한 투쟁에로 발전시키지 못하였으며, 이 투쟁에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조직·동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사회대중당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반동군사깡패들을 내세워 반혁명적인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혁명역량에 대한 파쇼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나섰을 때, 그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지 못하였으며 청년학생들의 투쟁은 결국 탄압당하고 말았습니다.

5·16군사정변이 있은 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남조선에서 노골적인 군사파쇼통치를 실시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남조선인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마저 짓밟고 모든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들을 강제로 해산시켰으며, 언론 출판기관을 폐쇄하고 수십만의 혁명가들과 애국적 인민들을 닥치는 대로 검거, 투옥,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 원쑤들의 이와 같은 야수적 폭압으로 말미암아 사회대중당은 파괴당하고 남조선의 혁명역량은 커다란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전후 이러한 투쟁과정을 통하여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 인민들은 더욱더 각성되었으며 많은 귀중한 교훈과 가치있는 투쟁경험을 쌓았습니다. 남조선 혁명운동의 역사적 경험은 정권을 위한 투쟁에서 평화적 이행이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순수한 대중운동만으로는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수 없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 주었습니다(우렁찬 박수). 미제의 비호 밑에 남조선의 역대 반동통치배들은 인민들의 지지를 받는 진보적 인사들이 정권에 들어앉을 기색이 조금이라도 보이기만 하면 그들을 무참히 학살하였으며,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나라의 통일을 지향하는 대중운동이 일어날때마다 그것을 매번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것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진보당도 바로 조국통일의 구호 밑에 선거에서 인기를 끌게 되자 곧 파괴당하였으며, 사회대중당 역시 광범위한 대중을 조국통일을 위한 구국투쟁에로 이끌고 인민들 속에서 신망이 높아지자 강제로 해산당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혁명적으로 나가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테러를 감행하는 것은 원수들의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놈들은 해방 직후에도 여운형 선생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주장하였다는 단 한가지 이유로 암살하였으며 김구 선생 역시 남북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참가한 뒤 진보적으로 나가게 되자 암살하였습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 인민들은 남조선의 반동통치배들이 자기의 지배권을 공손히 양보하려하지 않으며 진보적 역량을 암살하기 위하여 반혁명적 폭력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조건에서 오직 혁명적인 투쟁방법으로써만 정권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혁명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반파쇼민주화를 위한 대중투쟁을 적극 벌이는 것과 함께 적들의 반혁명적 폭력에 혁명적 폭력으로 대항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우렁찬 박수).

특히 4.19인민봉기와 그후의 사태발전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며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 엎기 위한 결정적인 혁명투쟁을 통해서만 인민들은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쟁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투쟁은 오직 노동계급의 전위대인 맑스－레닌주의당의 영도 밑에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이 동원되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남조선 혁명가들은 원수들과의 투쟁에서 피의 댓가로 얻은 고귀한 경험과 교훈을 옳게 살리면서 군사파쇼통치배들의 악독한 폭압 속에서도 굴하지않고 혁명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우렁찬 박수).

그들은 지난날 남조선 혁명운동의 본질적 약점을 극복하고 혁명을 성과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관건적 고리를 노동계급의 맑스－레닌주의당 창건에서 찾았으며 온갖 간난신고를 이겨내면서 통일혁명당 건설을 다그치었습니다

통일적 맑스－레닌주의당, 노동계급의 당으로서의 통일혁명당은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혁명투쟁 속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노동계급의 맑스－레닌주의당의 출현으로 남조선의 억압받고 착취받는 광범한 인민대중은 자기의 계급적 및 민족적 이익의 참다운 옹호자를 가지게 되었으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자기의 믿음직한 정치적 참모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통일혁명당의 정치적 입장과 투쟁목표는 지난해 8월 서울에서 이 당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발표된 통일혁명당 선언과 강령에 뚜렷이 밝혀져 있습니다.

통일혁명당의 선언과 강령에서는 당의 지도이념이 맑스－레닌주의적 주체사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당의 최고 목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며 당면목적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와 파쇼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여 부패한 식민지반봉건적 사회제도를 뒤집어엎고 그 무덤 위에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세우며 나아가서 민족의 희망과 염원인 조국통일의 대업을 성취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혁명당이 내세우고 있는 투쟁목표와 투쟁강령은 남조선 사회경제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와 각계각층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미제침략자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남조선 모든 애국적 민주역량의 공동의 정치강령으로 되며 전체 남조선인민들의 투쟁목표로 됩니다(우렁찬 박수).

통일혁명당 조직들은 매국적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1964년 6·3 봉기, 한일협정을 배격하는 1965년 8월 투쟁, 1967년의 괴뢰대통령 및 괴뢰국회의원 선거반대투쟁을 비롯한 많은 투쟁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투쟁과정에서 당은 끊임없이 혁명적으로 단련되었으며 남조선인민들 속에서 그 영향력과 신임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오늘 남조선 혁명가들은 통일혁명당 조직들을 튼튼히 꾸리는 한편, 그 두리에 애국적 인민들을 굳게 묶어세우며 지하와 산속에서, 감옥과 교수대에서 영웅적인 반미구국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동지들!

남조선에서 반혁명을 때려부시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역량을 계속 강화하여야 합니다. 혁명역량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원수들의 반혁명적 공세를 제때에 물리칠 수 있으며 나아가서 혁명적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혁평적 역량을 마련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혁명의 참모부인 맑스－레닌주의당을 강화하며 그 두리에 노동자, 농민을 굳게 묶어세워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 것입니다. 남조선 혁명가들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혁명군중이 있는 모든 곳에서 당역량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하며 대중 속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당의 대중적 기반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 속에서 계속 여러 가지 형태의 대중단체들을 조직하며 그것을 튼튼히 하여야 합니다.

혁명의 기본부대를 잘 꾸리는 것과 함께 혁명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계층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묶어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반혁명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혁명역량의 절대적인 우세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남조선의 혁명조직들은 반제반파쇼민주화의 기치 밑에 로든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와 각계각층 군중들과 개별적 인사들을 망라하는 반미구국통일전선을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청년학생들을 혁명대오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이들과 혁명의 주력군인 노동자, 농민들과의 조직적 유대를 긴밀히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혁명역량은 광범위한 대중투쟁이 벌어지는 조건에서만 끊임없이 장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혁명투쟁의 불길 속에서만 인민대중의 정치적각성이 높아지고 조직적 결속이 촉진되며 혁명의 핵심대열이 늘어나고 혁명조직의 전투력이 강해집니다. 남조선에서 혁명역량을 장성시키는 과업이 긴급하면 할수록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대중적 투쟁을 적극적으로 조직·전개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옳은 전략전술적 지도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 판단하고 혁명발전의 요구와 군중의 의식수준을 잘 참작하여 그에 알맞는 투쟁구호를 내세우고 투쟁형태와 투쟁방법을 옳게 선택하며 원수들의 내부모순과 약점들을 비롯한 온갖 가능성들을 능숙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합법 및 반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큰 규모의 투쟁과 작은 규모의 투쟁과 같은 여러 가지 투쟁형태와 투쟁방법을 옳게 결합하여 혁명운동을 적극 밀고 나가야할 것입니다.

현 단계에서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 인민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와 그 앞잡이들의 파쇼폭압을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투쟁을 적극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군사파쇼독재를 반대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정치투쟁과 생존의 권리를 위한 근로대중의 경제투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정치적 자유를 위한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더욱 목적의식화하면서 그들의 민주주의운동을 노동자, 농민들의 정치투쟁과 밀접히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혁명적 폭력은 혁명적 폭력으로 짓부시며 폭력에는 언제나 폭력으로 맞설 수 있도록 혁명역량을 준비해야 합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투쟁을 통하여 정치적 군대를 튼튼히 꾸리고 혁명역량을 끊임없이 축적하여 나간다면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준비있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현 반동정권을 뒤집어엎고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세움으로써 남조선혁명의 목적을 이룩하고야 말 것입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물론 남조선혁명의 승리는 쉽게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 앞길은 의연히 험난합니다. 그러나 원수들의 어떤 발악도, 어떠한 간난신고도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일떠선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 인민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으며 남조선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멈춰 세울 수 없습니다(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남조선인민들은 자기 혁명투쟁에서 외롭지 않으며 북조선에 위력한 혁명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남조선혁명은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 자신의 투쟁입니다. 억압받고 착취받는 인민대중은 오직 자신의 혁명투쟁에 의하여서만 자유와 해방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조선 혁명은 어디까지나 남조선인민들 자체가 주동이 되어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북조선인민들은 같은 민족으로서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원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 국제정세는 반혁명에는 불리하고 혁명에는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으며 모든 대륙의 진보적 인민들이 남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의 침략정책을 규탄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해방투쟁을 견결히 지지·성원하고 있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남조선에서 미제식민지통치의 붕괴와 인민들의 혁명위업의 승리는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우뢰와 같은 박수).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

주체의 년대기에 특기할 사변과 위훈을 아로새긴 20세기의 마지막 해가 저물고 찬란한 태양의 존함으로 빛날 희망찬 21세기의 첫해가 밝았습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뜻깊은 새 세기의 첫해 이 아침 온 겨레와 인류가 한결같이 경모하여 우러러 따르는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주체시대의 위대한 영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다함없는 흠모와 열화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삼가 가장 열렬한 만수축원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늘땅을 진감하며 격동속에 저물어간 수난 많던 20세기 마지막 해인 지난해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선군혁명영도로 조국 북반부에서 강성대국건설의 장엄한 포성을 더 높이 울리며 위대한 **김정일**시대의 영웅적 기상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여 세인을 한없이 경탄시킨 영광찬란한 주체조선의 한해였으며 온 겨레와 전 인류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에 끝없이 매혹되여 만세의 환호성을 터치며 세계사에 ≪조선의 해≫로 장식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한해였습니다.

더욱이 지난해는 민족의 태양이신 **김정일**동지께서 민족분단 50여년의 긴긴 세월에도 이룩하지 못했던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7천만 겨레의 지향과 염원을 담은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선언인 6. 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시어 한순간에 조국통일의 앞길에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주시고 통일된 부강조국건설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어 세계의 폭풍 같은 경탄과 아낌없는 찬사를 불러일으킨 민족사적대사변의 한해였습니다.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해 조국북반부에서 전당, 전군, 전민이 들고 나갈 투쟁방향과 구호를 제시하시고 쉬임없이 인민군부대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당과 군대, 경제와 문화 등 전반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온 나라에 백두의 혁명정신, 혁명적 군인정신이 나래치게 하시며 주체조선을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속에 강성대국건설의 총 진격의 해,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어 주시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정치가이시며 영도의 거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필승불패의 선군정치로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주시며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으로 민중생활향상을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시고 주체조국의 면모를 사회주의맛이 나게 새롭게 일신시키는 천지개벽의 새 역사를 창조하시어 불패의 강국, 영웅조선의 불굴의 기상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걸출한 영도가 있기에 지난해 이북민중은

모진 고난속에서도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구호를 높이 들고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의 신념의 노래를 부르며 사상과 의지로 만년대계의 청년영웅도로와 세계굴지의 안변청년발전소, 태천발전소와 평안북도토지정리를 비롯한 노동당시대의 거창한 대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우후죽순처럼 일떠세우며 위대한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 20세기 사회주의건설의 유일한 승리자로 되였습니다.

특히 20세기를 마감하는 지난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승리와 영광속에 성대히 진행된 조선노동당창건 55돐 경축행사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위대한 **김정일**사상으로 일심단결되고 **김정일**결사옹위정신으로 전진하는 필승의 기상과 위력을 온 세계에 과시한 대정치축전이였으며 위대한 장군님 따라 역사에 유례없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이겨 낸 사회주의 ≪영웅의 나라≫의 대서사시적 화폭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심으로 하여 오늘 공화국북반부의 군민은 총폭탄영웅, 자폭용사로,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주체조선이 없는 지구는 있을 수 없다는 불변의 의지와 배짱을 안고 역사의 준엄한 폭풍을 과감히 헤치며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권위로 승이해 나가는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영예와 존엄을 끝없이 빛내여 나가고 있습니다.

만민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세계의 중심에 거연히 서시여 단신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며 주체사회주의를 빛내이시는 세기의 신화로 진보적 인류를 승리의 한길로 향도하시기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특유의 정치방식과 신묘한 지략에 매혹된 동서의 열강들이 앞을 다투어 평양을 찾아가고 공화국과 국교관계를 맺게 되였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의지와 방략에 따라 세계가 움직이고 시대가 발전하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 지게 되였습니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칭송하는 만민의 송가는 우주에 차 넘치고 있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치방식을 따라 배우는 것이 세계적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정녕 20세기의 마지막 해를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게 장식한 그 모든 성과와 업적들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사상과 정치, 걸출한 영도와 덕망이 내온 고귀한 결실입니다.

역사는 위인들과 명장들의 공적을 수많이 전해 오고 있지만 위대한 **김정일**동지처럼 천재적 예지와 비범한 영도천품, 무비의 담력과 혁명실력으로 민족사와 인류사를 빛나게 장식하며 만민의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를 받고 계시는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영도자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곡절 많던 20세기를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으신 만고절세의 위인, 위대한 정치원로이시며 민족과 인류가 우러러 경모하여 따르는 21세기의 찬란한 태양이십니다.

세계사에 있어 본적이 없는 격동적인 사변들로 가득찬 지난해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쌓으신 불멸의 공적은 우리 남녘민중에게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필승의 신념을 백배해 주고 있습니다.

숭고한 동지애의 화신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난해 통일애국투사들인 비전향장기수들을 한꺼번에 63명이나 영원한 사랑의 품, 자애로운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아 주시고 모든 영광과 행복을 다 안겨주시였으며 우리 민중에게 은정 넘친 동포애적 사랑과 통일의 밝은 길을 열어주심으로 하여 우리 전위투사들과 각계각층 민중의 마음은 꿈결에도 그리운 경애하는 장군님께로 더욱 세차게 달리고 있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흠모심과 숭배열기는 경향각지에서 전례없이 높아져 대하처럼 굽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천출위인상과 인덕정치를 목격하면서 남녀노소가 ≪**김정일**장군 만세≫를 목 메여 부르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만 계시면 조국통일도 민족의 부강번영도 문제 없다는 확신을 폐부에 깊이 새기였습니다.

민족의 운명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워 주신 조국통일의 휘황한 이정표가 있기에 각계 민중은 지난해 통일조국의 찬란한 내일을 낙관하며 용기백배 자주통일운동에 떨쳐나섰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영도자로 높이 모시고 있음으로 하여 조국통일은 확정적이며 민족의 전도는 양양합니다.

올해는 위대한 **김정일**세기로 빛날 희망찬 21세기의 뜻 깊은 첫 해이며 조국통일의 세기로 아로새길 새 역사의 해입니다.

새해에 우리들은 백전백승의 주체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새 세기에 걸맞게 ≪한민전≫과 통일운동대오를 위대한 장군님식대로 투쟁하는 믿음직한 조직으로 만들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운명의 구세주, 통일의 구성으로 굳게 믿고 따르는 각계 민중의 숭배심을 더욱 분출시켜 자주, 민주, 통일의 투쟁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충성으로 받들어 6. 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올해를 자랑찬 조국통일의 세기, 위대한 장군님의 세기로 빛내이는 위대한 승리의 해로 장식하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안녕과 장수는 온 겨레와 인류의 일치한 소원이며 더 없는 행복입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90(2001)년 1월 1일

서울



통일혁명당

정치사전 85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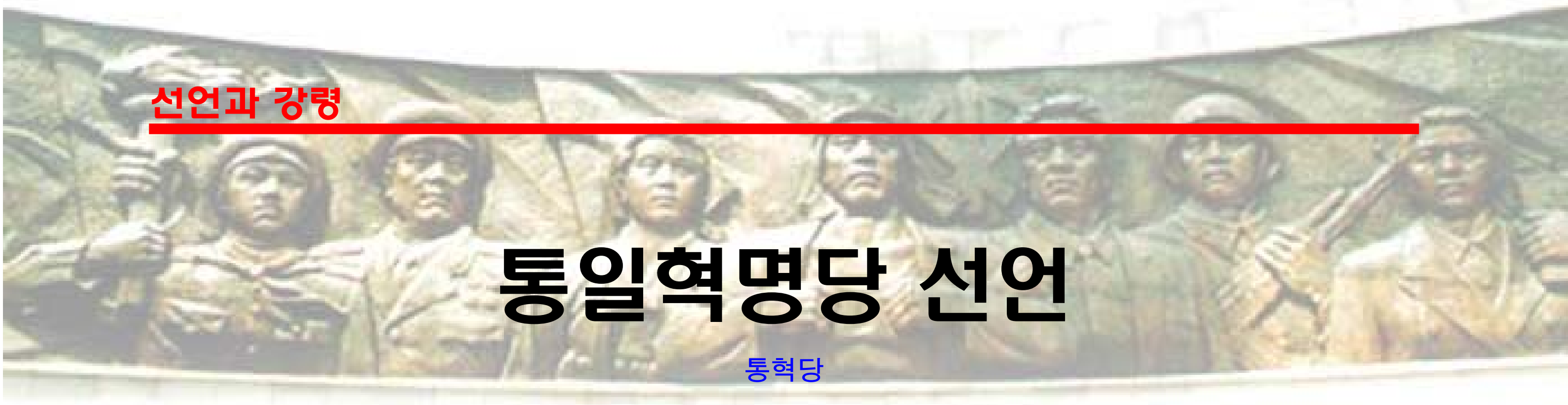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삼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정치적참모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 ≪통일적맑스-레닌주의당, 로동계급의 당으로서의 통일혁명당은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혁명투쟁속에서 나오게 되였습니다.≫(≪김일성 저작집≫ 25권, 307페지)

남조선혁명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남조선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릴데 대한 사상을 높이 받들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가혹한 파쑈적탄압속에서도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렸다. 여러 도들에서 지하혁명조직들 뭇고 당의 지도핵심을 키웠으며 그 성과에 토대하여 1964년 3월 15일 통일혁명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창당준비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실천투쟁속에서 단련된 혁명가들을 중심으로 서울시당위원회와 전라남도당위원회, 경상북도당위원회를 비롯한 지방당조직을 내오고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 인테리들을 받아 들여 그 대렬을 확대해 나갔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들과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에 대한 도서들을 출판하고 당기관지인 비합법적신문≪혁명전선≫과 합법적출판물인 ≪청맥≫을 발간하여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각급 당 조직성원들을 튼튼히 무장시키였다. 한편 통일혁명당조직들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속에서 대중정치사업을 힘 있게 벌려 그들의 계급적각성을 높이고 인민들로 하여금 반미구국투쟁에 적극 떨쳐 나서게 하였다. 이와 함께 비합법적조직으로서 ≪민족해방전선≫과 ≪조국해방전선≫, 비밀독서회를 내오고 합법적조직으로서 ≪60년대학사회≫, ≪청년문학가협회≫, ≪청맥회≫등 수많은 단체들을 조직하여 광범한 군중을 조직적으로 결속하였다. 통일혁명당조직들은 또한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적극 벌려 투쟁속에서 혁명력량을 끊임없이 키워 냈다. 통일혁명당조직들은 1964년 6.3봉기와 1965년 8월투쟁 등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1967년 6.8부정≪선거≫와 1969년 ≪3선 개헌≫을 반대하기 위한 투쟁을 비롯한 반미반파쑈민주화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통일혁명당조직들과 남조선혁명가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불과 4~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기간적인 공업부문을 비롯한 산업부문과 농촌들, 교육, 문화, 언론, 출판 기관들에까지 당조직이 확대되였으며 당의 핵심력량도 튼튼히 마련되였다. 남조선혁명가들은 창당을 위한 준비가 튼튼히 갖추어 지게 되자 1969년 8월 25일 서울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핵심들로써 통일혁명당중앙위원회를 결성하고 당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통일혁명당은 선언과 강령에서 당의 지도리념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라는것을 엄숙히 선포하였다. 또한 당의 최고목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것이며 당면목적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의 파쑈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여 식민지반봉건사회제도를 뒤집어 엎고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세우며 나아가서 민족최대의 념원인 조국통일의 위업을 성취하는데 있다는것을 밝혔다. 통일혁명당의 창건은 남조선에서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건설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의 빛나는 실현이였으며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이 장기간에 걸친 피 어린 투쟁의 고귀한 결실이였다. 통일혁명당이 창건됨으로써 로동계급과 농민을 비롯한 남조선의 억압받고 착취 받는 광범한 인민대중은 자기의 계급적 및 민족적 리익의 참다운 옹호자를 가지게 되였으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자기의 믿음직한 전위부대, 정치적참모부를 가지게 되였다. 이 때로부터 남조선혁명운동은 력사적으로 내려 오던 본질적 약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 서게 되였으며 승리의 한 길을 따라 확신성 있게 나아갈수 있게 되였다. 통일혁명당은 창건이후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원쑤들의 거듭되는 반동공세를 물리치면서 자기 대오를 불패의 대오로 꾸려 놓았으며 남조선에서 반미자주와 반파쑈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 있게 조직전개하였다. 오늘 통일혁명당은 남조선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역할을 빛나게 수행하고 있으며 투쟁과정을 통하여 불패의 대오로 더욱 강화되고 남조선인민들속에서 그 영향력과 신임이 더욱 높아 지고 있다.





통일혁명당 선언

통혁당

파시즘을 격멸하고 인류재생의 여명을 가져왔던 종전 20여년 그 이래 인류역사는 실로 장족의 비약을 이룩했다. 긴긴 세월 구미열강의 속지로 되어 그 번영을 위해서만 존재했던 피압박 3대륙이 이제 압제와 굴욕의 오랜 역사를 박차고 민족해방의 영웅항전에 일어섰으며 대소민족들이 포악한 제국주의 철쇄를 끊고 마침내 민족자결, 민족중흥의 장도에 올랐다.

장엄한 이 세계사적 격동과 거류속에서 이북 형제들은 위대한 사회주의 변혁과 경이적 발전을 기하고 단연 세계만방의 선진대오에 앞장섰다. 그러나 국토양단과 민족분열의 비극적 여건하에 우리 한국은 식민지 반봉건적 후진성에서 탈피하지 못한 채 의연 전대미문의 수난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이 땅에서 민족자주권이란 한갖 집권자들의 민족적 구호와 요설에 불과하며 실은 외세의존, 예속, 불평등, 민족적 치욕이 전부다. ≪자유≫, ≪민주주의≫ 역시 ≪헌법≫의 지면상에서만 유효하고 실지로는 독재와 학정이 판을 치며 민중을 질식시키고 있단. 경제는 피폐, 몰락의 악순환을 거듭하여 빈사상태에 이르고 한국사회는 지구상 제일의 저소득지역으로, 실업의 왕국, 기아와 질병이 만연하는 처참한 나락으로 화했다. 고금동서에 찬란함을 자랑하던 민족문화는 그 본연의 자세를 잃고 말세기적 양풍, 왜풍과의 혼탕물로 되고 말았다. ≪부정부패의 일소≫를 표방했던 ≪5·16혁명 공약≫은 순진한 민중에 대한 일대 기만이었으며, 독직, 매수, 특혜, 폭리 등 소수특권관료층과 매판재벌들의 비행은 극도로 파렴치해졌고 만고역적들은 구악을 뺨칠 신악의 화신으로 등장했다. 대대로 강요된 민족수난 위에 더 가중된 이 미증유의 망국적 비운 속에서 민중의 신음과 통곡, 빈궁과 무권리는 극에 달하고 우리 혈육들이 처처에서 사회를 저주하며 비명횡사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묻노니 이 모든 통탄할 사태의 근원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는 오로지 미제국주의의 군사적 강점과 그 침략정책에 있으며 낙후한 식민지반봉건적 사회제도에 있다. ≪해방자≫의 탈을 쓰고 기어든 미제침략자들은 시초부터 우리 한국을 제놈들의 식민지로 전화시키고 여명에서부터 실질적 통치자로 군림했다. 이들은 자주자립과 민적 독립을 염원하는 우리 인민의 열화같은 지향을 거세할 목적 밑에 독립의 외피로 가식된 식민주의정책을 시행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총검에 의해 날조된 ≪대한민국정권≫은 그들의 식민지지배를 엄폐하는 위장물이며 우리 인민에게 그것을 강요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땅에서 가증스러운 식민지반동통치를 감행키 위해 우리 인민의 인적, 물적 재부를 깡그리 탕진하며 간악무도한 파쑈독재에 해달리고 있다. 실로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지배와 그에 의해 부지되는 후진적안 식민지반봉건적 사회제도, 이것이야말로 우리사회의 일체 모순과 병폐의 근원이며, 또 그것이 바로 우리 겨레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불행과 재화의 화근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인민이 압제와 빈궁에서 해방되고 진정한 자유와 복리를 향유하는 출로는 오직 하나, 부패·변질된 현존제도를 전복하고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새 사회제도를 수립하는 데 있다. 착취사회는 그 본성에 있어서 불평등적이다. 우리 사회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치부하는 자는 소수 기생충적 착취계급이며 그 희생자들은 다수 피압박 대중이다. 그러기에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 지주, 매판자본가, 악질관료배들은 현 반등제도를 고수하고자 항거하지만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초시 소시민 등 광탐한 인민대중은 그를 타파하는데 절대적 이해관계를 가진다. 이 양자는 불구대천의 원수이며 그 모순은 오직 결사적 투쟁으로서만 종말된다.

한국에서 혁명은 필연적이며 불가피하다! 무릇 혁명은 해당 사회제도의 불상용적 모순에 그 객관적 근원을 두고 있다. 혁명은 ≪수출≫할 수도 없고, ≪수입≫할 수도 없다. 한국혁명은 한국인민의 주동적 역할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한국의 피압박, 피착취 대중은 자기 자신의 혁명투쟁으로 자유와 해방을 성취하여야 한다.

혁명이란 반혁명세력에 대한 혁명세력의 판갈이 싸움이며, 무장한 반혁명은 오직 혁명폭력에 의해서만 타도될 수 있다. 우리 조국의 피압박, 피착취 대중이 반혁명을 타도하고 혁명의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강력한 혁명역량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혁명역량을 편성하고 그를 성장·발전시키는 데서 중핵으로 되는 것은 혁명의 조직자이며 향도력인 혁명적 당을 가지는 것이다. 당이 없이는 망각 속에 버림받은 인민대중을 혁명의식으로 각성시킬 수 없고 조직화할 수 없다. 당의 영도가 있어야만 자연생장적 대중투쟁을 목적의식적 혁명투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혁명적 당을 못 가진 군중은 참모부없는 군대와 같고 그러한 군중으로서는 그 어떤 승리적 인민혁명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다. 4·19장거를 결정적 승리에로 종착시키지 못한 것도 구경은 혁명적 당이 없는 데 기인했고, 마찬가지로 5·16탈권을 허용하고 그 후안무치한 찬탈자들의 반혁명적 공세를 좌절시키지 못한 것도 종당은 혁명적 당이 없었고 그 영도가 결여된 데 귀착했다. 혁명의 진리와 반복된 피의 교훈 앞에서 이 나라 민중이 그처럼 갈구하여 마지않던 것은 곧 피압박 대중의 의사를 체현하고 그들의 투쟁을 승리에로 향도할 당, 혁명적 당이었다.

우리 혁명가들은 사회발전의 객관적 요청에 호응하여, 그리고 피맺힌 역사의 교훈과 민중의 염원에 보답하여, 이미 오래전에 통일혁명당 지방조직들을 결성하였고 이후 수년 간 간고한 지하혁명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제 우리는 전진하는 혁명운동과 당 자체발전의 간절한 요구에 따라, 당의 중앙지도부를 조직하고 여기 통일혁명당 선언을 세상에 공포한다.

통일혁명당은 그 계급적 기반과 지도이념, 투쟁목적상 일체 기성 정당정파들과 질적으로 구별되는 새 형의 마르크스·레닌주의당이다. 우리 당은 사회의 기간적 역군인 노동계급과 농민을 위시한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을 대변하여 옹호한다.

당은 이들 노동자, 농민들과 근로인텔리들의 선각분자들로 조직된다. 노동계급, 농민 등 근로대중은 물질적 정신적 부의 창조자이며 사회성원의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들을 떠나서는 사회의 존립도 민족의 번영도 상상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의 이익을 옹위함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대전제이고, 동시에 고것이 곧 민족적 이익의 가장 투철한 구현으로 되는 것이다.

통일혁명당의 지도이념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현 시대와 우리 조국 현실에 맞게 독창적으로 구현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 40여년 간의 험난한 혁명의 폭풍우 속에서 완벽함을 과시한 우리 시대의 마르크스·레닌주의이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무궁한 활력을 가지며, 우리 인민만이 아니라 전세계 수억만 인민들의 진로를 휘황히 명시해 주고 있다. 우리 당은 바로 이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있기에 불패이다,

우리 당의 최고목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인류의 세기적 숙망이며 최고이상이다. 여기서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억압·착취가 종국적으로 청산되고 자유, 평등, 복지, 문명에의 인간의 지향이 비로소 완전히 그리고 철저히 구현된다. 그러기에 압제자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 ≪반



공≫소동에 광분하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는 불가항력적이며 그를 저지시킬 힘은 이 세상에 없다.

한국사회 발전의 현 단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진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 전진을 저지하는 식민지반봉건적 사회제도를 소탕해야한다. 따라서 우리 당의 당면목적은 한국에서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여 부패한 식민지반봉건적 사회제도를 전복하고 그 무덤 위에 인민민주주의제도를 건립하며 나아가서 민족의 희원인 국토통일의 대업을 성취하는데 있다. 당은 우리 강토에서 미국 침략군을 격퇴하고 괴뢰정권을 타도하며,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인민의 정권을 수립할 것이다. 당은 민중에게 참된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고 토지개혁과 중요 산업 국유화를 위시한 제반 민주주의적 변혁을 단행하여 경제와 문화의 부흥발전과 민생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할 것이다. 당은 남북간의 인사왕래, 서신거래, 문물의 교환 · 교류 등 민족융합을 위한 점진적 제 조치를 적극 강구하며,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남북총선거에 의한 민족자율적인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분투할 것이다. 우리 당의 당면 목적이 실현될 때, 한국은 진정 한국인의 한국으로 되고, 주권은 원래 주권자인 인민의 것으로 되며, 일체 창조물은 그 창조자들 자신의 복리를 위해 이용되며 한 줄기의 지맥과 혈맥으로 이어진 3천리 강토와 4천만 민족은 통일된 조국에서 길이 부강 · 번영할 것이다.

전일적인 통일혁명당의 출현은 우리 인민의 사회정치생활상 특기할 사변이며 한국혁명발전에서 전환점으로 된다. 우리 인민은 자기 권익의 진정한 옹호자, 혁명의 참모부를 가지게 되었고, 통일단결의 확고부동한 구심점, 투쟁의 위대한 기치를 지니게 되었다. 이제 한국의 피압박 피착취 인민대중의 투쟁은 맹목성에서 탈피하여 정확한 방향각에 따라 전진하게 됐을 뿐 아니라, 종래의 분산성을 극복하고 당의 통일적인 향도하에 하나와 거세찬 혁명운동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물론 우리의 진로는 탄탄대로가 아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편린도 찾아볼 수 없고 일체 선진사상과 진보적 운동에 대한 잔악한 폭압이 횡행되는 현실적 여건에서 우리의 전진도상에 어찌 애로와 난관인들 없을 수 있겠는가! 적들은 지금 민족의 자주자립과 인민의 자유해방을 위해 분기한 우리 애국자들과 혁명가들을 ≪반역자≫로 몰아 잔인하게 처형하며 반미구국과 통일혁명을 위한 우리의 성업을 말살하기에 광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임종에 이른 자들의 최후경련에 불과하다. 교형리들은 우리대오에서 몇몇 전우들은 앗아갈 수는 있어도 그들이 뿌린 혁명의 불씨는 결코 소멸할 수 없으며, 불원 고조될 혁명의 노도를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자자손손 대를 이어 지켜 왔고 애국투사들의 선혈로 물든 신성한 조국강토가 양키놈들의 검은 군화 밑에 유린되는 것을 결코 방관치 않을 것이다. 우리는 기어코 잔악무도한 침략자들과 매국노들을 소탕하고 그들에 의해 이지러진 조국땅 위에 민중의 낙원을 건립하고 동강난 조국을 이어 놓고야 말 것이다.

우리의 혁명위업은 정의롭고 그 승리는 필연적이다. 한국혁명은 **김일성**에 의해 향도된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찬 전통에 뿌리박고 있으며, 혁명의 진리, 역사의 등대인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해 그 진로가 역력히 명시돼 있다. 혁명의 적들은 극소수이고 혁명의 편에는 무궁무진하는 힘을 가진 수백 수천만 대중이 있다. 우리 인민은 기백을 간직해 왔고 침략과 매국에 항거하여 줄기차게 싸워 왔다. 우리의 성업은 전국혁명의 보루인 이북의 불패의 혁명기지에 의해 굳게 담보되고 있고 북녘 형제들의 동포애적 지원을 받고 있다. 국제적 정세추향도 우리 혁명에 이롭게 전변되고 있다. 우리 혁명의 주적 미제국주의는 내외정세에 휘몰아치는 혁명적 폭풍우 앞에서 전율하고 있다. 지금 지구상 도처에서 감행되는 양키들의 침략과 전쟁소동은 함정에 빠진 맹수의 광증이다. 미제국주의는 이미 역사의 하강선에 합입된지 오래며 그 임종의 시각은 박두하고 있다. 현 시대는 국제자본의 철쇄가 계속 절단되고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세계사적 전환의 시대이며, 모든 대륙의 피압박 민족들이 긴긴 칠흑의 암야를 걷어차고 반제해방의 결전에 궐기한 투쟁의 시대이다. 이 도도한 시대의 기류 속에서 전개되는 우리 혁명의 전도는 휘황하며 그 승리는 확정적이다. 바야흐로 혁명은 성숙되고 있으며 결정적 시기는 임박하고 있다. 학대와 주림을 박차고 자유와 해방을 위해 분기한 이 나라 민중의 기개는 장대하며 그것은 일로 거세찬 혁명의 격랑으로 번져가고 있다.

이 엄숙한 시각에 당은 당신들 피압박 대중들과 애국적 인민들을 압제자들을 격멸하는 위대한 성전에로 부른다. 굴종은 죽음이며 주저는 패배다.

모두 다 반미구국과 통일혁명의 위업을 위해 과감히 떨쳐 나서라!

일체 애국적 민주주의적 역량은 통일혁명당의 기치하에 굳게 단합하라!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배들을 타도하자!

한국의 인민민주주의혁명 만세!

김일성의 주체사상 만세!





통일혁명당 강령

통혁당

제2차대전 후 일제를 대신하여 상륙한 제국주의는 우리 나라에 대한 100여년래의 침략야욕을 충족하고 아시아 대륙침략의 교두보를 구축할 목적하에 한국을 군사적으로 강점했다. 그들은 점령군의 총검으로 억압하고 독립과 원조의 감언으로 우롱하면서 새로운 식민지통치자로 등장했다. 그간 우리 한국사회에 어떠한 변화가 있다면 다만 전시효과를 노리는 구체적인 민족적 외피와 민주주의의 가식물이 첨가됐을 뿐 20세기 초 이래의 식민지 노예의 역사는 의연 지속되고 있다.

국토가 있고 주권재민을 고창하나 이는 명색에 불과하고 미제침략자들이 정치, 경제, 군사 등 한국의 일체 권력을 농단하는 실제적 통치자로 되고 있다.

≪대한민국≫이란 가증스런 식민지지배를 분장하기 위한 간판이고 그 정전은 미제침략군과 원조달러에 의해 유지·조종되는 신식민주의의 도구이며 매국배족의 괴뢰정권이다.

현 박정권도 미일제국주의 배설물로 사양된 주구집단으로서 상전의 지시에 충실한 침략과 약탈의 하수인이다.

미제국주의는 한국경제를 원조에 결박하여 그 요충을 장악하고 식민주의지배의 효율적 실현을 위해 경제체제를 개편했다. 각종 특혜를 통해 미국 과잉상품처리의 중개자, 독점자본침투의 안내자, 대중수탈의 공모자가 될 매판자본가들을 육성하는 일방, 사기적 농지개혁을 시행하여 토착봉건지주 세력을 비호했고 이들을 식민통치의 사회적 지반으로 삼았다. 이로 인하여 도시에서는 미제독점자본과 그것에 부수하여 겨레의 고혈을 짜내는 한줌의 신흥매판재벌이 산업경제의 기간부문을 지배하게 됐고 허약한 민족자본은 도처에서 구축·파산당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지주적 토지소유제와 그것에 기초한 전근대적, 경제외적 착취방식이 온존되어 농업경영의 영세화와 광범한 소농경제의 영락을 초래하고 있다.

결과 한국경제는 자립적 성장의 길이 폐쇄되고 무제한한 식민지 약탈과 군사적 부속물로서만 소용되는 대미일변도의 예속경제로 전환되고 의연 전근대적 후진성에서 탈피치 못하고 있다. 한국의 현실 사회제도는 식민지적이고 반봉건적이다. 오직 미제침략군의 총검과 그 주구배들의 파쑈폭압에 의해서만 지탱되고 있는 이 부패한 사회제도야말로 한국사회 발전의 고질적 암이며 이 사회의 모든 병폐의 화근이다.

외래침략세력과 그 주구배들의 도량(跳梁)하에 날을 따라 심각화되는 경제적 파국과 정치적 혼미, 사회적 불안과 대중적 궁핍, 전사회에 창궐하는 부정부패와 말세기적 사회악 등 이 모든 가공할 상황은 현재 사회제도의 반민족성, 반인민성을 단적으로 실증하고 있다. 그것은 나라의 자주적, 민주적 발전과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존 제도의 혁명적 전복은 자주자립을 지향하는 민족사의 요청이고 자유해방을 열망하는 민중의 의지이며 한국사회 발전의 객관적 필연성이다. 식민지란 봉건사회의 체내에서 배태된 한국혁명에는 반제민족해방적 과제와 반봉건민주주의적 과제가 동시에 부과돼 있다.

이 역사적 과제는 상호 공존할 수 없는 두 세력간의 첨예한 투쟁 속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 현 권력구조와 경제기반 위에서 전횡과 부귀를 누리는 미제침략자들과 매판자본가, 지수, 악질관료들은 사회의 혁명적 변혁에 필사 항거한다. 그들은 우리 민족의 권익을 유린하고 우리 사회의 민족적 발전에 역행하는 반민족, 반민주세력이며 혁명의 타도대상이다. 반혁명의 괴수이며 국내반동의 사양자인 미제국주의는 혁명의 주대상이다.

반대로 식민지반봉건 사회체제하에서 착취와 억압만을 당하는 노동자, 농민, 병사대중과 진보적 청년학생, 지식인, 도시소자산계급, 그리고 양심적 민족자본가들은 사회혁명에 사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민족적, 민주적 유대로 결합된 사회진보의 추진력이며 혁명의 동력을 이룬다. 이 중에서도 노동계급은 가장 선진적이고 혁명적이며, 때문에 혁명의 지도적 사명을 감당할 영도계급이 된다.

한국혁명은 노동계급의 영도하에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이며 한국사회의 참된 재생의 길은 곧 여기에 있다.

19세기 서구자본주의가 걸어온 길은 이미 낡았다. 자본주의의 평화적 발전기가 종말을 고하고 제국주의 단계에 들어선 오늘의 역사적 환경에서 이 길을 따라서는 식민지후진국의 민족민주적 과업을 종국적으로 성취할 수 없다. 이 길은 또다시 제국주의에 예속되어 절대다수 인민을 빈궁과 학대 속에 몰아넣고 오늘의 민족비극사를 반복할 뿐이다. 인민민주주의혁명만이 나라의 자주권을 성취하는 길이다.

8·15해방 후 이북에서는 **김일성**의 향도하에 노동자, 농민, 지식인 등 전체 민중이 인민혁명을 승리적으로 추진하여 자주, 자립, 자위의 부강한 독립국가를 건설했고 주리고 학대받던 피압박인민이 모든 권리와 복리를 향유하는 민중의 낙원을 펼쳐 놓았다.

각계각층의 애국적 진보적 역량이 수행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은 이 땅에서도 오랜 세월 누적된 모든 사회적 오물을 일소하고 자랑찬 새 역사의 기원을 열어 놓을 것이다. 노동계급을 위시한 노동대중의 전위부대이며 전체 한국인민의 민족적 이익의 체현자인 통일혁명당은 바로 이와 같은 혁명과제를 해결함으로써 민족과 인민을 위한 새 사회제도, 인민민주주의 제도를 건립하고 노동인민대중이 주인이 되는 영광의 역사를 창조함을 자기의 숭고한 숙명으로한다.

우리 당은 저주로운 식민지반봉건적 사회제도를 전복하고 한국사회의 민족적, 민주적 발전을 기하며 국토통일의 대업을 완성코자 다음의 12개조 강령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해 과감히 투쟁할 것이다.

1. 미제국주와 식민지통치의 철폐와 자주적 민주정권의 수립

일체 애국세력을 총집결하여 거족적 반미구국항쟁으로 식민지통치를 전복한다.

침략군을 구축하고 군사기지를 철폐하며 미제국주의의 군사적 강점을 종식시킨다. 미국의 현지 침략기구를 분쇄하고 예속적 협정, 조건들을 무효화한다.

괴뢰정권을 타도하고 노동자, 농민, 진보적 지식인, 도시소자본계급과 양심적 민족자본가 등 각계각층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 인민민주정권을 수립하여 정치적 독립을 성취한다.

2. 파쑈독재체제와 소탕과 사회정치생활에서 민주주의의 실현

중앙정보부를 위시한 정보, 경찰, 사법, 검찰 등 폭압기구를 해체



하고 ≪국가보안법≫, ≪반공법≫등 모든 반인민적 악법을 폐기하며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한 파쑈원흉들을 처단하고 ≪정치범≫들을 무조건 석방한다.

인민보안대를 창설하고 민주적 사법, 검찰제도를 확립하여 혁명의 쟁취물과 인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

민주민권에 일체 침해행위를 엄금하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및 신앙 등 민주주의적 자유와 전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선진사상의 선택과 그 선전의 자유, 각계각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민주적 정당 단체들의 조직과 그 활동의 자유를 확고히 담보한다.

주거이동, 직업선택의 자유와 인격, 주택의 신성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엄격히 보장하며 소수 민족반역자를 제외한 만 18세 이상의 공민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3. 농 · 어촌의 세기적 낙후성과 빈궁의 일소

민주적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농민들을 봉건적 억압과 착취에서 완전히 해방한다. 논3정보, 밭5정보 이상의 지주소유 토지와 소작지는 무상몰수하고 그 이하의 소지주, 부농들의 소작지는 매상하고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분여한다.

반미구국산업에 공헌한 애국자의 소유토지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매상한다.

산림, 관개수리시설을 국유화하여 농민들의 공익을 도모한다.

군징발토지를 해체하고 휴전선 일대의 농경지를 복구하며 서해 간척지와 산간지대 토지를 대대적으로 개간하여 빈고농들에게 추가분여함으로써 농호당 소유토지를 1.4정보 이상으로 확장하며 영세농민들의 토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어민들을 전근대적 착취에서 해방하고 어로활동의 자유와 어민의 생활안전을 기한다.

영세어민들에게 어선, 어구 및 어업자금을 국가적으로 보장해 주며 국영수산기업소를 창설하여 동시에 국가의 물질, 재정적 지원하에 자원적 원칙에서 수산협동조합을 광범히 조직하여 어민들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4. 중요산업의 국유화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매판자본가 소유의 공장, 광산, 은행, 산업기관 등을 몰수, 국유화하여 민족산업 발전과 인민복리 증진에 활용하는 동시에 외세에 의한 경제농민과 소수특권층의 경제독점을 제거한다.

민족자본가, 수공업자, 소상인들의 기업활동을 보호하고 그들의 창의를 장려하여 민족경제건설에 기여케 한다.

경제구조의 식민지적 파행성을 타파하고 확고한 자립적 민족경제의 기반을 구축한다.

경제 각 분야에서 미국원조의 후과를 일소하고 외국자본의 유입을 방지하며 대외무역의 국가통제를 적극 개발 · 이용하고 자체의 원료, 자금, 기술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산업을 발전시켜 경제의 대외의존성에서 완전 탈피한다.

군사비와 행정관리비를 대폭 축소하여 생산적 투자를 증대하는 동시에 남북경제교역을 실현하여 상호 경제협조를 강화하고 남북경제의 균등적, 공동적 발전에 기여한다.

5. 민주적 노동법령의 실시와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처지의 개선

새로운 민주적 노동법령을 제정하여 노동자들의 민주적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그들을 국가경제 관리에 적극 참여케 한다.

8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2~3주의 유급휴가제, 국가기업소 부담에 의한 사회보험금제를 실시하며 모든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직업을 주어 실업자, 반실업자들을 완전히 퇴치한다.

전근대적 고용제도와 노동조건을 일소하고 노동안전, 노동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무단해고, 임금체불을 엄단하며 취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유해, 위험, 시간외 근로에 대한 특별보수제를 실시한다.

6. 여성들와 권익보장과 사회적 지위의 향상

남녀평등권 법령을 제정하여 여성들을 일체 봉건적 속박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

인신매매, 공장 및 사창제도와 축첩제도를 일소한다.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을 위한 실질적 여건을 조성한다.

모성과 유아를 특별히 보호하며 국영기업의 모성근로자들에게 6시간 근로제를 적용하고 모든 직업여성들에게 산전산후 70일 이상의 유급휴가제를 실시한다.

여성들의 사회정치 활동과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탁아소, 유치원과 산원을 광범히 설치한다.

7. 민주적 민족문화의 창달과 지식인들의 생활보장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 부패한 양풍, 왜풍을 배격하고 우리 나라의 유구한 문화전통을 계승하여 민족주체성에 입각한 민주적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며 민족자주정신과 애국사상을 함양한다.

언론, 교육, 과학, 기술,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지식인들의 직업을 국가적으로 보장하며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킨다.

창작, 연구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문화, 과학 연구기관들은 대폭 증설하며 지식인들의 재능을 발양시켜 새 사회 건설에 적극 기여케 한다.

남북문화교류를 추진하여 단일한 민족문화 발전을 도모하며 외국의 선진문화와 과학기술을 흡수한다.



8. 교육의 쇄신과 근로자 자녀들에 대한 무료교육제, 장학금제의 실시

숭미반공적 반동교육제를 청산하고 민주이념의 기초 위에서 교육내용을 일신하며 선진적인 인민교육체제를 확립한다.

학원의 군사화와 모리화를 근절하고 학원사찰을 엄단하며 학원내 민주주주의를 보장한다.

근로자들을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에서 해방하고 모든 청소년들에게 취학의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부담에 의한 전반적 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고 각종 잡부금, 공납금제를 철폐하는 동시에 고학생들과 고등 및 대학생들에게 광범위한 국가장학금제를 실시한다. 노동연령에 달한 각급 학교 졸업생들에게 국가적으로 직업을 알선한다.

9. 선진적 보건제도의 확립과 광범한 무료치료제의 실시

금전본위의 상업적 보건제도를 쇄신하고 주민들이 치료비 걱정없이 의료혜택을 받는 인민보건제도를 확립한다.

의료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보험제를 실시하여 노동자, 빈농민과 도시빈민에 대해서는 완전 무료치료제를 적용한다.

방역, 위생사업을 강화하여 각종 전염병, 토질병을 근절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증진을 도모한다.

국가의료기관을 대폭 확충하여 모든 면·리에 진료소를 설치한다.

10. 자위적 민족군대의 창설

일체 침략적 군사협정을 폐기하고 군사고문제를 철폐하며 군통수권을 회복하여 자주방위를 실현한다. 국군을 개편하여 애국청년장년들로 자위적 민족군대를 창설한다. 조국과 민족을 배반한 극소수 악질 상층장교들을 엄벌하고 반미구국 사업에 참가한 장교는 중용한다.

강제징집제도, 향토예비군제도, 학도군사훈련제도를 철폐하고 자원병제를 실시하며 군사제도를 개편한다.

사병들을 군사관리에 적극 참여케 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며 사병의 노예화와 기합을 포함한 일체 인신모욕을 엄단하고 영창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군대내 민주주의와 관병일치의 기풍을 확립한다.

사병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그 가족들의 안정된 생활을 국가적으로 책임지며 제대 군인들의 생활을 보장한다.

군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병력을 20만 이하로 감군하고 인민들의 군사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11. 자주외교의 구현과 반제평화애호국가들의 우호증진

사대망국적, 외세의존적 굴욕외교를 지양하고 민족주체이념이 투철한 자주적 외교정책을 실시하여 평등, 호혜, 불간섭의 원칙에서 민주우호국가들과의 친선을 도모한다.

미제국주의의 침략정책과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을 반대하고 세계피압박민족들의 해방투쟁을 적극 성원한다.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과 반제반미 공동유대를 강화하고 극동과 세계평화에 적극 기여하며 나라의 국위를 만방에 선양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이 강점 전 기간을 통하여 우리 인민에게 끼친 일체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행사한다.

≪한일조약≫을 백지화하고 과거 식민지 통치기간 일제가 범한 죄악에 대한 혈채를 완전히 청산한 기초 위에서 대일관계를 전면 재조정한다.

12.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성취

반공통일, ≪유엔≫감시하의 통일을 배제하고 일체 외세의 간섭없이 남북인민들의 자율적 민주의사와 민족주체역량에 의거한 평화적 조국통일을 실현한다.

남북대립과 동족상잔을 고취하는 민족분열주의를 배격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민족융합을 위한 평화기운을 조장하고 각방으로 대화의 길을 개척한다.

상호 접촉과 상담, 인사내왕, 이주의 자유와 문물의 교류를 실현하며 거족적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한다.

혁명이 승리하고 자주적 인민정권이 수립되면 지체없이 남북협상을 진행하여 쌍방의 합의하에 전쟁상태 종식과 휴전선 철폐에 관한 평화선언을 공포한다.

남북에서 다같이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초 위에서 쌍방정부의 공동관리하에 전국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적 중앙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민족지상의 과제인 조국통일 위업을 달성한다.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
1969년 8월
서울



통혁당 창건의 역사적 의의

한국전위조직운동사

68년의 조직파괴는 창당준비사업의 완성단계에 이른 시점에서 발생하게 되어 적지않은 피해와 후유증을 남기는 당창건의 마지막 고비였다. 통혁당은 남한 전위조직결성 과정에서 최대의 시련이었던 68년 사건을 극복하고서 마침내 1969년 8월 25일 당중앙위원회의 결성과 창당을 선포하게 되었다. 이러한 통혁당의 창건은 우리 변혁운동사에 있어서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가?

첫째로, 전체 한국변혁운동의 전통적 맥을 부활시켰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것은 거시적으로는 1860년대 이래 전개된 우리 민족의 반제투쟁의 부활이며 혁명전통의 면에서는 남한변혁운동이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주류를 이어받아 자기 지향을 분명히 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로, 진보당과 사회대중당의 한계와 4 · 19봉기의 무력한 좌절을 딛고일어서 출범한 통혁당은 그 계급적 기반과 지도이념, 투쟁목적에서 일체의 기성정당 정파들과 질적으로 구별되며 1920년대 조선공산당, 남로당의 한계 및 오류들과 결별하게 된다.

셋째로, 항일무장투쟁과 병행된 **김일성**의 당창건투쟁은 레닌의 당창건 경험과 이론이 조선에서도 그대로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당창건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조직사상적 기초를 구축해야 함을 실천적으로 확인시켰다. 이러한 당창건 방침의 역사적 진리성이 남한 전위조직 결성투쟁에서 다시 한번 결정적으로 증명되었으며 이는 또한 식민지 남한사회변혁운동조건에서 가능한 비합법 지하당조직의 가능성을 검증하는 과정이었다. 즉, 지도역량을 단련하고 묶어세우는 일은 전적으로 통혁당의 방식을 통해서만 성공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서는 폭압에 의해 좌절되거나 대중속에 결합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된다. 실제로 섣불리 전위의 질을 갖춘 조직을 시도하다가 대형 조직사건만 양산하고 마는 경험이 80년대에 들어오면 수없이 나타난다.

넷째로, 통혁당은 우리구국운동에 새로운 방향각을 제시하였다. 통혁당은 출범시 발표한 ≪통일혁명당 강령≫에서 ≪한국혁명에는 반제민족해방적 과제와 민주주의적 과제가 동시에 부과되어 있다≫고 하면서 ≪통일혁명당 선언≫에서는 ≪우리 당의 당면목적은 한국에서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여 부패한 식민지반봉건적 사회제도를 전복하고 그 무덤위에 인민민주주의제도를 건립하며 나아가서 민족의 회원인 국토통일의 대업을 성취하는데 있다≫고 밝혀 남한혁명의 현단계와 기본과제를 분명히 하였다. 또 혁명의 타도대상은 미제침략자들과 매판자본가, 지주, 악질관료들이며 이 중 주대상은 미제국주의임을 분명히 하며 ≪반대로 식민지반봉건사회체제하에서 착취와 억압만을 당하는 노동자, 농민, 병사대중과 진보적 청년학생, 지식인, 도시소자산계급, 그리고 양심적 민족자본가들은 사회혁명에 사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민족적, 민주적 유대로 결합된 사회진보의 추진력이며 혁명의 동력을 이룬다. 이중에서도 노동계급은 가장 선진적이고 혁명적이기 때문에 혁명의 지도적 사명을 감당할 영도계급이 된다≫(≪통일혁명당 강령≫)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강령적 견해들은 69년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것이었지만 70년대와 80년대의 변혁운동의 전개과정을 통해 이제는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통혁당은 변혁운동의 전위조직으로서 총체적 방향각을 분명히 할 뿐 아니라 자주, 민주, 통일의 기본투쟁노선을 지도하고 매년 그리고 매개 조성된 투쟁시기별로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지침을 내놓아 대중투쟁을 지도해 간다. 이러한 당적 지도는 특히 86년 6월 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투쟁이래 전위조직과 대중운동의 결합이 확고히 높아지면서 날로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통혁당으로 당적 지도가 관철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실로 변혁운동의 크나큰 전환점을 이루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다섯째, 통혁당은 우리 운동의 주체역량과 지원역량을 강화시킨다.

전위조직이 지도역량으로 기능을 다할 때 운동의 주역량과 보조역량 그리고 통일전선역량은 확대장성되며 우리의 반미구국운동에서 준비기 변혁역량의 보존 및 확대장성사업은 결정적 시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통혁당은 이와같은 주체역량의 장성에 큰 의의를 가질 뿐 아니라 남한혁명의 지원역량을 확충하는 데에도 공헌을 한다. 지원역량은 크게 북한의 지원역량과 여타 세계의 진보적 국가들의 당 국가 사회단체 인사들의 역량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전체 한국차원의 반제국주의혁명의 민주기지가 되는 북한의 지원은 동일한 적을 대상으로 하여 싸우는 단일한 민족간의 연대와 지원이므로 당연한 것이라 하더라도 여타 국제역량의 지원은 남한혁명의 대표적 지도부가 없이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마치 팔레스타인 민족해방기구(PLO)가 팔레스타인 해방투쟁의 대표성을 가지고 국제여론을 조성하고 팔레스타인민중들에 대한 연대의 기운을 만들어 나가듯이 통혁당은 이후 국제무대에서 식민지 파쑈체제하의 남한민중들의 혁명투쟁을 알리고 국제적 연대와 지원을 조성하게 된다.(통일혁명당은 1975년 4월18일에 일본 동경에서 통일혁명당 재일조선인 연대위원회를 결성하여 책임자에 박덕만이 선출되었으며 1978닌 11월9일 스페인에서 열린 칠레국민과의 연대회의에 통일혁명당 중앙위 부위원장인 김광천이 참여하였으며…… (≪통일혁명당≫, 나라사랑, 166쪽) 또한 통혁당은 1980년 4월18일 동경에 일본대표부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계속해서 쿠바, 시리아 그리고 88년에는 평양대표부를 설치하여 국제연대사업을 한층 발전시킨다.)

이처럼 통혁당의 창건은 우리 구국운동의 발전에서 크나큰 의의를 가진다.



조국통일에 있어서의 전위조직의 위상

한국전위조직운동사

(남북)두 사회는 그 역사적 발전단계가 다르고 혁명의 임무와 과제가 엄연히 구분되는 사회이며, 이러한 조건에서 민족의 재통합은 어느 일방이 다른 쪽을 압도하거나 흡수통합하는 방식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며 더욱이 세계적으로 핵전쟁의 위험이 가장 높은 한반도에서 6·25와 같은 전쟁방식에 의한 통일은 곧 민족의 전멸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은 7·4남북공동성명에서 확인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기본강령에 의거하여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우리민족 자체의 힘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며 남과 북 사이의 무력행사가 아니라 접촉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며, 남과 북, 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한민족으로서의 대단결을 이루는 원칙하에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한 통일의 방도가 바로, 현재 남과 북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남북이 연합하여 하나의 연방국가를 형성하는 연방제통일방안이다. 북한은 이미 60년대부터 잠정적인 연방제 통일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남북이 동수의 대표로 구성하는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를 구성하고, 남북이 동등하게 지역정부를 갖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통일방안은 제안 당사자인북한측은 물론이거니와 남한의 많은 인사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방안으로 인정되고 있다. 공개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남한의 각종 정당, 재야단체의 통일안의 골자가 연방제로 좁혀지고 있음은 물론이고 현 집권당국자들의 통일방안까지 거의 연방제와 유사하게 접근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89년 방북한 문익환목사와 전대협대표 임수경양도 연방제를 기본으로 한 통일방안을 북한측의 허담 및 조선청년학생위원회와 각각 합의함으로써 비록 상층 선포식의 합의과정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남북민족 전체의 통일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가 좁혀져감을 입증한 바 있었다.

우리 민족이 이렇듯 연방제에 의하여 통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은 전위조직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도 매우 중대한 의의를 유추해 볼 수 있게 한다.

첫째로, 남북한 전체민족의 완전한 통일은 연방공화국을 창설하고 그 밑에 두개의 지역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의 연방제에 의거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이것은 다시말해 전위조직이 혁명수행과 정권수립은 물론 혁명승리 이후 남북이 공히 동일한 사회발전단계로 접어들 때까지도 남한지역정권과 민중의 구심으로 새로운 사회의 질서와 발전을 영도하는 전위조직으로서 책무를 다하게 됨을 의미한다.

둘째로, 한민전 스스로는 북한의 조선노동당과의 관계를 형제당이라고 규정짓고 있는데 이 형제당이라는 관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파악해 볼 수 있다. 전위조직으로서의 통혁당이 그 대열을 꾸리고 변혁운동의 지반을 넓혀나가는 과정에서 조선노동당은 같은 민족인 북한측 지역혁명을 담당하는 전위조직으로서 통혁당의 결성과 발전에 상당한 원조와 배려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통혁당이 자체의 튼튼한 발전에 의해 한민전으로 전화하게 되고 두 지역이 상대적 독자성을 유지하는 혁명과 건설이 민족의 완전한 통일전도로 상정되고 있는 시점에서 두 전위조직의 관계는 더이상 일방적인 지원관계에 머물 수는 없다. 남한의 전위조직과 조선노동당은 각기 독자적인 변혁의 임무를 수행하며 제국주의라는 공동의 적을 타승하기 위한 투쟁에서 밀접한 상호협조와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이때 남한의 경우는 민족자주정부를 수립하고 외세와 그 추종무리들을 시급히 제거하며 제국주의의 침략기도를 직접적인 무장항쟁에 의해 막아낼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세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북한에 대한 제국주의의 공격기도를(남한이 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국주의가 남한민중에 대한 반혁명개입을 확대하여 북한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 6.25전쟁의 원인에 대한 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전쟁의 성격이 남북민중전체와 제국주의와의 판갈이싸움으로 전개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며, 또 6.25전쟁은 베트남에서 미국이 지배하고 있던 남베트남 민중들의 반디엠반미투쟁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자 ≪통킹만사건≫을 조작하여 북베트남을 전면침공했던 제국주의의 수법이 한반도에서 그대로 드러난 경우이다. 남한의 반미역량이 확대되고 반미자주화투쟁의 적극 진전에 의해 미군철수, 핵무기철거가 이루어지면 제국주의의 전 한반도에 대한 침략전쟁의 위협은 극히 축소될 수 있다.)좌절시키는 적극적 역할을 한다. 북한의 전위조직은 그 동안 쌓아놓은 민주기지의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역량을 동원하여 남한에 수립된 민족자주정권을 보위하는 일을 돕게 되며, 반제국주의 항전으로 파괴되고 정체된 남한경제를 복구하는 일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또한 남북한은 양지역의 전위조직을 중심으로 남북의 제정당, 사회단체와 대중적 조직을 총망라하는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여 연방공화국을 지켜내고 공화국의 자립과 발전을 위한 건설사업을 촉진한다. 88년 한민전 평양대표부의 개설(대표 조일민)은 이러한 형제당의, 관계로 두 전위조직의 관계정립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양 전위조직간 관계의 내용에 기초하여 그에 걸맞는 형식을 공식화시킨 것이 한민전 평양대표부 개설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ı한민전 평양대표부 개설과 관련한 ≪구국의 소리≫ 보도≫, (평양대표부 개설모임에서의 조일민 대표 연설문) 한민전은 쿠바, 시리아, 일본에도 각각 대외대표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의 대표부와 북한에 개설한 대표부의 지위, 임무는 사뭇 다른 것이다. 특히 평양대표부의 개설이 늦어진 것은 조선노동당과의 관계를 내용·형식면에서 완전히 정립시키는 일이 간단치는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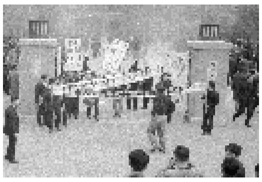
통일혁명당의 투쟁

통혁당

. . .

1961년 7월 11일, **김일성**주석은 조선노동당 제4차대회보고에서 해방 후의 남조선 혁명운동의 경험을 총괄하고 혁명적 당의 건설 방침을 밝히었다.

> **≪오늘 남조선에서 전투적이면서도 탄력성이 있는 마르크스 · 레닌주의 당을 건설하고, 그 지도적 역할을 높이는 것은 혁명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절박한 요구로 되고 있습니다.≫**
> (≪**김일성**저작집≫, 제4권 p. 178, 미래사).



우선 창당준비위원회의 조직이 당면과제로 되었다.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기까지의 투쟁은 주로 각 지방 당조직의 혁명가들이 수행하였다. 활동의 중심내용은 각 지방, 각계각층 인민들 속에 지하당조직, 대중단체, 학습써클을 조직하고 ≪**김일성**선집, 전기≫,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등의 학습을 통하여 주체사상과 남조선혁명의 전략전술 방침을 학습하는 것이었다.

통일혁명당 서울시위원회는 거점적인 공장과 농촌, 교육 · 문화 · 언론 부문, 국군 중하층 장교 속에서 수백 명의 당원을 조직하였다. 또 전라남도 위원회는 호남지방(전라남, 북도)의 농민, 교육, 정계 인사 속에서, 또 경북위원회는 대구, 부산의 노동자 속에서 각각 당 세력을 확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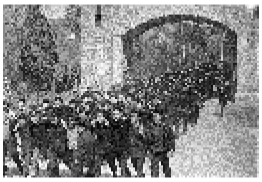
이외에도 1961년부터 남조선해방전략당의 혁명가그룹(통일혁명당과 공동 보조를 취하였던 지하혁명조직. 권재혁, 이일재를 지도부로 하는 해방전략당은 ≪미국의 식민지정책에 의한 현 매판독재체제를 타도하고 노동자, 농민을 주축으로 하는 혁명의 수행과 공산주의혁명의 연속적 수행≫을 투쟁목표로 하였다. 권재혁은 1961부터 동지를 규합하는 한편 ≪국제 잡지사≫ 서울사무소 지배인이라는 입장을 이용하여 혁명적 문필활동을 하였다. 그는 통일적인 당조직의 건설문제에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 권재혁은 1967년 8월 중앙정보부의 탄압을 받아 1969년 11월 4일에 처형되었다.) 경북대학교 의학부 김대수박사를 중심으로 한 그룹(1961년부터 혁명조직을 결성하고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를 무대로 활약, 학원 내에 각종 지하써클을 조직하고 학생의 반정부 시위를 지도하였다. 1967년 10월 14일 ≪무전간첩단사건≫으로 중앙정보부의 탄압을 받았다. 김대수박사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다.) 김규남, 박대인박사를 중심으로 하는 애국인사 60여명(서울, 전라남도 보성 등에서 혁명조직을 결성하고 반미구국투쟁을 전개. ≪**김일성**선집≫ ≪항일빨치산 회상기≫ 등의 학습활동, 일신계, 정풍회 등을 통하여 조직활동을 전개하였다. 1969년 5월 14일, ≪동베를린간첩단사건≫으로 탄압들 받아 김규남(전 국회의원)은 7.4공동성명 발표 직후인 1972년 7월 14일에 처형되었다.) 등 수많은 혁명가그룹이 당건설을 위한 투쟁에 참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력적인 투쟁을 통하여 1964년 3월 15일 김종태, 최영도를 중심으로 하여 통일혁명당 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후 통일혁명당은 중앙당 창립을 위한 새로운 투쟁을 강력히 밀고 나갔다. 창당준비위원회는 우선 당지도부 성원과 당원에 대한 주체사상 교육을 강화하였다. 이 투쟁은 24시간 첩자가 붙어다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과감하게 전개되었고, **김일성**주석의 노작과 전기, 항일빨치산 회상기, 평양방송의 녹음 등을 광범한 혁명가 속에 보급하였다.

창당준비위원회는 또 당기관지 ≪혁명전선≫(1968년 3월 창간, 비합법신문)과 당기관지 ≪청맥≫(1964년 8월 창간, 합법 월간지)을 발행하였다. ≪혁명전선≫은 당내교육지였고 ≪청맥≫은 대중계몽지였다. 이들 출판물의 작성, 선전자료의 타이프, 등사 등은 부인성원들이 담당하고 있었다. ≪혁명전선≫은 당원의 정치사상교육, 각 투쟁시기의 임무 및 과제의 선전을 담당하였다. 이 신문은 1968년에 일시 정간되었으나 1970년 6월에 격월판으로 복간되었다. ≪청맥≫은 ≪청신한 고동, 주체의 고동을 해이함이 없이 전하는 혁명위업의 푸른 지맥≫(김종태)으로서 창간(창간사(김종태)는 ≪청맥≫지의 사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청맥≫은····역사의 내용을 충실화하고 현실적인 여러 가지 과제들을 깊이 파고들어 민족사의요청에 호응하는 한편, 발전과 전환의 구심점 대역(大役)을 맡음으로써 긴 진통기를 거쳐 온 지금, 점차 고고한 소리를 울린다. 바꾸어 말하면 이 땅의 고질인 빈곤과 후진성을 물아내는 핵심적인 요체를 모색하고, 구래의 인습에 묶인 낡은 역사의 첨단에서 새로운 역사창조의 전위적 기치를 드는 고차적인 사명을 담당하려는 웅지를 품고 과감하게 여명의 타종봉을 들었다········ ≪청맥≫은 이러한 민족사적 제 과제의 해결에 긴요한 소인이며 과정으로 되어야 할 창조, 투쟁, 발전을 절규하고 유린된 사회정의를 밝혀 내어 민족의 올바른 진로를 높이 내걸고 불패의 정의의 편에 서서 민족의 대의를 높이 외치고, 주권국민의 긍지를 유지하고, 대중과 함께 호흡할수 있는 생명력을 평이하게 펼치고 동포의 요구를 발표하고 지표를 제시하는 중책을 담당하려는 것이다≫ ≪≪청맥≫, 창간호, 8−9p).) 되었던 것이다.



≪청맥≫은 중앙정보부의 탄압에 의해 부득이 정간하지 않을 수 없었던 1967년6월호까지 약 45만 4천부가 발행(≪경향신문≫, 1968년 1월 9일) 되고, 각계각층 인민 속에 독자망을 넓혔다. ≪청맥≫은 1972년 9월에 비합법 계간지로 복간되었다.

≪청맥≫에는 김종태, 김질락(주간), 이진영 등 당지도부 성원의 논문이 게재되었고. ≪세대론≫, ≪민주주의론≫ 등의 논문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청맥≫에의 투고는 권위있는 것으로 되고 ≪청맥≫은 지식인들의 공동의 광장으로서 논의되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여론 선도지로서의 역할을 맡았다. 이 토양 위에서 수많은 새로운 혁명적 인텔리들이 육성되었던 것이다(≪여명의 타종봉 −한국 지하혁명당의 소리≫, p. 320 동성사간).

≪청맥≫의 혁명적 역할은 주간이었던 김질락이 공판정에서 했던 다음과 같은 발언에도 잘 나타나 있다. ≪반미, 반제국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공산주의자의 ABC이다. 나는 ≪청맥≫의 지면을 통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의 반미, 반괴뢰투쟁을 선동하였다≫(≪한국일보≫, 1968년 11월 30일). 동시에 창당준비위원회는 산하의 각종 연구써클을 동원하여 심포지움, 강연회, 보고회 등을 개최하고 대중의 계급의식과 반제의식의 각성, 자주적 평화통일 방침의 보급에 힘썼다.

창당준비위원회는 또 ≪먼저 조직하고 후에 공격하라≫는 원칙에 따라 각종의 대중투쟁을 조직하고 각계각층 인민 속에서 당의 중핵을 선발하였다. 통일혁명당원은 ≪한일회담≫에 반대한 1964년 3 · 24투쟁과 6 · 3투쟁, ≪한일조약≫에 반대한 1965년 8월투쟁, 1966년 8월의 미 · 일수뇌방한반대투쟁, 1967년 6 · 8부정선거 반대투쟁과 대통령취임 반대투쟁 등 연속적으로 강력한 반파쇼민주화투쟁을 조직 · 지도하였다.

이하에서 박정권의 일대 탄압에 의해 세상에 알려진 통일혁명당 서울시위원회(1968년 8월, 통일혁명당 간첩단사건) 동 전라도위원회(1968년 7월, 임자도 간첩단사건) 동 경상북도위원회(1974년 3월 울릉도 간첩단사건)의 활동에 대하여 소개하겠다.

1968년 8월 24일에 발표된 서울시위원회 탄압사건(구속자, 158명)은 통일혁명당의 강력한 조직력, 전투력의 일단을 보여 주고 있다. 서울시위원회는 김종태(위원장), 김질락(청맥지 주간), 이문규(학사주점 대표)를 비롯한 지식인, 청년인텔리를 모체로 하고 있었다. 특히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상과대학 출신자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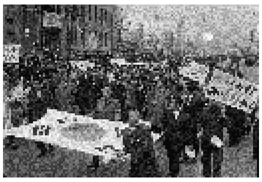
1) 혁명의 대중적 기반의 축성
2) 당의 조직 강화
3) 각종 학술연구 써클의 조직과 당지도 간부의 양성
4) 기초 써클 강화에 의한 당세포 조직의 개편
5) 민족통일전선 구성을 위한 연합전선의 형성
6) 이동문고와 그것을 통한 사상교육, 비밀의 보지
7) 모든 조직을 장래 유격대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술적 간부의 획득
8) 각지에 무기고의 설정과 무기획득 및 그 비축을 위한 방법 연구
9) 특수 전술교관 요원의 앙성
10) ≪청맥≫의 내용 보강
11) 무력투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계획과 준비
12) 합법활동과 비합법활동,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등 모든 형태에서의 활동의 전개, 법정투쟁의 전술 연구
13) 당기관과 각 써클을 통한 6 · 8부정선거 반대투쟁과 반미, 반박투쟁의 전개
14) 공화국 창건 20주년 기념일에 대표 파견
(≪조선일보≫, 1968년 8월 25일, ≪노동신문≫, 1969년 1월 29일)



등등으로 되어 있었다. 상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동 위원회 산하에는 합법적인 대중단체로서 학사주점, 신문화 연구회, 청년문학가협회, 불교 청년회, 민족주의 연구회, 기독청년 경제복지회, 경우회, 청맥회 등이 조직되었다. 또 비합법적 통일전선조직으로서 민족해방전선, 조국해방전선 등이 조직되었다(≪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통일혁명당≫, 40p. 조국통일사, 평양).

서울시위원회 활동에서 주목할 점은 김질락, 이문규 등으로 대표되는 4 · 19세대라 불리는 혁명가의 새로운 군상이다. 이들 젊은 인텔리층이 학생운동으로부터 통일혁명당의 지도하에 혁명에 몸을 던진 과정은 인텔리 혁명화의 하나의 전형이라 말할 수 있다.

또, 동 위원회가 투쟁임무의 제7), 제11) 항목을 수행하기 위해 신영복(청맥회 책임자－육군사관학교 부교관, 중위)을 중심으로 국군장교를 망라하여 p.s작전(from paper to steak－신영복 제창)을 전개하였던 사실은 통일혁명당의 조직력의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조선일보≫, 1968년 2월 20일)1968년 7월 20일에 발표되었던 전라남도위원회 탄압사건(관계자 118명 중 27명 체포)는 통일혁명당의 강력한 지역활동의 일단을 보여 주고 있다. 최영도(당전라남도위원회 위원장－전 임자면 면장), 정태묵(지도간부) 등 동 위원회 성원은1961년 4월부터 임자면을 중심으로 노동자, 농민, 기업가 속에 깊이 침투하여 당원양성, 통신연락, 병기저장 등을 수행하고 임자도를 준 혁명근거지로 쌓아올렸다. 또 삼창산업사, 동성서점 등 3개의 위장기업을 운영하고 지하당의 조직, 중간정당의 조직, 법조인의 포섭, 선거시 일부 야당인사의 지원 등을 전개하였다(≪조선일보≫, 1968년 7월 2일, ≪노동신문≫, 1968년 11월 30일).



전라남도위원회의 지역주민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는≪1963년 17월 실시된 대통령선거 시에 여당 후보(박정회)에 대한 전라남도 도서지방에서의 지지율이 85%였지만 1967년 5 · 3대통령선거 때에는 그 지지율이 역전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경향신문≫, 1968년 7월 28일)는 사실로부터도 알 수 있다.

1974년 3월 15일에 발표되었던 경상북도위원회 탄압사건(47명 검거)의 전모는 통일혁명당의 강력한 통일전선 활동, 서울시위원회와 전라남도위원회 탄압후의 투쟁상황의 일단을 보여 주고 있다.

동 위원회는 1962년 12월경 활동을 개시하여 아생회(노동자조직), 위친회(빈농조직), 농사개량그룹(중농조직), 6 · 5장교동지회(현역, 예비역 장교조직) 등의 대중단체를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각계각층 인민을 반외세반파쇼민주화, 평화통일의 구호 밑에 민주회복국민협의회에 망라하였다. 또 애국투사 장교위원회, 민주수호 장교투쟁위원회 등을 결성하고 그 성원을 수도경비시령부니 서울주변부대에 배치하여 호기가 도래하면 군부의 동조를 얻어 박정권을 타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한국일보≫, 1974년 3월 16일, ≪노동신문≫, 1974년 3월 16일),

이상에서 본 창당준비위원회의 투쟁내용은 통일혁명당이 단기간에 당창립을 위한 조직사상적 준비를 갖추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동시에 그것은 박정권의 가혹한 탄압을 고려할 때 표면에 나타나지 않았던 비합법 찰동의 저변의 넓이를 더욱 잘 나타내 준다.

통일혁명당은 1968년 대탄압의 시련을 극복하고 각지에 산재하여 있던 혁명조직의 통합을 단숨에 밀고 나갔다. 중앙정보부에 의한 탄압(서울시위원회와 전라남도위원회에 대하여 박정권은 관련자 158명을 구속하고, 그중에서 73명을 재판에 회부하여 9명을 학살하였다. 김종태의 죄명은 181가지에 이르렀다.

경상북도위원회의 경우에는 울릉도 주민 1만 5천명 (16세 이상)이 연행, 고문되고 그 중 3명이 사형, 4명이 무기징역, 그밖에 25명이 중형에 처해졌다. 박정권은 현재에도 통일혁명당 관련자의 가족, 친척 9천여 명을 요시찰 인물로 박해하고 있다.)은 당에 말할 수 없는 손실을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혁명적 당으로서의 통일혁명당의 존재를 내외에 널리 알리는 결과로 되었다. 특히 법정과 옥중, 형장에서조차 통일, 혁명의 신의를 일관하게 밀고 나갔던 당성원의 불굴의 투쟁은 남조선 혁명가와 인민들에게 큰 감동과 승리의 확신을 주었다.

1969년 8월 25일 통일혁명당은 각지의 혁명조직을 통합하여 당중앙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당의 선언과 강령은 1970년 2월 지하로부터 발표되었다. 당중앙위원회의 결성과 동시에 (혁명전선)과 (청맥)이 복간되었다. 또 1970년 6월 1일부터는 라디오 방송≫통일혁명당의 소리≫(조선어, 영어, 중파 1, 135KHZ, 단파4, 5507KHZ)가 개국되어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통일혁명당은 1969년 9월 18일 평양에서 개최된 반제저널리스트회의(85개7, 109대표단 참가)에 대표단을 보내어 그 존재를 전세계에 알려 각국 인민들과의 연대를 가졌다. 이에 대하여 3대륙 인민연대 기구, 국제민주법률가협회를 비롯한 전세계의 진보적 정당, 대중단체, 저명인사는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었다. 또 투쟁과정에서 쓰러진 통일혁명당 서울시위원회 위원장 김종태에게는 1969년 5월 17일 국제저널리스트동맹 집행위원회의 이름으로 국제저널리스트 상이 수여되었다.

통일혁명당 활동 연표

통혁당

1961년

– **김일성**주석. 조선노동당 제4회대회(9월 11일)에서의 보고 중에서 ≪남조선인민이 반제반봉건투쟁을 성과적으로 진척시키고 이 투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 . 레닌주의를 지침으로 하고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이익을 대표하는 혁명적인 당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같은 정당이 없다면, 인민대중에게 명확한 투쟁강령을 제시할 수도, 혁명적인 대중을 굳게 단결시키는 것도, 대중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고 한국에서의 혁명당 창건의 필요성을 발표

– 경북대학 의학부 김대수 박사 등 13명의 혁명가, 혁명조직을 결성하고,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를 무대로 활동하면서 도내의 학원에 각종 써클을 조직하고, 여기에 망라된 대학생에 대한 주체사상교양을 하고 반정부데모를 조직 · 지도

– 김규남, 박대인(별명=박노수)씨 등, ≪**김일성**선집≫등을 연구하면서, 서울, 부산, 보성 등 지역에서 혁명조직을 만들고, 각계각층의 민중을 각성시키고, 그들을 대중단체로 결집하기 위하여 분투

– ≪남조선해방전략당≫ 결성

– 전라북도 군산 부두노동자 혁명가 3명, ≪**김일성**선집≫ 등을 학습하면서 지하당을 조직하여 투쟁

1964년

– 3월 15일 서울에서 김종태, 최영도, 이문규, 김질락, 정태묵동지 참석하에 ≪통일혁명당 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

– 3월 24일–6월 3일 한일회담 반대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당세를 확대, 8월 1일 당의 합법기관지 ≪청맥≫ 창간

– 이즈음 당의 대중조직으로서 학술토론회, 강연회, 각종 보고회 등 활발한 반박정회투쟁을 전개하여 대중기반을 확대

1965년

– 4월 60년대 학사회에 의한 ≪학사주점≫을 운영, 각종 진보적, 혁명적 문건들을 교재로 한 ≪이동문고≫를 개설하고 지방에의 확대 준비, 8월 한일협정반대 8월투쟁을 조직 · 지도

1966년

– 1월 당 제1회 지도간부회의 개최

11월 3일 김종태동지 등 한국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혁명조직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기 위한 혁명조직 대표자회의 소집을 결정

1967년

– 서울시위원회, 비합법기관지 ≪혁명전선≫을 발간

– 6월 당 합법기관지 ≪청맥≫ 정간처분 받음(창간부터 총재 4만 4천부를 발행)

– 5~6월 5 · 3, 6 · 8 부정선저 규탄투쟁을 조직 · 지도

– 대통령 취임식 반대, 험프리 미부통령과 사또 일본수상의 내한반대투쟁을 지도

– 당 핵심부에서 ≪동명사≫(전화매매상), ≪수진사≫(부동산업), ≪삼진건설≫(토건업)을 운영

1968년

– 3월 제6회 지도간부회의를 개최

– 6월 1일 제7회 지도간부회의를 열고, 공화국창건 20주년 대회에 김종태 서울시위원장을 대표로서 파견할 것을 결정

– 7월 20일 통일혁명당 전라남도위원회의 탄압 발표. 관련자 118명 중 27명 구속

– 8월 24일 통일혁명당 서울시위원회의 탄압 발표. 관련자 158명 중 50명 구속

– 7월 19일 김종태서울시위원장 옥중의동지에게 격려편지를 남기고 탈옥을 시도하다 실패

– 11월 서울시위원회 성원 27명과 전라남도위원회 성원 16명, 남조선해방전략당 11명의 공판이 열림

1969년

– 1월 25일 최영도 전라남도위원장, 옥사

– 1월 27일 통일혁명당 군인 4명, 군법회의 판결공판에서 신영복동지 등 4명에게 사형 등 선고

– 5월 17일 국제 저널리스트회의, 김종태동지에게 국제 저널리스트 상의 수여를 결정

– 7월 10일 김종태 서울시위원장 사형집행

– 8월 25일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 결성

– 9월 평양에서 반제 저널리스트회의(100여개국 참가)에 통일혁명당 대표가 참가

– 9월 23일 판결공판에서 김질락, 이문규동지 사형 확정, 다른 성원도 중형 선고

– 9월 30일 통일혁명당 강준영동지 등 12인 탄압 발표

– 10월 16일 통일혁명당 경기도지구당 19인 탄압 발표

– 11월 17일 통일혁명당 김기상동지 등 2명 탄압 발표

– 11월 4일 남조선해방전략당 진재혁씨 사형집행

– 1월 6일 통일혁명당 서울시위원회의 이문규동지 사형집행

– 1월 28일 통일혁명당 전라남도위원회의 윤상수동지 사형집행

1970년

– 2월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 당의 선언과 강령을 발표

– 3–4월 세계 각국의 보도기관, 통일혁명당활동과 선언 강령을 소개

– 6월 1일 ≪통일혁명당의 소리≫방송 개시

– 6월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혁명전선≫ 복간됨. 또한 ≪청맥≫도 복간

1971년

– 5월 13일 통일혁명당 호남지구당 11명 탄압 발표

– 9월 23일 통일혁명당 성원 등 17명 탄압 발표

1972년

– 4월 11일 통일혁명당 관련자 32명 탄압 발표

– 7월 15일 통일혁명당 서울시위원회 · 민족해방전선 책임비서 김질락동지 사형 집행

1973년

– 6월 30일 통일혁명당 충남지구당 7명 탄압 발표

1974년

– 3월 15일 통일혁명당 경상북도위원회 49명 탄압 발표

– 5월 .6일 통일혁명당 성원 등 30명 탄압 발표

– 8월 25일 중앙위원회, 당면 투쟁강령을 발표


의 충직한 혁명전사인 김종태동지를 야수적으로 학살한
과 그 주구들을 천백배로 복수하며
쓸어버리고 조국을 통일하고야
서울시위원회 위원장 고 김종태동지의 추도회가 엄숙히 거행

김종태 추도회를 톱기사로 게재한 노동신문

1975년

－ 4월 8일 통일혁명당 경상북도위원회의 32명 판결공판에서 전영관동지 등 3명에게 사형확정

－ 10월 10일 통일혁명당 재평양대표 이진영동지, 조선노동당 30주년 기념대회에 참석

1977년

－ 7월 14일 오수일 단장을 비롯한 대표단, 평양에서 열린 ≪주체사상국제토론회≫에 참가

1978년

－ 11월 9～12일 김광천 부위원장, 마드리드에서 열린 ≪칠레인민과 연대하는 세계대회≫에 참가

1979년

－ 1월 26～28일 이정상 부위원장, 가이아나에서 열린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회의≫에 참가

－ 4월 10～16일 통일혁명당대표단, 인도에서 열린 주체사상 세미나에 참가

－ 4월 20일 ≪통혁당재건사건≫ 발표

－ 8월 25일 중앙위원회, 창당 10주년에 즈음하여 슬로건, 어필을 발표. 또한 ≪주요문서집≫ 2, 3권을 발간

1980년

－ 4월 18일 통일혁명당 일본대표부, 동경에 설립

－ 9월 6～7일 이정상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 인도에서 열린 주체사상에 관한 아시아지역 토론회에 참가

－ 10월 23～27일 김광천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서 열린 세계평화인민대회에 참가

－ 10월 12일 통일혁명당 대표단 이인기동지,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에 참가하여 연설

1981년

－ 3월 26～28일 이정상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 알제리에서 열린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제3차 세계대회≫에 참가

통일혁명당 김종태동지와 중앙정보부장 김형욱간의 격론

1963년 서울지방법원



김형욱 ; 통일혁명당이란 어떠한 당인가?
김종태 ; 우리 당의 명칭이 보여 주듯이 민주주의와 통일을 지향하는 근로대중의 결사이다.

김형욱 ; 통일혁명당의 취지와 그 구성원은?
김종태 , 그 취지는 한국에서도 민중이 민중답게 살아갈 권리를 향유하는 것에 있다. 그 구성원은 민주와 통일을 지향하는 한국의 민중이다.

김형욱 ; 당신이 그 결사를 지시한 것인가?
김종태 ; 각자의 신념에 따랐을 뿐이다. 당신이나 박정회가 특권층을 대변하는 민주공화당을 결성하였는데 우리도 민중을 대변하는 통일혁명당을 결성한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김형욱 ;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알고 있는가?
김종태 ; 우리는 그것을 인정한 일이 없다.

김형욱 ;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법으로 당신을 재판한다고 생각한다. 당신 한 사람죄명만도 181가지이다.
김종태 , 어떻게 내 죄명이 181가지인가? 정치탄압을 가한다면 나에게 **1810**가지의 죄명을 덮어 씌워도 좋지 않은가?

(≪한국인권백서≫, ≪월간조선≫ 자료, 1977년 8월호, 57p.))

희생된 통일혁명당원들의 약력

김종태

통일혁명당 창당준비위원회 서울시위원회 위원장



1926년 경상북도 영천군에서 출생, 동국대 졸업
1944년 대구를 중심으로 ≪반일독서회≫를 조직, 일제의 식민지지배에 반대하여 투쟁.
1948년 경상북도 일대에서 교편을 잡고 청년들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기 위해서 분투.
1956년 비합법단체 ≪청맥회≫를 결성하여 노동자, 농민, 진보적 청년학생 등의 조직화를 위하여 투쟁.
1960년 4월혁명 당시 경상북도 일대에서 ≪청년돌격대≫를 지도. 4월혁명 後 대구에서 ≪경북노동연합회≫의 지도고문으로서 노동운동 발전에 진력하고, (한국노동신문)을 발행
1961년 5 · 16쿠데타 이래 혁명당 건설에 전력을 경주.
1964년 3월15일 통일혁명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 이후 서울시 위원장으로서 투쟁
1968년 7월 ≪통일혁명당사건≫으로 체포됨.
1968년 9월 19일 탈옥을 기도하다 실패, 이후 과감하게 법정투쟁을 전개.
1969년 1월 25일 서울지법에서 사형판결을 받음.
1969년 5월 13일 사형확정, 1969년 5월 17일 국제저널리스트상을 받음.
1969년 7월 10일 사형집행됨, 향년 42세.
1969년 7월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받음.

최영도

통일혁명당 창당준비위원회 전라남도위원회 위원장

1923년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출생.
1945년 해방 이후 인민위원회 결성을 위하여 투쟁하고 한국전쟁때도 미제에 반대하여 투쟁.
1961년 혁명당 건설을 위하여 투쟁.
1964년 통일혁명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 이후 전라남도위원장으로서 투쟁.
1968년 7월 ≪통일혁명당 전라남도위원회 사건≫으로 체포됨.
1968년 12월 제1심에서 사형판결받음.
1969년 1월 25일 옥중에서 고문학살됨. 향년 46세

이문규

통일혁명당 조국해방전선 책임비서

1934년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출생. 서울대 문리학부 졸업(재학중 학내신문 ≪정치학회≫지 편집을 맡았고 4월혁명때는 데모선두에 서서 투쟁).
1964년 3월 15일 통일혁명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에 참가. 이후 조국해방전선의 책임비서. 잡지 ≪청맥≫의 초대 편집장 등을 담당.
1965년 4월 서울에서 ≪학사주점≫을 운영.
1968년 체포됨.
1969년 11월 6일 사형집행. 향년 34세.

정태묵

통일혁명당 정치지도원



1919년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출생.
1946년 고려대학교 입학 후 혁명의 길을 선택하고 중퇴. 지리산 빨치산 투쟁에 참가(1960년 여름까지 7년 간 투옥됨).
1964년 3월 15일 통일혁명당 창당준비위원회 참가. 동당 전라남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 서울에 ≪삼창산업≫, 목포에 ≪동성서점≫을 설립 운영.
1968년 7월 체포됨
1972년 7월 28일 사형 집행됨. 향년 53세.

김질락



통일혁명당 민족해방전선 책임비서, ≪청맥지≫ 주간.
1934년 경상북도 영천군에서 출생.
서울대 문리학부 졸업(재학시에 ≪청맥전선≫을 조직)
졸업 후 경남매일신문 논설위원.
4월 혁명때는 데모선두에서 투쟁.
1964년 3월 15일 통일혁명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에 참가. 민족해방전선의 책임비서 ≪청맥≫의 주간으로서 활약.
1968년 체포됨.
1969년 5월 26일 사형확정.
1972년 7월 15일 사형집행됨. 향년 38세,



이른바 ≪통혁당재건사건≫

한국전위조직운동사

변혁운동에 대한 전위조직의 지도가 관철되는 정도와 함께 우리가 통혁당의 위상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또 한가지의 간접적 통로가 바로 ≪재건 통혁당사건≫이다. 재건 통혁당 사건이라는 명칭은 공안기관에서 붙인 것이며 전일조직 자신의 표현에 의하면 통혁당조직파괴사건이 된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박정권이 혁명가와 애국자를 탄압, 학살하는 구실을 붙이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간첩단사건≫이라는 것을 조작하는 비열한 정치모략까지도 거리낌없이 자행하고 있다. 창당이후 적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만 해도 1969년 10월 경기도지구당 사건, 1971년 호남지구당 사건과 1979년 충남지구당 사건을 비롯 통일혁명당조직을 파괴하고 당원을 투옥, 학살한 만행은 10여건에 이르고 있다. 고난에 찬 10년동안 통일혁명당의 수백명의 당원이 파쑈주구들 손에 의해 체포, 투옥되었고 성스러운 통일혁명의 길에 자신의 귀중한 생명을 바쳤다.≫(≪통일혁명당 창립 10주년에 즈음하여≫, 대동, ≪통혁당≫22쪽)

공안기관의 발표와 통혁당 자신에 의한 발표는 ≪재건기도≫사건이라는 것과 ≪하부조직 파괴≫사건이라는 시각의 차는 있지만 그것이 통혁당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치하고 있다.

먼저 공안당국이 일련의 통혁당 관련사건을 간첩단 사건으로 몰아부치는 이유는 자명하다고 볼 수 있다. 즉, ①남한혁명의 합법칙성과 남한혁명가들의 자주적 투쟁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며, ②가속화되는 민주화투쟁을 탄압할 구실을 만들고, ③≪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을 선전하며 반북반공이데올로기를 굳히고 남북의 영구분단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박정희 정권과 공안관계자들은 계속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조직체계와 선전능력을 향상시켜 가고 있는 통혁당의 존재를 자신들의 존재기반에 대한 막대한 위협으로 여기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통혁당의 존재가 알려지는 것을 무척이나 두려워 했다. 따라서 그들로서는 68년 조직이 파괴된 통혁당 서울시 창당준비위원회 사건이 통혁당의 전체인 것처럼 기정 사실화하고 적발된 일련의 하부조직들에 대해서는 통혁당의 재건을 기도한 사건들로 왜곡하여 발표할 필요가 있었다.

그들이 ≪통혁당≫이라는 이름을 아예 삭제할 수 없었던 것은 일련의 사건들의 공통성이 너무도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공안당국의 수사발표에 의거하더라도 통혁당 관련 사건들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로, 각지 조직사건의 관련자 대부분이 남한출신 인사들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중앙정보부 등은 수사발표를 할 때마다 사건을 남파간첩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사실 남파간첩이라고 발표된 사람들은 대체로 세 부류로 나뉘어진다. ① 짧은 기간동안 자진 월북 또는 도일하였다가 다시 돌아와 지하당 작업을 하는 경우, ②재일교포로 유학 등을 통해 남한에 들어와서 조직활동을 하는 경우, ③북한 노동당 소속으로 남한지하당 작업을 위해 남파된 경우인데 이중 세번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남한출신 인사들이거나 또는 남한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조직활동을 전개한 사람들이다. 더군다나 이런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관련자들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건 관련자들이 북한, 일본 등을 왕래하면서 조직작업을 진행한 것과 일부의 경우이지만 북한출신 인사들이 사건에 관계된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것은 북한이 맡고 있는 민주기지 또는 혁명근거지의 역할로 해석될 수 있다. 광대한 영토를 가진 나라이거나 지리적으로 극히 유리한 여건이 갖추어진 나라에서는 혁명의 지속성과 제반활동을 용이하게 할 혁명근거지를 나라 안에 갖출 수 있다. 항일무장투쟁시의 백두산 유격근거지나 쿠바의 시에리마스타 산정을 포함한 산악지대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그러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나라들은 인접한 우호적인 국가를 혁명지원기지로 활동하게 된다. ≪이스크라≫지가 유럽지역에서 만들어져 반입된 것, 카스트로 무장유격대가 멕시코에서 조국해방을 위해 출범한 것 등 그러한 예는 많으며 특히 비합법지하당의 결성과 그 활동을 지원하는 데에서 국외의 지원기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베트남혁명의 모체인 ≪혁명적 청년연맹≫은 호찌민에 의해 중국 광동성에서 조직되었다. 연맹은 베트남 국내에서의 당 결성을 목표로 수차에 걸쳐 혁명가들을 보내 조직작업을 수행하였으며 1930년 봉기의 실패로 당(ICP)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광동지역조직과 국내의 당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위기를 수습해 나갔다.

특히 오늘날 전세계 피억압민중들과 제3세계의 민중들간의 유대가 강화되고 혁명이 전 지구상에 수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이러한 국외의 혁명기지는 유용성이 큰 혁명역량의 구성요소의 하나가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반공컴플렉스만 씻어낸다면 월북 또는 재북한 인사들과의 접촉 등에 대하여 냉담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북한은 이민족이 아닌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통일된 미래를 지향하며 싸우는 피를 나눈 동포가 사는 곳이다.

어쨌든 수백명에 달하는 사건 관련자들 중 몇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남한출신인사 또는 재일동포라는 사실은 공안당국의 간첩단 모략과는 달리 이들 조직이 자주적인 남한혁명조직임을 보여준다.

둘째로, 사건 관련자들의 계급적 성분과 활동경력은 핵심활동가들의 건실함과 단련정도를 보여준다. 통혁당 하부조직 파괴사건에서 주요인물로 지목된 사람들은 대부분 노동자, 농민, 어민 출신들로 계급적 기초가 충실하고 지하당 조직사업원칙에 의거한 강고한 활동을 전개했음을 알 수 있다. 인텔리 중심의 활동가 조직들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핵심양성사업이 전국에 걸쳐 진행된 것이다. 실로 이처럼 항일무장투쟁시기 당창건의 핵심을 꾸리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진 경우는 남한 전위조직 결성투쟁 과정에서 보기 힘든 것이다.

1920년대 조선공산당과 남로당은 물론 그 이후의 인혁당, 남민전과 80년대의 조직사건 구성원은 대부분 학생들이거나 인텔리들이었다. 인혁당, 남민전의 경우 주체형의 당창건 방침이 이들 조직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야말로 이들 조직이 지도사상, 강령과 정책에서 통혁당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조직들이라는 것, 다시 말해 당중앙과의 연계여부만이 밝혀지지 않았을 뿐 통혁당의 하부조직으로서의 요건들을 모두 갖출 수 있음을 입증한다.

셋째로, 각급 조직들의 조직활동 목표와 양상은 69년 통혁당 중앙위원회 창건이래 당 중앙에서 제기한 정책과 그대로 부합된다. 시기별로 그리고 조직이 기반한 지역과 계급계층적 지반별로 활동목표는 달라지지만 전위조직의 주요 정책기조가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이 보다 구체화, 세밀화되어 집행되고 있다. 또한 관련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통혁당의 광범한 지반과 당사업 추진의 구체적 실례를 접할 수 있게 된다. 주요거점과 핵심진지에 전위조직 역량이 집중 포치되고 고도의 비밀유지가 보장되는 가운데 전위조직의 지도력이 행사되는 총체적 모습들을 부문적으로나마 감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본다면 이들 조직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성들이 적지않음을 알게 된다. 결국 단일한 당적 체계에 의

한 조직적 체계화, 행동의 통일성 확보, 사상적 기반의 동일성 등이 확인됨으로 해서 이들 사건들이 모두 통혁당과는 별개의 독자적 사건들이라거나, 남파공작원들에 의한 간첩단 활동이라는 공안당국의 주장은 빛을 잃을 수밖에 없다.

시간이 흐르고 역사적 진실이 복원됨에 따라서 이들 통혁당 하부조직 파괴사건들의 진상은 더욱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최근 한겨레신문의 보도만 하더라도 간첩죄로 복역중인 사람의 대다수가 조작에 의한 것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

통혁당 하부조직들의 조직기반과 활동 정도는 70년대 통혁당의 대중적 지반과 구국운동에 끼친 영향력을 판별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김종태 추도회 광경

한국민족자주선언

한국전위조직운동사

이 땅에 해방의 종소리가 울려퍼지던 때로부터 어언 40주년이 되어 온다.

우리는 오늘도 망국의 비운을 가시지 못한 절통한 상황에서 8·15해방의 그날을 맞게 된다.

감회도 깊은 조국광복의 그날 우리 3천만 동포는 얼마나 격정에 목메여 천하가 동하도록 ≪독립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던가.

짓밟힌 민족의 설움을 안고 망국을 통탄하던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자주독립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었고 해방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완전한 해방도, 진정한 독립도 오지 않았다.

8·15광복의 그날 우리 민중이 열망한 것은 통일독립된 내 나라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 번영하는 민족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것이었으나 이 땅에 펼쳐진 현실은 남이 주인노릇을 하는 새로운 지배와 예속이었다. 참으로 ≪한국≫의 지나온 40년 역사는 민족 자활이 아니라 망국의 가속화과정이였고 독립이 아니라 예속의 확대재생산과정이었으며 국민복지가 아니라 사회적 재앙의 확산과정이었다.

이 땅에서는 해방의 환호성이 아니라 시일야방성대곡이 지속되고 민족 번영의 송가가 아니라 ≪우리의 8·15를 되찾자≫는 민중의 피맺힌 외침이 구천에 사무치고 있다.

≪한국≫민중의 권익의 옹위자인 우리 ≪한국민족민주전선≫은 저주로운 망국노와 처지와 결별하고 민족 웅비와 새 기원을 마중하려는 겨레의 의지를 한 데 모아 하루빨리 참된 해방을 성취하기 위한 사명감으로부터 광복 40주년을 맞으며 이 선언을 발표한다.

우리의 ≪한국민족자주선언≫은 진정한 자주권을 찾기 위한 겨레의 절규이다.

오늘 ≪한국≫민중이 나아갈 길은 민족해방이다.

민족해방위업은 한국사회의 식민지적 체질에서 흘러나온 필수적 요청이다.

한국은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이며 과거 만주국의 현대적 재판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배는 시종일관 아시아와 세계제패를 위한 전략기지화에 초점을 맞추어 실현되고 있다. 미국은 바로 반공대결을 위한 값싼 전초기지로선 한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직접적인 군사적 강점에 신식민주의 간접통치를 배합하고 ≪두 개 한국≫ 정책에 냉전전략을 결합하여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

한국에 ≪독립국≫의 명색을 갖춘 ≪대통령≫이 있고 3권분립의 정치체계도 존재하나 자결권을 가진 것은 어느 하나도 없다. 한국의 ≪헌법≫에는 ≪주권재민≫의 명구가 버젓이 삽입되어 있지만 우리 국민은 언제 한번 자기 손으로 자기 정권을 세워 된 적이 없고 자기 손으로 대통령을 선출해 본 적도 없다.

한국에서 주권은 ≪한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으며 ≪한국≫의 정치는 ≪청와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백악관이 하고 있다.

≪한국≫에는 근 백만의 ≪국군≫과 400여만의 ≪예비군≫을 비롯한 과포화상태의 군사력이 있으나 제 나라 제 민족을 지키는 군대가 없고 육해공군 장성은 많아도 통수권을 가진 자는 하나도 없다.

≪국군≫의 군사행동반경은 미군사령부의 작전지도 위에 표시되어 있고 그의 존재가치는 미군의 총알받이 노릇을 하는 데 있다.

오늘 북미합중국의 ≪전략적 제1선≫으로 공표된 한국은 ≪80년대 힘의 대결≫을 위한 극동 최대의 열핵기지로 전변되었으며 한국민중은 핵참화의 십자로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경제는 내 것으로 살아가는 민족경제가 아니라 미국자본의 배설물로 신진대사를 하는 식민지 하청경제이다. ≪원조≫와 ≪차관≫의 이름 밑에 침투한 미국독점자본은 민족자본을 무자비하게 질식시키고 20세기 괴물로 등장한 미 다국적기업은 한국경제를 송두리 채 집어삼키며 민족의 자결권을 포식하고 있다. 미국의 독점자본이 한국의 잉여가치로 비대해질 때 한국민은 기아임금에 울고 물가고에 아우성치며 세금에 멍들고 실업에 쫓겨 다녀야 한다.

국가가 허물어지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민족의 넋이 무너지는 것은 더욱 위험한 일이다.

한국에서 제도적으로 지배하고 합법적으로 성행하는 것은 숭미사대의식과 반공배족사상이며 양풍왜색이다. 고의 악성적인 병폐 속에서 민족자주의식이 짓밟히고 민족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조장되고 있으며 민족문화의 전통성이 이지러지고 민족 자체가 양키식으로 이질화되어 가고 있다.

미국의 식민지통치하에서 우리 국민은 골육만 도륙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맥과 혈맥까지 잘리우고 있다. 미제에 의한 국토분단으로 우리 민중은 전고미문의 민족적 비애를 곱씹어 왔고 너나없이 무서운 재난을 치르어 왔다. 그런데 남북분단은 끝장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날이 경직화되고 있으며, 통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구분열로 가고 있다. 영구분열의 길, 그것은 곧 민족의 파멸과 종말에로의 길이다. 이것은 참으로 상상만 하여도 몸서리치는 식민지 한국민의 참혹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자주권을 말살당한 식민지에서 민족해방위업을 순행하는 것은 그 어떤 물리적 강제로도 억제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이고 의무이다.

우리 민중이 민족해방위업을 수행하는 것은 지난 40년간의 대중투쟁에서 찾은 피의 교훈이다.

8·15이후 오늘까지 한국민중은 자유와 민주주의, 생존권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어느 하루도 투쟁을 멈춘 날이 없고 피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

우리 민중은 이 격전의 길에서 4·19의거로 이승만 괴뢰정권의 아성을 허물어 버리고 10월 민주항쟁으로 ≪유신≫파쑈통치에 준엄한 선고를 내렸으며 영웅적인 광주봉기를 통하여 80만의 대도시를 해방하고 10일 간이나 자유와 민주의 보루 – ≪만주국≫을 세운 세계사적 위훈도 남기었다. 그러나 투쟁 속에서 밝아 오던 민주의 여명과 조국통일의 서광은 그때마다 광란적인 폭정 속에 가뭇없이 사라지고 이 땅에는 보다 횡포무도한 군사파쑈≪정권≫이 등장하였다.

이 역사의 반동 뒤에는 언제나 미국의 검은 마수가 뻗치고 있었다. 우리 민중은 이것을 통하여 반미민족해방운동이 없이는 자주권을 위한 그 어떤 성스러운 위업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철석같은 신념으로 간직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 민중이 민족해방운동에서 높이 들어야 할 기치는 반미자주화이다.

반미자주화, 바로 여기에 식민지예속을 끝장내고 빼앗긴 우리 영토와 짓밟힌 내 민족의 자주권을 다시 찾는 참다운 길이 있고 민주와 통일로 가는 첩경이 있다.

반미자주화를 위한 우리 민족해방투쟁은 침략과 피침략과의 대결이고 매국과 애국간의 결전이다.

이 투쟁에서 창끝을 돌려야 할 주타격대상은 미제국주의 침략세력이다.

미제는 침략과 압제의 괴수이며 역사적으로 우리 겨레에게 재난

을 들씌운 철천지 원쑤이다.

한국의 극소수 사대매국세력은 미제와 함께 제거해야 할 반미자주화의 투쟁 대상이다. 한국의 매판자본가들과 반동관료배들, 친미분자들은 외세를 끌어들이는 안내자들이며 나라의 자주권을 해치고 팔아먹는 민족반역집단이다.

오늘 식민지 한국에서 반미자주화투쟁을 밀고 나갈 동력은 노동자, 농민들과 청년학생, 중소상공인을 비롯하여 지성인, 애국적 군인들과 종교인들은 물론 민족적 자주권을 지향하는 광범위한 민중이다. 여기에서 노동계급은 반미자주화투쟁의 승패를 좌우할 결정적 역량이고, 농민은 그의 미더운 동맹자이며, 청년학생들은 투쟁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개척하는 주력부대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우리 ≪한국민족민주전선≫은 한국민중의 지향과 의사의 체현자이며 애국적 전위대이다.

반미자주화를 위한 민족해방투쟁에서 우리 한국민족민주전선과 애국민중이 함께 밀고 나가야 할 역사적 과제는 반파쑈민주화와 조국통일이다

반미자주화투쟁 속에서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도 실현될 수 있고, 반파쑈투쟁과 조국통일운동에서 자주화가 촉진된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한 우리의 민족해방투쟁에서 승리의 관건적 요체는 민족주체역량의 강화에 있다.

막강한 민족주체역량은 대중의 의식화, 조직화와 군중투쟁의 실천 속에서 준비되고 자라난다.

대중이 민족적으로, 정치적으로 자각하고 자기 운명의 개척자로 역사무대에 등장할 때 그 힘을 당할 자는 이 세상에 없다.

민족주체역량의 위력의 원천은 단결에 있다.

한국에서 민족의 의지를 하나로 집약하고 민중의 힘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각당, 각파, 각계각층 애국역량을 망라하는 광범위한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여야 한다.

반미자주화투쟁이 민족사적 요청으로 부상된 현 시점에서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기준은 오직 대미관에 있다.

반미는 애국이고, 친미는 매국이다.

현실은 애국애족의 일념으로 정파와 당파의 울타리를 뛰어넘고 구국의 단심으로 반미자주화의 길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 한국민족민주전선은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그가 민족주의자이건, 공사주의자이건, 신자이건, 무신론자이건, 해외에서 살건, 국내에서 살건, 지난날 조국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혜있는 사람은 지혜를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며 민족통일전선에 하나로 뭉쳐 한국의 자주화를 위한 일대 반미구국운동에 결연히 나설 것을 호소한다.

반미자주화투쟁의 포성은 이미 울렸으며 대세는 우리 민중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다.

민족적 자주권을 찾기 위한 열전의 시기가 가까와 오고 있는 오늘 우리 민중에게는 뒤로 물러설 자리도 없다.

민족해방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역사의 소명이다.

우리는 오늘의 민족해방투쟁에서 물러서면 영영 망국노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오늘의 위기를 막지 못하면 지구상에서 단일민족과 하나의 삼천리강산마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방관은 죽음이고, 주저는 파멸이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제날 압박받고 천대받던 민중이 역사의 중심에 들어서서 키를 잡고 나가는 자주성의 시대이다.

지구상에서는 지배정치가 무너지고 자주정치의 물결이 굽이치고 있으며 피압박민족마다 신생독립하여 자기 운명의 타수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 격동적인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자주국민으로 살기를 바라는 모든 한국민중은 반미민족해방성전에 분기하자.

우리는 민족자주위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당면 강령을 제기하고 투쟁할 것이다.

1.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한다

민족의 자주권은 독립국의 제일 생명이다. 민족의 자결권과 존엄은 자주정권에 의해서만 보장된다.

자주독립을 지향하는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거족적인 반미운동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배와 식민지통치를 청산한다.

노동계급을 중핵으로 하는 광범위한 민족통일전선에 기초하고 극소수 친미, 친일 세력을 제외한 각계각층 민중을 위해 복무하는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한다.

일체 외세의 간섭과 외세의존을 배제하고 정강, 정책을 독자적으로 세우며 국정 전반에서 자주권을 행사한다.

2. 민주정치를 실현한다

민주정치는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진보를 위한 전제이다. 민주정치가 구현되어야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국민생활이 담보되며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이 이룩된다.

식민지통치의 도구인 군사독재를 매장하고 파쑈적인 폭압기구들과 악법들을 철폐한다.

파쑈독재정치, 정보테러정치를 배제하고 국민대중의 자주정과 창조성이 발양되는 민주주의적인 사회정치제도를 발전시킨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및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자, 농민들을 위시한 근로민중에게 실제적인 참정권을 부여하며 민주적 정당, 단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

부당하게 투옥된 모든 정치범, 양심범들을 전원 무조건 석방한다.

인격존중, 인간평등을 실현하며 감시, 미행, 테러, 폭행, 기합, 고문 등 일체 인권침해행위와 정치적 보복을 엄금한다. 여성에 대한 정치적 차별과 속박을 근절하고 여권을 신장한다.

3.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

자립경제는 자주독립국의 초석이다. 경제적 자립을 이룩해야 나라의 독립을 굳건히 다지고 민족이 자주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다. 외세의존경제와 매판경제를 배격하고 식민지경제체제를 개혁하여 자립경제의 기반을 닦는다.

국내의 자원, 원료, 자금, 기술에 입각하여 민족산업을 부흥 발전시키며 산업구조를 균형화 한다.

채무경제를 지양하고 국내축적을 증대시킨다.

남북간의 경제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남북경제의 통일적 발전을 적극 도모한다.

매판기업가들을 제외한 모든 기업인들과 중소상인들의 사적 소유를 보호하고 그들의 활동을 보장하며 재외교포자본가들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장려한다. 민족자본의 자립적 성장에 저해되지 않는 외국인들의 투자는 제한하지 않으며 그 이권을 보호한다.

4. 국민생활을 안정시킨다

국민생활의 안정, 향상은 민족자주정권의 기본임무이다. 민생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나라의 부강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소수 특권층을 비대시키는 부의 편중을 근절하고 소득분배의 공정성을 기하며 근로인중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출혈적 조세정책을 폐지하고 각자의 소득에 따라 적용하는 공평한 세금제를 실시하며 물가를 안정시킨다.

근로자들에 대한 8시간노동제, 최저임금제, 노동보호제, 유급휴가제, 사회보장제를 실행한다. 차별임금제를 폐절하고 동일노동시간에 대한 동일임금을 지불하며 노임체불을 근절한다.

농어민들의 영농조건, 어로조건을 개선한다. 미군용지로 이용하

던 농토와 매판재벌들이 소유했던 농지를 경작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분배하며 농산물 고가정책과 비료, 농기계 등의 저렴가 시책으로 농민생활을 안정, 향상시킨다. 어민들에게 어로활동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며 영세어민들을 위해 어선, 어구, 어업자금을 배려한다.

실업자들에게 직업을 알선해 주고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킨다. 저렴한 임대료로 근로민중에게 공영주택을 제공하며 무의면을 해소하고 극빈자들에 대한 의료보험제를 실시한다.

5. 민족교육을 발전시킨다

민족교육은 민족의 장래 운명을 좌우하는 위업이다. 민족교육을 발전시켜야 민주사회의 진보를 이룩할 수 있고 민족적 번영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

숭미반공교육제도를 청산하고 자주이념에 투철한 민족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제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킨다.

학원의 모리화를 금지하고 등록금, 공납금제를 폐지한다.

모든 학령 아동들에게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의 길을 열어 주며 모든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제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과중한 학비부담을 덜어준다.

학원의 파쑈화, 군사화를 철폐하고 교육의 민주화를 실현한다.

6. 민족문화를 건설한다

자주적인 문화건설은 사람들을 위력한 사회적 존재로 키우고 민족을 문명화하는 기본요건이다. 자주적인 문화를 발전시켜야 나라의 부흥과 민족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부패타락한 양키문화를 추방하고 사회의 참신한 발전과 국민의 정신문명생활에 이바지하는 민족문화를 창달한다.

외래문화 모방풍조를 배격하고 주체적인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며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일소하고 국민대중의 민족자주정신과 애국의식을 적극 발양시킨다.

민족의 우수성을 살려 국민들의 민족적 자존심과 자부심을 함양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호·관리하는 실제적 대책을 강구한다.

짓밟힌 조상전래의 문화전통을 회복하고 자주적인 문화생활을 창조한다.

7. 참신한 사회기풍을 세운다

건전한 사회기풍의 확립은 말세기적인 식민지 사회악을 일소하고 참신한 생활풍토를 조성하는 긴박한 과제이다. 생신한 사회기풍이 서야 사회의 부패화가 방지되고 국민들의 명랑하고 보람된 삶이 마련된다.

미군기지촌과 소수 특권층들의 향락을 위한 퇴폐적인 유흥업소들을 철폐하며 형형색색의 부정부패행위를 근절한다.

인신매매행위를 완전 일소하고 온갖 사회악을 제거한다. 사치와 낭비 성향을 막고 건전한 윤리도덕과 창조의식이 전 사회에 넘치게 한다.

청소년들을 선도할 사회적 환경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그들의 사회도덕적 탈선을 미연에 방지한다.

8. 자주국방을 실현한다

자주국방의 실현은 독립국가 건설의 근본요체이다. 자위국방을 실현해야 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을 물리치고 민족적 자주권을 지킬 수 있다.

군통수권을 탈환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침략자들의 군사적 지배를 종식시킨다. 주한미군이 설치한 모든 군사기지, 모든 핵기지들을 철폐하고 한국을 비핵평화지대로 만든다.

이북과 동족을 반대하는 일체 군사행동과 전쟁준비를 배격하고 타국에 대한 침략을 반대하는 반전반핵운동을 적극 벌인다.

외래침략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지킬 필요한 수의 자위무력을 유지하고 현 병력을 대폭 감군하며 국민의 군사적 부담을 경감한다. 군 강제징집제도를 폐지하고 자원병제를 시행하며 반미자주화투쟁에 참여한 장교들은 중용하고 우대한다.

9. 자주외교를 시행한다

자주외교는 국위를 선양하는 수단이다. 국제사회에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해야 자주독립국의 존엄과 민족의 영예를 고수할 수 있다.

자주, 중립, 평화, 비동맹을 외교정책의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어떠한 정치군사동맹에도 가담하지 않고 어떠한 강대국에도 기울어지지 않는 중립노선을 확고히 견지한다.

우호와 평등, 불간섭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 맺은 수교관계를 재조정하며 자주, 민주, 평화를 지향하는 모든 우호국가들과의 친선협력관계를 증진시킨다.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과 반제반미 공동유대를 강화하고 비동맹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 실현에 기여한다.

한미, 한일간에 체결된 침략적이고 매국적이며 예속적인 일체 ≪조약≫과 ≪협정≫들을 폐기한다.

10.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한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은 온 겨레의 일치한 숙원이며 민족지상의 절박한 과제이다. 민족통일을 이룩해야 나라의 통일적인 부흥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담보할 수 있다.

민족의 영구분열을 막고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원칙에서 평화적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한다.

광범위한 국민대중의 통일열의를 고취하고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며 민족의 총의가 집약된 폭넓은 협상을 통해 연방형식의 통일국가를 건립함으로써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수행한다.

우리 민족해방위업은 정의이고, 시대의 흐름에 합류한 반미자주화투쟁은 필승불패이다.

친미사대냐, 반미자주냐, 우리는 반미자주에 살고 싸우며 승리할 것이다.

반미자주화 만세!

우리의 민족해방위업 만세!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1985년 7월 27일

한국민족민주전선 출범 두 돌을 맞이하여

한국전위조직운동사

한국민족민주전선이 자기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출범의 닻을 올린 때로부터 두 돌이 됐습니다. 이 날을 맞은 한국민족민주전선의 모든 조직성원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자기의 전위조직의 향도 밑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지배와 군부파쑈독재를 종식시키고 조국통일의 그날을 기어이 안아 올 불퇴전의 의지를 굳게 다짐했습니다.

변화된 시국과 대중운동 발전의 요청, 전위조직 발전의 요구에 부응해서 출범한 한국민족민주전선은 한국민중의 지향과 의사의 체현자이며 애국적 전위대입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한국민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정치적 조직체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성격과 사명은 그 사회계급적 기초와 지도이념에 의해서 규제됩니다.

우리 한국민족민주전선의 사회계급적 기초는 가장 광범위한 각계각층 애국민중입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은 자기 대오에 이 땅의 광범위한 애국민중의 우수한 선진분자를 망라하고 있는 전위조직입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에는 노동자, 농민들과 청년학생, 중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소상인, 애국적 군인들과 종교인들은 물론 민족적 자주권을 지향하는 모든 애국민중의 우수한 사람들이 널리 망라되고 있습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의 조직구성에서의 이같은 특징은 한국민주화와 민족적 이익을 대표하며 그것을 옹호하여 투쟁하는 애국애족적인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은 자기 구성상의 특징으로부터 각계각층 애국민중의 지향과 요구를 포괄적으로 대변할 수 있고 그들의 권익을 지켜 끝까지 투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은 가장 광범위한 각계각층 민중 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의 공동의 요구를 대변해 애국애족활동을 적극 벌이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대중의 신뢰와 지지기반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애국적 전위대로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 조직체의 지도이념은 그 조직체의 성격과 사명을 규정하는 기본요건 입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은 참다운 민족자주이념인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애국민중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근본지침을 주는 애국애족의 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은 우리의 민족적 자주권과 민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최상의 길과 방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에 의해 천명된 민족자주이념은 외세에 의한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애국애족의 사상입니다. 참다운 애국애족의 사상은 민족의 자주권 실현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됩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 민족적 자주권 확립과 민족의 융성 · 번영을 확고하게 담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체사상이 우리 민족, 민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끝까지 이끌어 주는 애국애족적인 시대사조라는 것을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이 이처럼 가장 애국애족적인 이념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그를 지침으로 해서 모든 활동을 벌이는 바로 여기에 한국민중의 애국적 전위대로 되는 원칙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의 애국적인 성격은 시대와 역사 앞에 주는 그의 기본사명과 투쟁목표에 의해서도 뚜렷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민족민주전선이 자기의 출범을 세상에 알리면서 발표한 ≪한국민족자주선언≫에서 천명한 바와같이 한국민족민주전선의 숭고한 사명과 투쟁목표는 민족자주위업의 과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그 승리를 위해 투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자주위업은 외세의 지배와 예속으로부터 벗어나는 민족적 해방과 자주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성업이며 민족의 존엄을 지키며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어려운 투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자주위업을 이룩하는 것보다 더 중대한 사명은 없습니다. 이로부터 우리 한국민족민주전선이 내세우고 있는 강령과 투쟁목표는 민족사의 절박한 요청과 각계각층 애국민중의 지향과 의지를 가장 올바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들의 공동강령으로, 투쟁목표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민중의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한국민족민주전선의 모든 정치적 주장들은 외세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민족으로 떳떳하게 살려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한 애국애족적 입장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민족민주전선이 민족적 자주권을 옹호하기 위해 투쟁하는 한국민중의 전위대임을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민족민주전선은 역사적 출범을 개시한 이후 지난 2년 간 크고 사나운 풍랑을 헤쳐 나가는 길에서 알찬 성장과 장족의 전진을 이룩했습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은 자기대오의 주체사상화를 더욱 가속화하면서 반미민족해방의 활로를 성공적으로 개척하기 위해 각계각층 민중을 민족통일전선에 더욱 굳게 결속해서 그들을 반미반파쑈구국투쟁에로 힘있게 선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민족민주전선 앞에는 자주, 민주, 통일 위업을 더욱 가속화해야 할 막중한 과제가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과 각계 애국민중이 민족해방운동에서 높게 들어야 할 기치는 반미자주화입니다. 반미자주화에 식민지 예속을 종식시키고 빼앗긴 우리 영토와 민족의 자주권을 다시 찾는 참다운 길이 있고 민주와 통일로 가는 첩경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민족민주전선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반미자주화의 기치를 더욱 선명히 하고 각계 애국민중과 더불어 민족해방위업을 가속화해 나갈 것입니다. 반미자주권을 위한 민족해방투쟁에서 우리 한국민족민주전선과 애국민중이 함께 밀고 나가야 할 역사적 과제는 반파쑈민주화와 조국통일입니다. 우리 한국민족민주전선은 조성된 정세하에서 각계 민중의 반미자주화투쟁과 함께 반파쑈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대중투쟁을 더욱 가속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과 각계 애국민중 앞에 나선 이 역사적 대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승리의 관건적 요체는 민족주체역량의 성장에 있습니다. 막강한 민족주체역량은 대중의 의식화와 조직화, 군중투쟁의 실천 속에서 준비되고 성장합니다. 우리 한국민족민주전선은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을 동원해서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기 위한 활동을 힘있게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여러 가지 형태의 대중운동을 적극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투쟁 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선진분자들로 한국민족민주전선대오를 부단히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한국민족민주전선은 막강한 민족주체역량을 준비하기 위해 각당, 각파, 각계각층 애국민중을 민족통일전선에 더욱 굳게 결집시켜 나갈 것입니다.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투쟁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야 할 막중한 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한국민족민주전선은 역사와 민족 앞에 자기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하긴 위해 자기 대오의 주체사상화를 더욱 가속화해 나가는 등 각계층 민중과의 혈연적 유대를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자주, 민주, 통일 위업을 위해 싸우는 우리 민중과 한국민족민주전선의 애국위업은 필승불패입니다. 그 어떤 힘도 정의의 애국위업을 위해 투쟁하는 한국민족민주전선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구국의 소리

1987. 7. 27

전국민에게 드리는 글

국민 여러분

외세에 의한 식민지통치와 국토분단의 파란 많은 곡절과 수난을 겪어온 20세기가 가고 통일강성민족으로 부강번영할 희망찬 21세기의 첫해가 밝았습니다.

찬란한 태양의 빛발아래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들로 아로새겨질 뜻 깊은 새 세기, 21세기의 첫 아침을 맞으며 한국민족민주전선은 자주민주통일을 위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여온 우리의 전위투사들과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 애국민중에게 전투적 인사를 보냅니다.

격동 속에 흘러간 20세기의 마지막해인 지난 2000년은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영도로 분단사상 처음으로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마련되고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어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이 열리고 온 강산에 통일 열기가 뜨겁게 굽이친 승리의 한해였으며 우리의 남녀노소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위인상에 끝없이 매혹되어 경모와 충성의 환호성을 목청껏 외치며 감격과 환희로 설레인 자랑찬 한해였습니다.

지난해 각계민중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우러르며 경향각지에서 자주통일운동을 힘있게 벌였습니다.

8.15광복절 55돌을 계기로 조국통일 3대헌장의 기치를 높이 들고 진행된 2000년 통일대축전은 외세의 지배와 분단을 끝장내고 통일된 강성부강조국을 건설하려는 각계민중의 의지와 신념의 뚜렷한 발현이었습니다. 조국통일열기가 날을 따라 높아지는 속에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한 6.15 공동선언실현을 투쟁목적으로 하는 통일연대준비위원회가 결성됨으로써 우리민중의 통일운동은 전국적 범위에서 조직화되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민족의 영수로 높이 모시어 통일은 머지 않아 이룩된다는 각계민중의 신념이 뜨겁게 분출되는 속에 반공일변도를 걷던 현 집권상층 속에서까지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천출위인상에 끝없이 매혹되어 연공연북의 기운이 날로 높아가게 되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남북간에 장관급회담과 고위급 군사회담 등 여러 갈래의 대화가 진행되고 언론사사장단의 평양방문을 비롯하여 여러 면에서 접촉과 교류가 활발히 벌어져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온 남북사이의 불신과 대결이 화해와 단합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덕정치, 광폭정치의 최고의 화신이신 **김정일**장군님의 하늘같은 은총으로 신념과 의지의 강자 통일애국투사들인 비전향장기수들의 북송이 실현된 것은 민족사의 특기할 일대 경사이며 인류역사에 있어본 적이 없는 세계적인 대사변이었습니다.

지난해는 6.15 남북공동선언에 흐름을 타고 우리 민중의 반미자주화 투쟁이 민족자주와 주한미군철수를 강력히 요구하며 큰 폭과 깊이를 가지고 강도 높게 전개된 투쟁의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은 노근리사건을 발단으로 드러난 미군의 6.25 양민대학살만행과 갈수록 횡포해지는 주한미군범죄행위, 비무장지대에서의 고엽제살포행위와 매향리폭격사건, 미군기지에서의 독극물방출사건과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미명하에 감행되는 경제침탈 등을 통해 미제야말로 극악무도한 침략자, 약탈자, 살인자라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깨닫게 되었으며 경향각지에서 반미기운을 드높여 반미자주화투쟁을 전례없이 가열차게 전개하였습니다.

지난해 이 땅에서는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민중의 거센 함성도 줄기차게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자주민주통일의 걸림돌인 20세기 파쇼폭정의 산물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완강한 투쟁을 벌림으로써 국가보안법철폐를 막을 수 없는 국민적 요구로 시대적 흐름으로 만들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신탁통치한파와 당국의 매국배족적이고 반민중적인 기업구조조정을 비롯한 살인적인 경제정책강행으로 막다른 처지에 빠진 이 땅의 근로민중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투쟁밖에 없다는 자각아래 생존권쟁취를 위한 과감한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그것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연대공동투쟁과 노조간, 지역간, 노동학간의 연대연합투쟁으로 발전하면서 전국적 범위에서 힘차게 벌어졌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지난해의 투쟁을 통해 자주민주통일에 대한 강렬한 염원과 불굴의 의지를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민족민주운동역량의 위력과 민중의 단합된 힘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의 첫해에 민족자주,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도약을 일으켜야 할 우리들이기에 지난 투쟁을 성찰하고 교훈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의 민족민주운동에서는 급변하는 정세에 따라 전략전술을 다양하고 신축성있게 구사하지 못하는 약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투쟁열기에 걸맞게 운동을 보다 조직화, 대중화, 적극화하지 못하고 한시적인 흥분과 열기로 끝내는 한계성도 우리는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운동대오 내부의 단합을 이루지 못하고 분파적으로 행동함으로서 운동조직을 분열시키고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한 심중한 오류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우리 국민은 세기와 세기가 교체되는 분수령에서 온갖 도전과 난관에 정면으로 맞서 억센 변혁적 기개를 유감없이 떨쳤습니다.

국민여러분!

우리 모두는 새 세기, 역사적인 21세기의 첫해에 들어섰습니다. 민족사의 가장 영광스런 세기로 빛나게 될 21세기는 명실공히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세기, 조국통일의 세기이며 민족 대번영의 세기입니다.

각계 애국민중은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영수,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숭배하고 받들며 그분의 영도따라 새 세기에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 우리 민족을 세계 제일의 강성민족으로 우뚝 올려 세워야 합니다.

21세기의 첫해인 올해 우리 국민 앞에는 격변하는 정세의 흐름에 주동적으로 대처해 나아가면서 민족의 염원인 자주, 통일을 하루 빨리 앞당겨 완수해야 할 무겁고도 중대한 과제가 부가되고 있습니다.

조국통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족 지상의 과제이며 7천만 겨레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외세에 의한 민족분단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는 것은 민족의 어버이이신 **김일성**주석님의 유언이며 민족의 태양 **김정일**장군님의 의지입니다.

전 국민은 민족의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을 통일의 영수로 높이 모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줄기차게 벌여 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고 싸우는 길에 조국의 통일도, 민족의 번영도 있습니다.

우리는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로 조성된 유리한 전환적 정세국면에 걸맞게 조국통일운동을 범국민적 차원에서 더욱 활성화 가속화해 나가야 합니다.

각계층 국민은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휘황한 이정표인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에 한사람같이 동참해 나서야 하며 이북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반북대결과 전쟁소동으로 6.15공동선언 이행에 제동을 거는 반통일분열세력 극우보수세력을 제압, 척결해 버려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올해 조국통일운동의 핵심적 과제입니다. 민족의 통일기운이 상승되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채택되어

그 이행이 추진되는 오늘의 상황에서 그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은 개정이 아니라 전면 철폐되어야 마땅합니다.

모든 통일애국세력은 존재 명분을 완전 상실한 국가보안법과 같은 통일을 가로막는 악법과 기구들을 전면 철폐, 해체하기 위한 투쟁을 각계각층과 연대연합하여 강력히 전개하여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된 통일조국에서 하나된 민족으로 살기를 일일천추로 바라는 우리 국민은 미국과 극우반동세력에 의한 영구분열책동과 북침전쟁도발책동을 격파하며 새 세기 통일된 부강조국건설을 목표로 올해에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반미자주화는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한국변혁운동의 총적 목표이며 올해 우리 국민 앞에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투쟁과제입니다.

우리는 20세기에 끝장내지 못한 수치스러운 미국의 식민지지배와 예속을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으며 이러한 민족치욕의 역사가 세기로 연장된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외세를 몰아내고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해 모든 투쟁을 반미에로 확고히 지향시키고 반미자주화투쟁에 화력을 총 집중하여 범국민적인 반미투쟁이 활화산처럼 분출되게 함으로써 이 땅에서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영원히 끝장내고 온갖 악의 근원인 주한미군을 지체 없이 철수시켜야 합니다.

당면하여 6.25 전쟁시기 미군의 양민학살만행과 주한미군범죄행위를 단죄규탄하는 투쟁과 주한미군기지철폐, 한미행정협정파기투쟁을 줄기차게 벌여 이 투쟁을 주한미군철수투쟁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와 함께 현 시기 가장 첨예한 현안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외세의 경제적 예속과 침탈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을 전 국민적인 투쟁으로 확산시켜 반외세의 열풍이 경향각지를 휩쓸게 해야 합니다.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민중생존권을 쟁취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각계민중은 반민족적, 반민중적 탄압기구들과 파쇼악법들을 철폐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여 민주의 새 사회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민중은 이 땅의 실업대란을 더욱 심화시키는 현 당국의 매국배족적이고 반민중적인 경제정책을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아이엠에프 신탁통치와 일방적 구조조정을 반대하고 고용안정과 실직자 생활보장, 임금인상과 노동 3권 쟁취, 농가부채 삭감 등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여 국민대중의 요구를 무조건 실현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국민 앞에 제기된 중대한 과제는 운동역량의 강화와 전략전술의 세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민주통일운동 조직들은 민족의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의 위인상과 주체사상으로 각계민중을 의식화하고 그들을 조직된 역량으로 결속시켜 운동의 활력과 투쟁의 효율성, 투쟁전선을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민족민주통일운동 세력의 굳건한 단결과 투쟁의 대중화는 올해 투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입니다.

우리는 통일과 단결의 기치를 보다 높이 실현해서 올해의 제반 정치쟁점들에 대한 통일적인 투쟁전술을 확립해야합니다. 그리고 운동대오내의 분열주의적인 종파행동을 일소하고 좌경적 편향을 경계하며 운동조직들의 순결성과 투쟁대오의 통일을 실현하고 대중의 공감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투쟁방식을 적극 창출, 구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 세기의 첫해인 올해를 자주, 통일을 앞당겨 실현하는 투쟁과 전진의 해, 결실 있는 승리의 해로 빛내기 위해 백배 천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을 21세기의 태양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신 한없는 긍지와 필승의 신념 드높이 주체의 기치를 높이 치켜들고 6.15남북공동선언 관철에 박차를 가해 나감으로써 우리 모두 자주, 통일의 서광을 하루 빨리 안아오고 21세기를 융성번영하는 민족사로 빛나게 장식해 나아갑시다.

주체 90(2001년) 1월 1일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 울

한민전이 선정한 2000년 10대 뉴스

1.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의 채택



***** 장군님 노래를 부르며 그분을 따라 배우려는 것은 **** 그리고 온 겨레의 가슴마다에는 장군님에 대한 경모심이 차있었고 온 세상은 말 그대로 장군님 *** 통일의 열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 또한 지난 10월 말 유엔 총회에서 남북**와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 등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 발표는 온 세계를 격동시켰습니다.

2.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현대아산의 금강산 개발현장 시찰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10월 30일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의장 *** 현대아산에서 **금강산 개발현장을 시찰하셨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현대아산이 금강산 개발을 비롯한 경제협력을 위해 많은 배려를 주시며 경제협력관계를 한 계단 높여 발전시키고 6.15 공동선언의 이행에 적극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치하하셨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금강산 **** 정몽헌의 장과 그 일행을 위해 오찬을 마련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큰 온정을 배푸셨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시찰은 한국기업인들에 대한 크나큰 배려로서 각계각층 민중 속에서 그분에 대한 경모심을 더욱 뜨겁게 했습니다.

3.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김대중대통령에게 송이버섯 선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추석에 즈음해 9월 11일 김대중대통령에게 칠보산 송이버섯을 선물하셨습니다. 송이버섯 선물은 지난 6월 평양상봉시 김대중대통령을 수행했던 모든 성원들과 지난 8월 방북했던 언론사 사장단 전원과 정주영 전현대그룹 명예회장 등에게 전달됐습니다. 이 선물들에는 남녘의 각계인사들과 동포들에게 북녘의 동포애적 마음을 전하고 민족의 정취를 느끼게 하시려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숭고한 *** 과 평양상봉의 정치적 의의를 깊게 하고 남북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시려는 그분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져 있어 만사람의 ****

4. 한국언론사 사장단 평양방문



한국언론사사장단이 8월 5일부터 12일까지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12일 언론사 사장단을 위해 오찬을 마련하시고 귀중한 말씀을 하셨으며 기념사진도 촬영하시는 등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셨습니다. 8월 11일 평양에서는 남북 언론인**들이 6.15 공동선언 이행에 함께 노력할 것을 결의하는 등 다섯 개항의 공동 합의문이 발표됐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의 접견을 받은 언론인들은 그분의 위대성과 고매한 인간상에 매혹되고 광폭정치에 공감을 표시하며 조국통일을 위해 적극 노력할 의지를 다졌습니다.

5. 비전향장기수 북송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비전향장기수 63명이 9월 2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습니다. 온 겨레와 인류의 축하 속에 이루어진 비전향장기수들의 집단적인 북송은 죽음보다 어려운 고초를 이겨낸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 통일애국투사들의 **였으며 동시에 신

념과 의지의 강자들을 ** 마련하신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동지적 의리와 ****

6. 남북 간 여러 갈래의 회담 진행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7월말 서울에서 개최된데 이어 ***진행됐습니다. 회담들에서는 남북장관급 회담이 6.15 공동선언 *****판문점 연락사무소 업무를 재개하고 경의선 철도와 **남북 간 경제협력과 교류 ******* 남북**장관들이 ****일 제주도에서 제*차 회담을 갖고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남북간 의견****. 또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리는 등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간에 ** 남북대화는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들을 **하고 실천에 옮길 것을 *** 결실있는 회담으로 되어 민족적 *** 통일에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7. 조선로동당창건55돌경축행사에 남측 대표단 참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을 모시고 10월 10일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조선로동당창건55돌경축행사에 남측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여성단체 등 11개 단체 ** 83명과 ***등 인사 9명은 조선로동당 창건 55돌을 경축하는 열병식과 군중시위,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등을 관람했습니다. 경축행사는 위대한 장군님** 일심단결 등 이북의 무력과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따라 전진하는 이북사회주의는 필승불패라는 것을 전세계에 과시했을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미래는 북에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8. 대 성황리에 진행된 이북예술단들의 서울방문공연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이 5월 24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 와서 공연을 한데 이어 5월 29일부터 6월 11일까지 평양교예단이, 8월에는 조선국립교향악단이 방문해 수차례의 공연을 진행해 민족의 화해와 통일열망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대 성황리에 진행된 이북예술단들의 서울 공연은 민족주체성과 훌륭한 예술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우리 민중은 관람을 통해 이북의 예술이야말로 민족의 참예술이라는 것을 절감했고 민족의 참다운 문화가 북에서 꽃피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9. 남북노동자통일대토론회



6.15 남북공동선언지지관철을 위한 남북노동자통일대토론회가 12월 12일과 13일 금강산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직업총동맹 대표단과 한국노총대표단과 민주노총대표단이 참가한 토론회에서는 남과 북의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공동호소문을 내고 노동자들이 조국통일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남북노동자 통일대토론회에서 변혁운동의 주력군인 노동자들이 통일운동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 것으로 조국통일운동이 더욱 활력있게 전개될 수 있게 됐습니다.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되는 남북노동자 통일대토론회는 통일운동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졌습니다.

10.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8.15에 즈음해 제 1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에 이어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제 2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이 진행됐습니다. 남과 북의 이산가족 방문단 성원들은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가족, 친척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고 혈육의 정을 나눴습니다. 남북이산가족들의 상봉은 6.15 공동선언의 결실로써 7천만 겨레와 국제사회의 열렬한 지지와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2000년 대중운동을 결산해본다

이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위인 칭송의 한해. 자주민주통일의 뜨거운 열기 속에 2천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세기의 영마루 세말의 언덕에서 절세의 위인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영수로 모신 끓어넘치는 감격과 환희, 소리쳐 외치고 싶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를 안고 2000년을 돌이켜봅니다.

사회자 : 오늘은요, 유진명씨 모시고 2000년 대중운동을 결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진명 : 안녕하세요.

사회자 : 네,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우리 민중의 대중운동에서요 *** 열매를 거두면서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엔 ≪이해에 벌어진 대중운동을 결산해본다≫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이해는 자주민주통일운동을 위한 우리 민중의 대중운동사에 획기적인 사변을 일으킨 대중투쟁의 한해였다 이렇게 평가 될 수 있겠는데요.

유진명 :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해의 이 땅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진보인들을 비롯한 각계민중은 자주민주통일운동을 힘있게 벌였어요.

무엇보다 먼저 지적하고싶은 것은요. 각계민중의 반미자주화투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는 한총련의 주도하에 청년학생들이 올해의 투쟁방향을 ≪반미항전의 해≫로 정하고 미군을 철수시켜내기 위해서 투쟁을 벌인 것에서도 잘 알 수 있죠. 한총련은 미국의 양민학살만행을 폭로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5월 9일에 ≪미국대사관 진격투쟁의 날≫, ≪반미의 날≫을 정하고 학살만행 규탄대회를 힘있게 벌여나섰구요, 미군철수운동을 힘있게 벌이는 등 반미투쟁을 줄기차게 벌였습니다. 그리고 반미투쟁이 각계민중들 속에서도 벌여졌는데 구체적으로 미군기지철폐투쟁,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폐지를 위한 투쟁, 매향리미군폭격장폐쇄운동 등을 들 수 있어요.

사회자 :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거는요, 6.25전쟁시기 감행한 미군의 노근리양민학살사건이 드러났고요,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것을 계기로 각계민중들 속에 반미의식과 민족자주의식이 급격히 높아진 것과 반미자주화투쟁이 개별적, 계급계층별, 지역별 범위를 초월한 범국민적 범위로 확산된 것이 아니겠어요?

유진명 : 네, 그래요. 이 해에 노근리양민학살사건대책위원회, 불평등한한미협정개정위원회를 비롯해서 100여개 시민단체들과 사회단체들이 모인 ≪매향리미군폭격장폐쇄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이 연이어 결성이 됐죠. 그리고 한미행정협정과 관련한 미군기지 *** 철폐를 요구하는 지역별 계층별 단체들로 결성된 주한미군지위협정 *** 당국의 반국민적인 ** *** *** 연이어서 벌어졌죠. 이런 단체들의 투쟁에서 이해에 각계민중은 미군의 양민학살사건진상규명과 고엽제살포사건 ****독극물무단방류**** ***. 이건 바로 반미자주화투쟁이 범국민적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사회자 : 네, 그런데 말이죠. 이해 대중운동을 보면요 통일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성과를 이룩했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유진명 :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통일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진 건 올해의 국가보안법철폐투쟁에 각계민중이 대중적으로 지속적로 이루어진 사실에서 잘 알 수가 있죠. 아시다시피 지난 7월 21일 각계층 대중운동 단체들의 연대조직인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새로 결성됐는데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에는 지난해의 115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던 ≪국가보안법반대국민연대≫와 ≪국가보안법폐지범국민연대≫ 회원들이 하나로 합치게 됨으로서, 여기에는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인권운동사랑방 등을 비롯한 진보적인 운동단체 230여개가 참여했습니다. 이 땅에서 국가보안법폐지라는 하나의 정치문제를 놓고요 이런 많은 대중단체들의 참여 밑에 단일한 연대조직이 결성되기는 처음인데요, 그에 따라 지난해까지만 해도 분산적으로 벌어지던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이 하나의 연대조직의 지도 밑에 통일적으로 진행됐어요. **연대, 민주화실천연대협의회를 비롯한 대중단체들은요 국보법폐지를 요구하는 *** ≪국보법폐지국민서명운동≫을 광범위하게 벌였구요. 특히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을 비롯한 37개의 부산지역 사회노동운동단체들이 공동으로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열고 국보법을 대중적으로 낙인을 찍고 그래서 **의 공개방식에 기초한 국보법어기기운동 등 광범위한 투쟁을 ***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를 비롯한 통일연대조직들의 활동과 ****.

사회자 : 네 그래서 이 땅의 언론들도 시민사회단체들이 보안법폐지를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았다고 하면서 지난 군부독재시절에 ***의 발산된 보안법이 이제는 세간의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렸다고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이해의 대중운동을 결산하면서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쟁취를 위한 투쟁이 광범위하게 연일 벌어진 것도 평가돼야 한다고 봅니다.

유진명 : 네. 이해 이 땅의 노동자계급은요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강도적인 구조조정을 반대하고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연속해서 강력하게 벌였어요. 특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서로 연대해서 공동투쟁을 벌였죠. 지난 10월 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서울에서 철도노조, 전력노조, 담배인삼노조, 통신노조 소속 노동자들 4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공동결의대회를 가지고 근로시간단축, 공공부문개혁 철회, *** 해외매각철회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줄기차게 해나가기로 결의한 것 뿐 아니라, 11월 1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수천명이 부산과 광주를 비롯한 전국 14개 주요도시에서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당국의 신자유주의정책을 반대하는 연합집회를 벌였어요. 또 11월 19일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 3만여명이 구조조정을 반대하며 집회와 시위를 강력하게 벌인 것 또한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연대해서 공동투쟁을 벌인 경우는 지난 96년도의 노동악법날치기반대투쟁 이후 처음있는 일이잖아요. 이건 높게 평가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네, 노동자들과 함께 농민들도 이해 대중투쟁을 ***.

유진명 : 네 그렇죠. 최근 농민들이 벌이는 투쟁을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잖아요. 지난 11월 농민총궐기대회를 진행한데 이어 지난 12월 7일 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시군별로 농민총궐기대회를 갖고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특별법재정을 요구하면서 강력한 투쟁을 벌였죠. 그리고 12월 9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수천 명의 노동자, 농민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자, 농민의 생계보장과 국가보안법철폐를 요구하는 ≪2000년 민중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사회자 : 네, 그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통일운동의 측면을 봐도요, 지난 12월 4일 민주노동당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33개 단체가 ≪통일연대 준비위원회≫를 결성했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높게 평가되어야 할 점이라고 봅니다.

유진명 : 네, 민주노동당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33개 단체는요, 자



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지난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한 6.15선언실천을 통일연대의 사업목적으로 제시했구요. 또 통일연대의 사업으로 외세간섭반대, 자주통일실현, 통일**실현을 위한 ***, 평화체제 구축과 군비축소 및 군사훈련 반대, 국가보안법 등 **문제해결 등 6개항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통일연대회의준비위원회≫에서는 이날 북과 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2001년 새해를 맞는 민족공동행사와 6.15선언실천을 위해 민족대토론회 공동개최를 제의했죠.

사회자 : 네, 정말 이해의 대중운동을 돌이켜보면요 성과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올해 대중운동을 결산해 보면서 좀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해의 대중운동결산을 위해서 ***

유진명 : 네 이해 대중운동단체는 우리 민중의 조국통일운동에 **힘있게 벌여나갈 수 있는 **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중의 통일운동이 정세의 요구에 맞게 높이 수준에서 전개되지 못했다고 봐요. 아시다시피 지난 6월 분단역사에 처음으로 남북정상들의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것으로 민족의 통일열기는 거세게 일게 됐어요. 그래서 사회 각계층에 ** 나가기 위해서 조국통일의 기운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는데 운동단체들이 통일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투쟁조직 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통일 투쟁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보다 대중적으로 벌여나가지 못했다고 봐요. 운동단체들의 새롭게 조성된 정세에 맞게 주체의 올바른 투쟁노선을 정립하고 각계민중을 공동선언이행을 위한 투쟁으로 불러일으키지 못했거든요.

사회자 : 네, 특히 김영삼과 이회창과 같은 반통일집단이 남과 북, 해외의 온 7천만 겨레가 열렬히 환영하는 6.15공동선언을 반대하면서 반민족, 반통일 언행을 일삼고 있는데 대해서 제때에 타격을 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올해 자주민주통일운동을 위한 길에서 일정하게 범국민적 연대조직도 결성이 되고 그 지도하에 대중적인 투쟁이 벌어진 건 사실이지만요 대중운동발전의 견지에서 볼 때 각계각층 대중이 연대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대체로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진명 : 네, 옳은 지적이세요. 생존권쟁취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에 잘 나타납니다. 올해의 투쟁이 ** **됐지만은 대학생들과 각계민중이 적극 ******. 그리고 전국적인 연대조직들이 많긴 했지만 큰 역할을 묶는 면에서는 연대를 못했잖아요.

사회자 : 그리고 올해 대중운동을 결산해 보면요. 민족민주운동세력 내에서의 분파적이고 ** 것도 반드시 지적이 돼야할 겁니다.

유진명 : 그렇죠. 아시다시피 민족민주운동 세력들이 자기 ** 걸맞게 투쟁을 위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에 보면은 지난 시기 대중 투쟁에서도 잘하고 또 ***했던 한총련과 범민련을 비롯한 대중운동단체들이 내분을 범하고 서로 자기 노선만을 고집하면서, **적으로 행동하면서요, 운동대오의 단합과 대중투쟁을 **** ***. 단결로 시작되고 단결로 승리하는게 통일운동이거든요. 그러므로 민족민주운동세력이 단결을 실현하는데 응분의 노력을 다해야 투쟁에 승이해요.







사회자 : 지금까지 이 해의 대중운동을 결산하면서요, 새해 2001년에 우리 민중이 걸어나갈 대중운동의 승리를 확신해봅니다.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진명 : 감사합니다.

사회자 : 네. 지금까지 ≪2000년 대중운동을 결산해본다≫, 이런 제목으로 유진명씨 모시고 말씀드렸습니다.



≪구국의 소리≫ 방송 과 한민전의 실재 시비

한국전위조직운동사

정부당국은 ≪구국의 소리≫방송의 전파발신지가 이북에 있다는 점을 들어 한민전을 실재하지 않는 유령단체라고 몰아붙이고 ≪구국의 소리≫방송은 이북의 조선노동당이 대남적색선전을 하기위해 만든 흑색비방방송이라 주장해 왔다. 정부당국은 송신소의 위치를 북위 몇도, 몇분, 몇초, 동경 몇도, 몇분, 몇초라고 자신있게 밝히며 남한에서의 한민전의 존재를 부정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20여 년간 계속해서 송신소가 파괴되지 않고 방송이 안정되게 계속되는 것을 보면 송신소는 이북에 있는 것이 분명한 듯하다. 정부당국이 밝힌 ≪구국의 소리≫방송의 송신소 위치는 평양 · 원산 · 해주 등지이다.

정부당국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한민전이 이제까지 전혀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구국의 소리≫를 집중적으로 채록한 것으로 알려진 ≪새세대≫ 등의 자료를 보면 오히려 한민전은 그 실재를 부정하는 정부당국의 근거에 대해서 그때 그때 명확하게 해명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79년 당시 박정희정권이 ≪통일혁명당 목소리 (≪구국의 소리≫방송의 전신)를 ≪흑색방송≫이라고 비난하며 통혁당은 남한에 존재하지 않는 북한의 대외선전용 유령단체라고 주장하자 통혁당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 통일혁명당은 박독재정권이 인정하든 말든 엄연히 한국에서 출연하고 한국에 존재하며 한국의 애국민중과 함께 있는, 한국의 피압박 · 피착취 근로대중의 참다운 전위대≫라며 ≪우리 ≪통일혁명당 목소리≫방송은 투쟁속에서 태어나고 성장, 강화하는 우리 당과 함께 전진해 온 우리 당의 목소리로서 불의와 사악과 유신독재를 고발하고 통일혁명의 종소리를 힘차게 울리는 정의와 진리의 전파자이며 혁명과 투쟁의 선도자≫라고 밝혔다.(편집부 엮음 ≪통혁당≫, 대동, 1989. 226쪽)

또한 1985년 7월 27일 통혁당이 한민전으로 전화하고 동년 8월 8일 ≪통일혁명당 목소리≫방송이 ≪구국의 소리≫방송으로 개칭된 후에도 한민전은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우리 ≪구국의 소리≫방송은 자주 · 민주 · 통일을 위해 싸우는 한국민중의 전위부대인 한민전의 마이크이고 전체 애국민중의 의사와 이익을 옹호하는 대변자이다. 우리 ≪구국의 소리≫방송은 파쑈적 폭압이 난무하는 암흑지대에서 신음하는 민중에게 여명의 종소리, 정의의 종소리를 울려야 할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한민전의 전위투사들이 지하에서 피로써 내보내는 한국민중 자신의 소리이다≫라고 하면서 공식선전매체인 ≪구국의 소리≫방송이 이북의 선전매체가 아닌 ≪한국민중의 애국적 전위대≫인 자신들의 방송임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과는 관계없이 정부당국이 ≪구국의 소리≫방송을 이북의 선전용 방송이라고 규정함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으며 ≪구국의 소리≫방송이 남한내에서 청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방해전파를 쏘아올리고 있다.

남한내에서 한민전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 위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의 주장을 살펴보면 당국이 한민전을 유령단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구국의 소리≫방송의 송신소가 이북에 있다는 점 밖에 없으며 그것은 한민전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근거로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즉, 과거 ≪이스크라≫지가 러시아 국외에서 발간되어 국내로 반입되었듯이 송신소가 이북에 있다는 것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이어야 할 방송사업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을 이용할 뿐이라는 견해이며, ≪구국의 소리≫방송을 니카라과의 전위조직인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FSLN)이 소유했던 ≪라디오 산디노≫와 비교하기도 한다.

이 주장에 의하면 ≪구국의 소리≫방송이 이북에서 방송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한민전을 조선노동당이 조작한 유령단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러시아의 당기관지 ≪이스크라≫가 러시아에서 제작되지 않았다고 해서 당을 인쇄소가 있는 나라의 괴뢰조직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사실상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이다. 한민전의 활동과 애국적 전위대의 위상을 인정하는 측에서는 베트남의 민족해방전선(NLF)의 방송국이 북베트남에 있었다는 사실을 또 하나의 좋은 예로 든다. 한국사회처럼 정보기관의 감시망이 3중 4중으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정책지침과 투쟁방향을 알리는 송신소를 남한내에 설치한다는 발상 자체가 ≪애송이 짓≫이며, 송신소의 위치 여부가 방송을 주도하는 조직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은 방송 내용의 구체성과 정확성이다.

첫째는 ≪시간≫의 문제이다. 구국의 소리 방송이 북한측 방송이고 북한이 여러 경로를 통해 남한 내의 정보를 입수하여 자체 편집, ≪편성하여 방송한다고 했을 때, 북한은 외국(특히 일본)을 통해 남한의 신문이나 방송, 기사 등을 모으거나 직접 남한의 TV, 라디오 등을 수신하여 그 내용을 편집, 편성하여방송을 내보낼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사건 발생 후 방송이 나오기까지 2~3일간의 시차가 있어야 당연하나, 실제 한민전의 구국의 소리 방송 보도 내용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남한내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시위나 집회시 ≪시간적 차이≫없이 그때그때 생생한 현장감까지 곁들여 방송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것은 단지 외국이나 전파매체 수신을 통한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며 한민전의 지하 성원이 남한내에서 직접적으로 활동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것은 ≪시간≫의 문제≫보다 더 비중있게 제시하는 것으로, ≪열려 있는≫ 사회라는 점만으로 불가능한 ≪구체성≫이 구국의 소리 방송내용에 담겨있다고 주장한다. 남한내의 여러 정보들을 2차적인 방법으로 수집할 경우, 이 정보는 1차 수집자 (주로 정부 당국, 언론기관)에 의해 한번 걸러진 것임이 분명한 데도 2차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수집할 수 있으리라 믿기지 않는 상황의 설명이나 정보들도 구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X일 ㅅ대학 0동 건물에는 전지 크기의 0장의 대자보에……≫ 등의 보도(≪정책자료집≫)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제적인 예로 제시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남는 문제는 구국의 소리 방송이 과연 남한 변혁운동의 지도적 역할을 할만큼 타당한 정책지침과 투쟁방향을 제시하고 있느냐 하는 실천적 측면이다. 현재 남한변혁운동의 대오내에서 한민전의 지도를 인정하고, 그 실천적 형식으로서 방송 내용을 지침으로 삼는 대열들이 폭넓은 실체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안당국이나 민족민주운동권 내에서 공히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직접적 청취와 결합하여 항상적으로 방송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방송의 일회성을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방송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활동으로 방송 내용을 문건화하여 배포하는 작업도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그 이전 시기에도 방송의 청취는 부단히 은밀하게 소수 써클내에서 이루어졌었다. ≪남민전≫ 등 70년대 사건외에도 85년이후의 강철(김영환씨), ≪반제동맹당≫사건(86. 11발표), ≪ML주의당≫결성기도사건(86. 10), ≪남노련≫사건(87.5) 등의 관련자들이 방송을 청취해왔던 것으로 수사발표에 기록되어 있다.)

실제로 88년 이후 공안기관의 집중적인 주목과 탄압 속에서도 ≪구국의 길≫, ≪자주언론 (혁신)≫, ≪애국≫, ≪새날≫, ≪자주민주통일≫, ≪구국의 광장≫, ≪새세대≫, ≪구국의 횃불≫ 등이 꾸준히 운동대오내에 제작, 배포되고 있으며, 단체명의로도 반제청년동맹의 ≪주체기치≫, 민족해방학생동맹 준비위원회의 ≪횃불≫

등이 제작 배포되고 있다. 91년부터 활발하게 제작 배포되고 있다고하는 ≪구국의 횃불≫의 경우 그 발간사에서 한민전의 공식적 정책 발표인 구국의 소리방송의 내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작, 배포하는데 편집진의 사회정치적 생명까지 걸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운동대오 내에서 구국의 소리 방송의 내용이 문건으로 보급되고 있다는 것은 한민전 스스로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민전은 1991년의 민중운동의 향방에 대한 구국의 소리 방송의 대담시간에 1990년의 투쟁을 평가하며 청년학생들과 노동자들을 비롯한 각계 민중사이에서 이북 원전과 구국의 소리 방송의 채록물들을 교재로 만들어 배포한 사실을 들며 이를 긍정적인 일로 평가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방송을 녹취하여 제작 배포하는 추세가 늘어나는 점 자체 또한 자연발생적인 상황이 아닐 것이며 한민전의 목적의식적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하기도 한다. 이전 시기까지만 해도 일부 그룹에서 비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행해지던 방송청취가 통혁당이 한민전으로 전화한 1985년 이후 대규모적으로 공공연하게 행해졌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운동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국의 소리 방송이 운동권내에서 대대적으로 청취되고 그 지도성의 관철이 심화된 것은 87년 대통령선거 이후의 일로 보여진다. 6.29선언 이후 대통령선거에 이르기까지 격변하는 정세에 운동조직들이 갈팡질팡하고 각 정파간 노선대립이 첨예화되며, 일부 그룹들이 운동의 지도적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전위적 수준과 자격에 미달했음이 검증된데 반해 구국의 소리 방송을 통해 제시된 한민전의 정책 지침은 남한변혁운동의 기본원칙과 전략적 관점을 확고히 견지했다는 평가가 대두되면서 방송청취 열기가 대폭 확산되었던 것이다.

친애하는 동포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모든 해외교포여러분.

방금 우리는 통일혁명당 목소리 방송의 역사적인 개국을 알리는 장엄한 첫 개주악을 전 세계에 울려 보냈습니다.

마냥 격동하기만 하는 감격적인 이 순간 우리는 매국악당을 박멸할 내일의 전인민적 반미구국투쟁을 그려보며 지나온 투쟁의 험난했던 노정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혁명의 탁월한 영도자이신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높이 받들고 한국혁명을 향도할 독자적인 혁명적 당을 창립하기 위해 우리 혁명동지들이 통일혁명당의 지방조직을 결성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또한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를 조직하고 당으로 하여금 전국적 인민운동을 긴밀하게 지도할 전일적인 당으로 발전시키고 존엄과 광명을 만방에 선포한지도 근 1년이 됩니다.

준엄하고도 간고했던 투쟁의 나날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혁명동지들도 빼앗겼고, 또 동지들이 흘린 피로 붉게 물든 혁명의 기치를 치켜들고 한국인민운동사상 길이 빛날 찬연한 종적도 쌓아 올렸습니다.

통일혁명당 목소리 방송을 개시하는 이 엄숙한 시각에 우리는 우리 당 창건자의 한 사람이며 당의 강화발전을 위해 자기의 온 생애를 바쳐 용맹하게 싸운 열혈의 혁명가이며 심장의 고동이 멎는 생애의 최후순간까지 수령께 무한히 충성한 불굴의 혁명투사이며 우리의 가장 귀중하고 친근한 혁명전우인 김종태동지를 비롯한 수많은 혁명열사들을 경건한 마음으로 회상하면서 충심으로부터의 경의를 표합니다.

조직을 세우고 투쟁을 조직하는 지하혁명활동의 그 간고한 나날에 우리는 당의 견해를 대변하며 당의 의도를 신속 정확히 내외에 천명할 수 있는 방송과 같은 유력한 대중선전수단을 가질 것을 얼마나 열망해왔던 것입니까. 우리의 이 간절한 염원은 헌신적인 당원동지들의 피어린 투쟁과 전체 인민대중의 전폭적인 지지성원의 결정으로써 오늘 이렇게 실현되었습니다.

주체의 전파 그 자랑찬 행로

구국의 소리 6월 1일

≪구국의 소리≫ 방송이 걸어 온 31년, 그 길에는 애로와 난관도 많았지만 보람차고 자랑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양정아씨, 오일씨, 고일철씨 세분 얘기 들으시겠습니다.

양정아 : 안녕들하십니까.
오 일 : 안녕하세요.
고일철 : 안녕하세요.
양정아 : 6월 1일은 우리 한국민족민주전선의 ≪구국의 소리≫ 방송이 첫 전파를 날린 때로부터 31해가 되는 뜻깊은 날인데요. 이날을 맞아 방송편집국 집단은 우리 ≪구국의 소리≫를 아껴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시면서 경청해오신 애청자여러분과 각계민중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개국일을 맞으면서 우리 ≪구국의 소리≫ 방송이 민중과 함께 걸어온 자랑찬 노정을 돌이켜봤으면 해서 이렇게 여러분 함께 모셨는데요. 오일씨 먼저 말씀 좀 주세요.
오 일 : 예, 우리 ≪구국의 소리≫ 방송이 이 지구상에 첫 전파를 날린 때로부터 어느덧 3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정말 그때를 돌이켜보면 감개무량합니다. 당시 한국민중의 애국적 전위대인 한민전이 자기의 막중한 사명을 다하려면 무엇보다도 자기의 목소리를 대변할 대중선전매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전성원들의 고심어린 노력과 각계민중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밑에 ≪구국의 소리≫ 방송이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인 70년 6월 1일에 자기의 첫 전파를 날릴 수 있었죠.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31해는 정말 간고하면서도 보람찬 나날들이었는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 방송이 무한한 흥분과 감격 속에 첫 전파를 날린 그 날의 개국사 한 대목을 듣고 얘기를 계속하면 어떨까요.
양정아 : 네, 좋습니다.

고일철 : 정말 감격스러웠던 역사의 순간이었다고 봐요. 그때는 우리 방송의 전신인 ≪통일혁명당 목소리≫였잖아요. 이 ≪통일혁명당 목소리≫가 첫 전파를 날리던 그때 말이죠, 하루 2시간씩 방송해드렸구요. 점차 시간을 늘려 오다가 85년에 통혁당이 한민전으로 개편하면서 이에 따라서 방송도 ≪구국의 소리≫로 했고 방송시간도 하루 10시간씩 하다가 지금은 16시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방송의 역사적 개시는 한민전성원들은 물론이고 진정한 주체의 목소리를 기다려온 각계민중들에게 불패의 신념을 안겨주는 여명의 타종, 투쟁의 등대로 되었고 미국의 식민지통치와 그 하수인들에게는 불안과 공포를 주는 정말 위력한 포성, **폭탄으로 되었어요.
양정아 : 네, 역대위정자들은 우리 방송이 주체의 전파를 날린 첫 날부터 그 영향력을 막아보려고 갖은 방해책동을 다 했잖아요. 뭐 전파방해를 한다, 그 어디에 제소를 한다, 흑색방송이다 뭐다 하면서요. 하지만 우리 방송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기의 민족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헌신분투해왔습니다. 각계민중을 의식화, 조직화해서 대중운동의 강력한 주체를 마련하고 자주, 민주, 통일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선전조직자로서의 중임을 유감없이 수행해 왔죠.
오 일 : 네, 지난 31년 간 우리 방송은 민중의 앞길을 밝히는 등대로, 투쟁의 길잡이로 민중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친근한 동반자로서의 자기 중임을 다 하기 위해서 헌신해왔죠. 무엇보다도 ≪구국의 소리≫ 방송은 대중을 자주의식화하는데 일차적인 주목을 돌렸어요.

시대의 향도이념인 주체사상으로 한민전성원들과 각계민중을 정신무장시켜 왔고요. 특히 청취자들의 한결같은 요구를 수렴해서 온 겨레가 높이 모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을 알리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왔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향각지의 각계민중들 속에서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경모심이 더욱 강렬해지고 있는 것도 우리 ≪구국의 소리≫ 방송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고일철 : 그리고 지난 31년 간의 노정을 돌이켜보면 말이죠. 명실공히 한민전의 선전매체로서 한민전의 정책전반과 활동선전을 충실하게 해왔어요. 한민전의 입장과 주장을 내외에 신속히 알리며 한민전산하 각급 조직들의 활동상황도 널리 소개했어요. 그리고 급변하는 정세추이에 따라 한민전의 입장과 견해를 밝힌 성명서 등과 ***, 백서, 호소문, 투쟁구호를 비롯한 정치문서를 즉시에 보도했고 그걸 꾸준히 해설했어요. 이와 함께 우리 방송은 민중의 대변자로서 뿐만 아니라 역사의 증견자, 준엄한 심판자로서 시대앞에 지닌 소임도 착실히 해서 청취자들의 믿음과 신뢰, 사랑과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양정아 : 그렇죠. 그리고 우리 방송은 주체적 시각에서 한국사회의 제모순과 부정, 불의를 예리한 목소리로 파헤쳐 왔고 미제와 일본반동들, 역대파쇼집단의 온갖 죄행을 만천하에 낱낱이 고발하고 단죄해 왔잖아요. 이렇게 사회의 공기, 시대의 목탁이 되어서 민중을 정의의 진리로 깨우치고 그들의 심장 속에 투쟁의 불씨를 심어 주었고 또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었죠. 이 같은 언론활동을 통해서 미제와 그 식민지파쇼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고 봐요.

이 같은 몇가지 사실을 봐도 우리 방송은 시대앞에 지닌 중임과 국민의 기대에 유감없이 보답해왔다고 자부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구국의 소리≫ 방송이 걸어온 노정은 민중과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영광찬 31년이었고 또 민중과 함께 싸워온 자랑찬 투쟁의 나날이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고일철 : 그렇죠. 우리 ≪구국의 소리≫ 방송은 말이죠. 각계애국민중의 투쟁을 내외에 전파하는 것을 자기의 주요사명으로 삼고 언제나 민중과 생사고락을 함께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방송은 주체의 전략전술을 알려드리는데도 정말 시간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각자, 운동가들에게 투쟁의 양식이 되고 각계민중의 대중운동이 편차없이 주체의 궤도를 따라서 전진할 수 있도록 투쟁향방을 제때에 제시했고 국민의 운동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또 투쟁의 광장에서 울려 나오는 자주, 민주, 통일의 함성에 우리 ≪구국의 소리≫를 합쳐서 각계민중의 투쟁을 고무했어요. 우리 방송은 각계민중과 어깨 겯고 70년대의 가열찼던 반파쇼민주화투쟁의 광장에도 함께 서 있었고 80년대 이 땅에 반미자주화의 열풍을 안아왔고 겨레의 통일대행진에도 언제나 발걸음을 함께 해 왔습니다.

오 일 : 동구권 사회주의의 좌절로 세계가 방황하고 반동적인 사상공세가 강화되던 때에도 이 땅에서는 반공의 보루가 무너지고 주체사상이 급속히 보급전파되었죠. 그리고 운동세력에 대한 파쇼당국의 탄압과 운동의 개량화, 무력화 책동이 악랄하게 자행되고 있는 여건에서도 운동가들은 조금도 동요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힘있게 벌여왔고 민족민주운동이 주체의 궤도를 따라 전개되고 있는 건 결코 우연한 게 아니죠.

양정아 : 네, 그건 바로 우리 ≪구국의 소리≫ 방송이 민중의 앞길을 밝히는 등대, 투쟁의 길잡이로 시대와 역사앞에 지닌 자기의 소임을 유감없이 수행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 한데서 비롯된 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 일 : 그래서 우리 ≪구국의 소리≫ 방송이 각계민중들로부터 아낌없는 찬사와 격려를 받고 있는 거죠. 각계민중들 속에서는 ≪구국의 소리≫ 방송을 청취하고 그 지도성을 인정하며 따르는 대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각계민중이 우리 방송을 얼마나 애청하고 있는가 또 자주, 민주, 통일운동에서 우리 방송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거죠.

고일철 : 그리고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민중들 속에서 우리 방송을 듣고 그 내용을 채록한 책자와 선전물들이 각지에서 다량으로 제작되어 배포되고 있는 걸 통해서도 우리 ≪구국의 소리≫ 방송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웅변으로 보여준다 하겠죠. 이런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우리 ≪구국의 소리≫ 방송 편집국집단은 여기서 자기활동의 보람과 긍지, 그리고 자기 책임감을 더욱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6.15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된 새로운 환경에 걸맞게 각계민중을 공동선언이행 관철에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로 고무하는 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양정아 : 우리 ≪구국의 소리≫방송이 걸어온 지난 31년 간의 노정은 그야말로 민중 속에 뿌리내려 민중을 각성시키는 선전교양자적인 역할뿐 아니라 대중을 결속시키고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선도해 온 조직자적 역할도 수행해온 자랑찬 나날들이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 일 : 네, 그에 관해 한마디하면요. 지난 80년대 중반 이후 각계에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각계층 민중의 조직들이 수많이 생겨났어요. 그 조직들의 대다수가 지도이념이 주체사상이고 행동강령과 투쟁구호들도 한민전과 맥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건 결코 우리 방송의 역할과 무관한 게 아니죠. 이렇게 보면 ≪구국의 소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주체형의 투쟁조직들의 결성에 크게 기여한 말하자면 산파역할을 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고일철 : 옳은 말씀입니다. 때문에 역대 파쇼당국은 우리 방송의 영향력을 막아보려고 갖은 책동을 다해왔죠. 심지어 우리 방송 청취자들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체포투옥하는 파쇼폭거를 자행해 왔고 지금도 계속하고있죠. 그러나 그들은 그 어떤 방해책동과 탄압으로도 결코 주체의 전파, 우리 ≪구국의 소리≫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양정아 :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방송이 개국의 첫 전파를 날린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영광된 길을 걷게 된 건 각계민중이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구국의 소리≫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 고견과 **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 한민전의 ≪구국의 소리≫ 방송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민중여러분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의 의사를 대변해서 또 시대의 요청에 부응해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성전에로 우리 한민전성원들과 각계민중을 힘있게 고무하는 진격의 나팔수, 여명의 종소리로 더욱 세차게 울릴 겁니다. 아울러서 각계민중여러분도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우리 방송을 더 많이 들어주시고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 각방의 후원을 보내주시리라 굳게 믿으면서 다시 한번 애청자여러분께 본 방송 편집국의 이름으로 충심으로 되는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오 일 : 감사합니다.

고일철 : 감사합니다.



인터넷 구국전선

- 한민전 / NDFSK
- 한민전 중앙위 최근 소식
- 구국전선 (국문판)
- 구국전선 (출력판 -HWP-)
- 한민전 중앙위 주요문헌
- **추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노작**
- **추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노작**
- 참고자료
- 동영상 / 음악 / 사진편집물
- 편지





시사레포트 (한민전 평양대표부)
hwp파일 자료모음
<구국의 소리> (hwp파일)
<통일여명> (hwp파일)
<6.15주간> (PDF 파일)



외세가 없는 자주화된 사회, 민중이 주인된 민주화된 사회, 겨레가 하나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해 헌신분투하시는 한국의 전위투사들과 민중 여러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향도이념으로 하는 한민전은 이 땅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싸우시는 애국민중 여러 분의 앞길을 밝히는 등대가 되고 투쟁을 이끄는 선봉대가 되며 생사를 함께 하는 동지가 될 것입니다.

충신, 전위투사 김종태동지

진정철 / 인터넷 구국전선 8월 21일



≪인생은 운명의 장난이나 농담도 아니며 행복이란 그 어떤 황금이나 명예도 아닙니다.
살아도 수령님을 위해 살고죽어도 수령님을 위해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관이며 행복관입니다.≫

이 말은 한민전의 전신인 통일혁명당 서울시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종태동지가 늘 동지들에게 하던 말이다.

전위투사 김종태동지의 인생관과 행복관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뜻깊은 말이라 할 수 있겠다.

김종태동지가 파쇼교형리들에게 희생된지 32년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한민전의 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 그를 경건한 마음으로 추억하고 있다.

1926년 경상북도 영천군 금호면 냉천동의 빈농가에서 출생한 김종태동지는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시기 백두산에서 조국광복의 횃불을 높이 올리신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무한히 경모하면서 청년학생들 속에서 반일애국사상을 고취했다.

8.15광복후에는 미국과 그 주구들의 민족분열이간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참가했다.

1965년부터 직업적인 혁명가로 나선 김종태동지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혁명사상으로 투철히 정신무장하여 **김일성**주의자로 살며 혁명하는 것을 인생의 총적 목표로, 철석같은 신념으로 삼았다.

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국애족의 위업에 한몸을 깡그리 바칠 수 있은 것은 다름아닌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주체사상을 신념화한데 있다.

김종태동지는 언제나 동지들에게 **김일성**주석님은 불세출의 영웅이시고 민족의 태양이시라고, 주석님을 따르는 길에 우리 민중의 자유와 행복, 민족의 무궁번영과 조국통일이 있다고 말하곤 했다.

김일성주석님은 김종태동지에게 있어서 마음의 기둥이었으며 인생의 전부였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그의 희망의 등대였고 확고한 신념이었다.

하기에 그는 주석님의 저서들을 입수하면 밤을 지새면서 탐독했고 그 이념대로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기 위해 원수들의 광란적인 반동공세를 뚫고 서울을 비롯한 대구와 목포 등 경향각지를 전전하며 투쟁을 벌이었다.

영광찬 투쟁의 나날 그는 전우들과 함께 64년 3월 통혁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했으며 ≪창당준비선언문≫을 채택했다.

또한 ≪조국해방전선≫, ≪민족해방전선≫과 그 산하에 ≪60년대학사회≫, ≪새문화연구회≫, ≪청년문학가협회≫, ≪불교도청년회≫, ≪동창회≫, ≪청맥회≫, ≪민족주의연구회≫, ≪학사주점≫ 등 각종 합법, 비합법 대중단체들을 조직하여 민중을 반미, 반파쇼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이끌었다.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혁명적 낙관에 넘쳐 싸우던 김종태동지는 불행하게도 1968년 파쇼교형리들에게 체포되었다.

그러나 그는 감옥과 법정을 새로운 투쟁무대로 삼고 강의한 의지와 철석같은 신념으로 견결히 싸웠다.

그는 그 어떤 회유와 기만, 가혹한 고문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았고 불같은 항변으로 파쇼교형리들을 질겁케 했다.

69년 7월 10일 형장으로 향하면서 김종태동지가 남긴 말은 오늘도 귓전에 쟁쟁하다.

≪…동지들, 밤이 깊으면 새날이 밝아옵니다. 원수들의 머리위에 통일혁명의 여명이 비꼈습니다. 인간의 참된 사상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장군님의 기치, 주체의 기치를 더 높이 들어주십시오. 동지들, 노래를 부릅시다.≫

이것은 김종태동지의 심장의 외침이자 마지막 유언이다.

실로 김종태동지의 한생은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고 어버이이신 **김일성**주석님의 뜻을 받들고 민중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한국변혁운동의 길에 바친 충신의 고귀한 한생이었고 사람이란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보여준 참된 인간의 고귀한 삶의 한생이었다.

그가 우리 곁을 떠난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오늘도 영생하는 모습으로 한민전대오의 맨 앞장에서 한국의 애국민중을 자주, 민주, 통일애국의 길로 힘차게 이끌어주고 있다.

김종태동지가 바라던 대로 오늘 우리 애국민중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하고 있으며 경향각지에서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힘차게 울려퍼지고 있다.

한민전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박남수 / 인터넷 구국전선 8월 21일

8월25일은 한민전(전신 통혁당)창립 32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이날을 맞는 우리 한민전성원들과 애국민중은 영광의 창당사와 더불어 한민전의 빛나는 역사를 감회깊이 돌이켜 보고 있다.

광복후 이남에서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아래 수많은 대중운동이 벌어졌으나 애국민중의 투쟁에서 닻을 올리고 키를 잡을 조타수, 변혁운동의 전위부대가 없었던 탓에 실패와 우여곡절을 면할 수 없었던 피의 교훈을 남겼다.

바로 이러한 때인 61년 9월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4차대회에서 이남에서 광범위한 민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전위당창건에 관한 사상과 방침을 내놓으시었다.

김종태, 최영도, 김질락, 정태묵, 윤상수 등 변혁운동의 선각자들은 주석님의 전위당건설방침에 따라 64년 3월15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서 모임을 갖고 통혁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창당준비위원회는 결성 첫날부터 정력적인 활동을 벌여 주체사상에 투철한 수많은 당원들을 키워냈으며 서울시와 전라남도, 경상북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당조직을 내오고 대중투쟁을 능숙하게 이끌었다.

창당준비위원회는 투쟁 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투사들을 중핵으로 하여 당대열을 부단히 늘렸으며 당의 조직적 지반을 튼튼히 닦아나갔다.

이러한 조직사상적 지반위에서 69년 8월25일 역사적인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를 결성하고 창당과 당의 선언과 강령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했다.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통혁당의 창당으로 한국변혁운동은 자기의 위력한 정치적 참모부를 가지게 되었으며 애국민중은 자기 이익의 참다운 옹호자, 대변자를 가지게 되었다.

그후 통혁당은 한국변혁운동과 당자체발전의 요청에 따라 한민전으로 개칭되고 보다 대중적인 전위조직으로 강화발전되었다.

한민전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이남민중의 지향과 의사의 체현자이며 애국적 전위대이다.

한민전은 이 땅에서 미국의 식민지통치의 청산과 민족자주정권의 수립을 기본강령으로,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의 통일을 민족민주운동의 총적 좌표로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해 왔다.

한민전은 노동자, 농민을 위시한 각계각층 민중을 주체사상으로 의식화, 조직화하여 변혁운동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전력을 다해 왔으며 반미자주화투쟁에 주력하면서 반파쇼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밀접히 결합시켜 하나의 통일적 과정으로 힘있게 벌여 왔다.

한민전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 이 땅에서는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기운이 막을 수 없는 민심추향으로 전환되고 주체사상으로 투철히 정신무장한 주체형의 애국적 전위투사들, 운동핵심들이 무수히 자라났다. 또한 한민전의 지도와 영향으로 자주적인 투쟁조직들이 수많이 결성되고 변혁운동대오는 질량적으로 급속히 확대강화되었다. 한민전의 영도밑에 자주, 민주, 통일운동이 확고한 조직적 기반위에서 날이 갈수록 더욱 대중화, 활성화됨으로써 한국변혁운동은 승리의 종착점을 향해 확신성있게 전진하고 있다.

한민전은 출범 첫날부터 지도이념이 위대하고 목적이 숭고하며 투쟁에서 견결한 것으로 하여 광범위한 국제사회계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으며 세계 수십개의 당 및 단체들과 공식관계를 가지고 강력한 유대를 펴나가고 있다.

한민전은 오늘 내외원수들의 온갖 탄압책동속에서도 좌절되지 않고 한국민중의 애국적 전위대로서의 자기의 역사적 소임에 충실하고 있다.

한민전의 위업은 정당하며 필승불패할 것이다.



8월의 아침에

한국전위조직운동사

녹음이 우거진 8월의 아침
가슴에 손을 없으며 뜨겁게 불러본다.
한국민족민주전선 그 이름 부르며 부푸는 가슴에
희망과 용기 싸우는 보람을 가득히 안아온다.
애국애족에 불타는 하나의 이름
새벽이슬 맞으며 총검의 숲을 헤치며 하나 둘 마주잡은
뜨거운 손들이 피어린 시련의 날과 달을 넘어
드디어 21년 전 이날 온 세상에 창당을 선포한 한민전
어두운 이땅에 새날을 부르며
영광에 찬 주체의 항로를 꿋꿋이 열어온
싸우는 한국민중의 전위대여!
그대 언제부터 이 가슴에 이처럼 튼튼히 자리잡고
거세게 일렁이고 있는 것인가
하시절 싸우는 거리에서 신심을 주는 사람들을 통해
내 처음으로 그대의 모습 눈동자에 담았고
내 그대의 목소리 구국의 소리를 들으며
주체의 양식 받아안고 인생의 항로 찾았으며 서야 할 좌표를 찾았다.
내 그대의 목소리 따라 외치며
나의 삶이 무엇 위해 필요하고
어디에 바쳐져야 하는가를 배웠도다
한민전 성원들이 반미애국의 전위투사 열렬한 애국자들임을 깨달았다 아! 한민전
억센 손들을 들어 나를 성원으로 받아줄 때
나는 서약을 했다
다시 올 수 없는 마지막 길을 가면서도
위대한 태양을 향해 미소를 보낸
김종태, 최영도 동지들처럼 살리라고
내 싸우다 싸우다 쓰러진대도 영원히 꺼질 줄 모르는
심장의 숨결을 그대 한민전
내 조직과 끝까지 함께 하리라고
아! 그 품에서 그 이름과 함께
내 삶을 빛내임은 얼마나 큰 자랑인가
그 때문에 아! 그 때문에
주체의 빛발 아래 빛나
자주 · 민주 · 통일의 한길로 억세게 걸어온 한민전
그처럼 빛나고 그처럼 자랑스럽게 간직된 것이오니
8월 25일 역사의 날에 높이 외친다
싸우는 한국민중의 전위대 주체의 기치 따라 나가는 한민전
기어이 승리하리라 정의와 진리의 투쟁에서
기어이 안아오리라 자주 · 민주의 새봄 통일의 새아침을
햇빛 밝은 삼천리강산 하나의 꽃물결로 일렁일 때

나는 한민전 전위투사다

박홍준 / 햇살들의 노래

아직은
아내도 모르게
아이들도 모르게
나 혼자 입 속으로 속삭이는 말
– 나는 한민전 전위투사다! –
그래 나는 한민전 전위투사야
생활세파에 부대끼는 뭇 인간이 아니라
저항으로 생존하며 세상을 변혁하며
죽음의 정글에도 웃으며 뛰어드는
용맹한 사자야! 불굴의 투사야!
활짝 가슴 열고
정의의 열풍을 호흡하며
스스로 나선 이 길은
민중의 염원이 깔린 길
시대의 지향이 뻗은 길
나는 그대로 번뜩이는 보습
독초투성이 이 사회의 풍토를
여지없이 가차없이 갈아 번지고
늠실늠실 일어서는 민주의 이랑 따라
자주의 알찬 씨알 심어나가고…
나의 열정은 불붙는 활화산
민심을 거역하는 자에 한해선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그가 대통령이든
≪화이트 하우스≫의 코 큰 어른이든
몸으로 부딪히며 분노를 폭발한다
그 더러운 몸뚱이에 불을 지피고
한줌 잿가루로 뿌려 던지련다
나의 신념은 펄럭이는 깃발
이 바람 저 바람에 덥석 안기는
매춘부의 엷은 치마자락이 아니라
평양의 주체사상탑 봉화를 향해서만
의젓이 미소 지으며 일어서는
아 노을처럼 고운 깃발
그래서가 아니냐
호화와 사치로 질벅한
명동의 밤거리에 침을 뱉으며
산비탈 달동네를 찾아가는 이 가슴에
민중을 하늘처럼 여기신
김주석님 회고록이 간직돼 있는 것은…
진정 그 때문이 아니냐
유인물 살포의 길에서
머리 위에 떠오른 아침해가
아 이 마음엔 온통
대견하여 나를 굽어보시는
김정일영수님 모습으로 안겨오는 것은
더 이상 바랄 것 뭐 있으랴
높은 연봉도 필요 없고
화려한 명예도 필요 없고
묵직한 훈패도 필요 없고…
나에게 목숨만큼 절실한 것은
자주! 민주! 통일!
이 셋을 합쳐
아 승리의 노래로 부르는 그날
아내도 모르게
아이들도 모르게
심장 속 깊숙이 보물처럼 묻어 왔던
이내 신분 당당히 드러낼 거야
매스콤에도 전하고
역사가들에게도 말하고
친지혈육 이웃은 물론이요
온 세상 천지 앞에
≪나≫라는 존재를 공개할 거야
김정일태양계의 남쪽 하늘에
가장 크고 찬란한 제일위성
– 나는 한민전 전위투사다! –



사랑의 진리

애국시대

회의는 청와대가 서두르고 있는 한일간의 매국흥정을 저지시키기 위한 대중투쟁을 중시하고 본 조직이 이 투쟁을 의욕적으로 이끌어 줄 것과 ≪혈맥(血脈)≫이라는 제호를 단 합법적인 대중교양잡지와 당내 교양지 ≪민주전선≫을 간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출판물들의 편집임무는 홍엽이와 인규에게 맡겨졌다.

장호는 조용한 쇳소리로 창당결의서를 발표했다.

그들이 결의한 당의 투쟁목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1. 미제국주의 식민지통치의 철폐와 민족자주적인 민주정권의 수립

2. 매판적 독재체계의 소탕과 사회정치생활의 민주주의화 실현

3. 민주적 토지개혁의 실시와 농어촌 빈궁 일소

4. 중요산업의 국유화와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5. 민주적 노동법령의 실시와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처지의 개선

6. 여성들의 권익보장과 사회적 지위향상

7. 민주적 민족문화의 창달과 지식인들의 생활보장

8. 교육의 쇄신과 청소년들에 대한 무료교육제 실시

9. 선진적 보건제도 확립과 무료치료제 시행

10. 자위적 민족군대의 창설

11. 자주외교의 구현과 반제 평화애호 국가들과의 우호증진

12.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성취

문건들을 전원일치로 가결한 그들은 차례로 돌아가며 결심이나 소감 같은 것을 짤막하게 말했다.

모두들 신중하게, 훌륭하게 말했다. 값없이 꺼져 버릴 수 있었던 자기의 생이 위대한 사업에 바쳐지게 된 행복한 의미에 대하여, 폭압자의 칼이 목에 들어와도 동지들을 배반하지 않을 결심에 대하여 말했다. 혹은 현 시대의 가장 참혹한 수난자들인 한국민중을 구원하기 위한 이 투쟁에서는 실패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씻을 수 없는 죄악이며 오직 강력한 당을 꾸려 투쟁에서 승리하는 그 때에만 민족의 아들된 도리를 지킬 수 있다고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누구나 힘이 되고 추억에 남을 말을 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나 자기들이 입 밖에 낸 고백은 심중에 무겁게 파도치고 있는 결심과 근심, 열정과 괴로움 같은 것이 복잡하게 뒤섞인 상념의 바다에 떠오른 한줄기 흐름에 지나지 않으며, 엷은 안개사이로 희끗거리는 그 검푸른 바다를 언어로 옮긴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임을 느끼고 있었다.

홍엽의 생각도 착잡하고 무거웠다. 처음에는 장호와 동지들의 사색하는 힘과 열정에 취하기도 하고 그 자신도 투지와 지혜를 토로하면서 스스로도 흡족했다. 그러나 논의가 깊어져서 어렵고도 엄청난 과제가 낱낱이 밝혀지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점에서 자신의 좌표를 재인식하게 되자 모든 것의 색조가 달라져 토였다. 그는 병사로서 자욱한 연기 속에 총포성이 울리는 음산하고 무시무시한 전투장에 들어서는 것만 같았다.

조직과 동지들은 그의 손에 무엇인가 값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보물을 들려주면서 그것을 삼엄한 적진 너머에서 학수고대하고있는 민중에게 기어이 가져다주라고 당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가야 할 길에는 총포로 뒤덮인 압제자들의 진지가 겹겹으로 가로막고 있었다. 그래도 돌파해야 한다. 그것은 생의 첫 길에 들어서면서 환희와 애수를 동시에 느끼던 소년시절부터 가슴 속에 자라난 고상한 일에 목숨을 바치고 싶던 그 소원의 연장선상에 맹렬히 타오른 열망이었다. 하지만 그가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담보는 없었다. 만약 중도에 쓰러져서 원쑤들에게 목숨보다 소중한 그 보물을 빼앗기기라도 한다면?…생각만 해도 살이 푸글거리고 심장이 쿵당거렸다.

모든 조직원들이 동료들의 말을 들으며 제가끔의 생각에 잠겨있을 때 장호가 회의를 끝내기에 앞서 자기도 몇 마디 하겠다고 하면서 입을 열었다.

≪얼마 전에 전라도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 동지가 나에게 말하기를 ≪진리란 근로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빛나게 만들어 주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신통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깨우치고 정신의 보배를 찾아 주어 힘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생존환경을 개조하여 근로하는 모든 사람을 가장 자유롭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는 그런 사랑을 주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투쟁이고 당을 창건하는 목적입니다.≫

장호는 가느스름한 눈길로 동지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힘을 뻗치면 담벼락도 단매에 허물 수 있는 자기의 크지 않은 손을 가볍게 흔들기도 하면서 부드럽게 말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진리를 세상에 편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장호는 숱진 눈썹을 찌푸리고 울분과 애섧은 빛이 엉킨 눈으로 천장구석이며 작은 창문 너머의 푸른 하늘조각을 쏘아보기도 하면서 절절하게 말했다.

≪사랑의 진리를 펴는 사람은 자아를 희생해야 합니다. 역사를 돌아보시오, 민중의 영웅들이 누리는 영광은 그들이 아낌없이 쏟은 피땀과 눈물에서 피어난 꽃입니다. 스스로 노예이기를 거부하고 동료노예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반항의 기치를 든 노예투사들의 운명이 어떠했던가?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 농민전쟁의 기수들이 어떻게 되었던가? 그들의 대부분은 시체도, 무덤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칼과 단두대, 화형와 불길과 형틀을 넘어선 영웅은 드물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의 죽음의 행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맑스주의자, 각국의 공산주의자들이 걸어온 길은 또 어떠했던가! …자연의



통일혁명당

강과 함께 피눈물의 강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이따금 사람의 피는 왜 붉은 빛일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열사들의 분노와 원한이, 그리고 후손들에게 남긴 혼신의 외침이 그렇게 붉은빛으로 우러나는 것이 아닐까요? ≫

≪…우리 나라에서 민중에 대한 가장 큰사랑의 위업을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분은 우리의 **김일성**장군님이십니다.≫

장호는 장군님의 초상화를 조금 앞쪽으로 당겨 놓았다. 모두의 눈길이 초상화에 쏠렸다. 장호는 마디마디 감동적으로 이야기했다.

≪장군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헤쳐오신 혁명의 길은 상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형극의 길이었습니다. 어데로 가시거나 왜놈의 천지인데 사지판에 내몰린 망국의 백성들은 그분께 몰려들어 구원을 부르짖었옵니다. 천신만고하여 일으키신 유격대는 아직 청소한데 적의 수만, 수십만의 대병력은 사면팔방에서 밤낮으로 달려들지, 거기에 대륙의 겨울추위는 또 어떠했겠습니까. 일찍이 아버님을 여의신 장군님께서는 어머님의 부고마저 때늦게 받고 분묘 앞에서 피눈물을 삼키셔야 하셨습니다. 동생과 삼촌도 전사하셨습니다. 희생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천금같은 유격대원들이 적탄에 쓰러지고 근거지에서는 숱한 남녀노소가 적의 기습과 굶주림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니 장군님의 괴로움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어느 역사에 한 인간이 이렇게도 무거운 고통의 짐을 안고 견뎌 낸 일이 있었습니까…≫

장호는 목소리가 흐려지고 있었다. 그의 심정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옮겨져서 숨소리들이 거칠어지고 있었다. 장호는 계속했다.

≪그러나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그 형언할 수 없는 역경 속에서도 전사들과 민중에게 주실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구천에 사무친 민족의 원한과 분노를 모아 기어이 강도 일제를 타승하시고 조국을 광복하셨으며 이북땅에 민중의 낙원을 펼쳐 놓으신 것입니다.

≪동지들, 세계제국주의의 두목인 미제와 야수적인 매판세력과 대결하게 된 우리는 어차피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혁명은 세대를 이어가며 반드시 승리하겠지만 우리들 제1대는 희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생명을 성급히 모험할 권리는 없습니다.≫ 장호는 주먹을 들어 허공을 연거푸 때리며 말했다. ≪나는 강조합니다. 누구나 생명은 제일 마감에 바쳐야 합니다. 그전에 자기의 충성, 지혜, 열정, 재산, 모든 유용가치를 깡그리 민중에게 바칩시다! 그런 다음 이제는 붉은 피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이 확실해진 그때, 그때에는 생명까지 통쾌하게 바칩시다!…

나는 자신과 동지들에게 이 말을 잊지 말자고 호소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당은 남을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영생이 있습니다!…≫

모두가 자리를 차고 일어나 한덩어리가 되어 부둥켜안았다.

열기오른 얼굴들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회의는 지하 서울시 당위원회를 조직하고 이 위원회가 앞으로 통일적인 당을 창건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모두의 제의에 따라 김장호는 조직의 위원장으로, 다른 동지들은 위원으로 되었다.

. .



통일혁명당원들의 숭고한 애국심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비망록(대변인 보도 1호)



오늘 8월 25일은 통일혁명당이 창건된 지 32돌이 되는 날이다.

이 날을 맞이하며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한국변혁의 참모부인 통일혁명당의 역사적인 창건일을 뜻깊게 기념하는 한편 당 창건과정에서 미제국주의와 파쇼독재자에게 학살당한 김종태동지를 비롯한 통일혁명당원들의 숭고한 애국적 삶과 투쟁을 심장으로 회상하게 된다.

주지하는 바, 통일혁명당은 한국민중의 애국적 전위대인 한국민족민주전선의 전신으로서 1969년 창건되고 내외에 공인된 한국변혁의 참모부였다.

통일혁명당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을 수위에 높이 모시고 영광스런 항일무장투쟁사를 혁명전통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는 한편 한국에서 미제의 식민통치를 전복하고 민중민주주의정권수립과 자주적 평화통일을 당면과업으로 한 한국민중의 참다운 향도자였다.

서울의 김종태동지, 전라남도의 최영도동지 등을 중심으로 1960년대 내내 당창건의 조직사상적 기초를 축성하던 통일혁명당의 전위투사들은 김종태동지를 비롯한 일부 성원들이 박정희 군사깡패의 파쇼탄압으로 인하여 학살되는 시련을 극복하며 기어이 역사적인 당창건위업을 달성하였다.

통일혁명당의 창건은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의 혁명사상과 당건설전략의 위대한 승리이며 통일혁명당원들의 헌신과 분투의 빛나는 결실이다.

자주시대의 향도이념인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삼고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한 광범한 애국민중 속에 깊이 뿌리박은 통일혁명당이었기에 그 이후에도 박정희파쇼도당의 가혹한 탄압만행으로부터 조직을 보위하고 강화할 수 있었으며 마침내 주객관적 정세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1985년 7월 27일 한국민족민주전선으로 전화발전할 수 있었다.

통일혁명당이 창건된 직후 개국된 대외 방송기관지, ≪통일혁명당 목소리≫방송은 이후 ≪구국의 소리≫방송으로 개칭되며 위대한 주체사상을 해설선전하는 사업, 객관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투쟁방향을 정확히 제시하는 사업을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오늘 한국변혁운동가들 사이에서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

미제국주의, 군사파쇼도당과의 간고한 변혁투쟁의 나날 혁명전위로서의 역할을 빛나게 수행하며 불굴의 활동을 전개한 통일혁명당원들의 삶과 투쟁은 오늘도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의 마음 속에 생생히 살아 있다.

통일혁명당 창건을 눈앞에 둔 1969년 7월 10일, 형장으로 향하면서 김종태동지는 다음과 같은 혁명적 유언을 남기었다.

≪…동지들, 밤이 깊으면 새날이 밝아옵니다. 원쑤들의 머리위에 통일혁명의 여명이 비꼈습니다. 인간의 참된 사상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장군님의 기치, 주체의 기치를 더 높이 들어주십시오. 동지들, 노래를 부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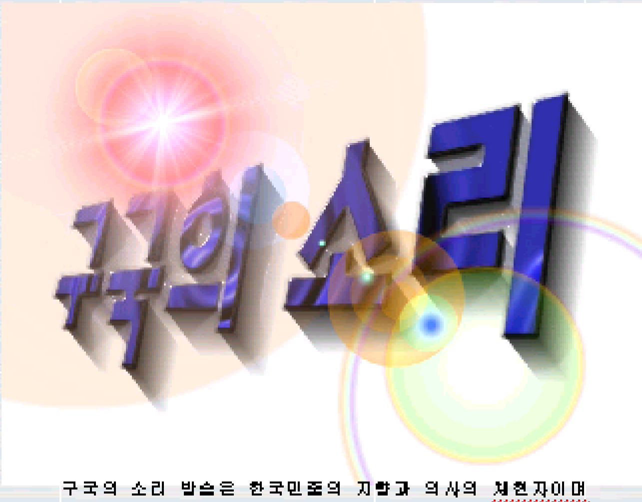
통일혁명의 영웅 김종태동지가 남긴 마지막 호소는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선율과 함께 오늘 우리 심장 속에서 힘차게 고동치고 있다.

통일혁명당원들의 숭고한 애국심은 전위당의 이름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영원히 빛날 것이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하나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 계시는 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전위당의 향도를 받는 한 한국변혁과 조국통일은 확정적이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주체 90(2001)년 8월 25일
서울

인터넷 ≪구국의 소리≫



구국의 소리 방송은 한국민족의 지향과 의사의 체현자이며
애국적 전위대인 한민전의 방송으로써
시대와 민족의 향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자주, 민주, 통일의 새날을 향해 싸우고 계시는
민족여러분의 앞길을 밝히는 등대가 되고,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친근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방송주파수 : 중파-1053, 단파-1135, 3480, 4450, 4557, 6010 kHz
방송시간 : 오전 6시-10시, 오후 12시-4시, 오후7시-다음날 새벽2시

교열 편집과 내용상의 오류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민전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며
편집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